

第27回 韓日・日韓民間合同經濟委員會 會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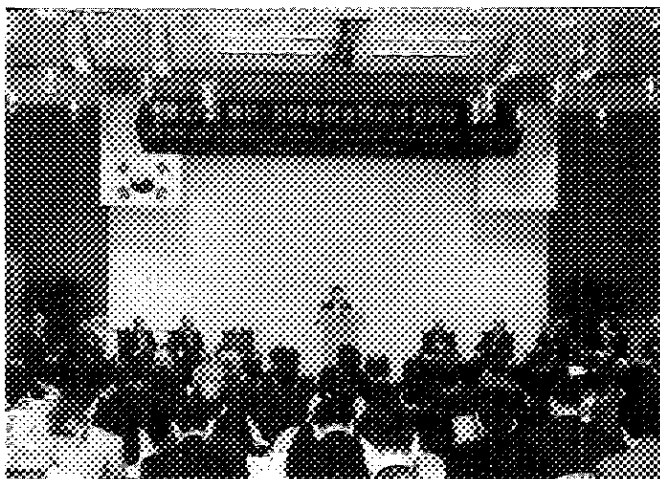
THE 27TH JOINT CONFERENCE OF
KOREA-JAPAN & JAPAN-KOREA ECONOMIC COMMITTEES

1995.4. 13~15 CHEJUDO, KOREA

報 告 書

(社)韓日經濟協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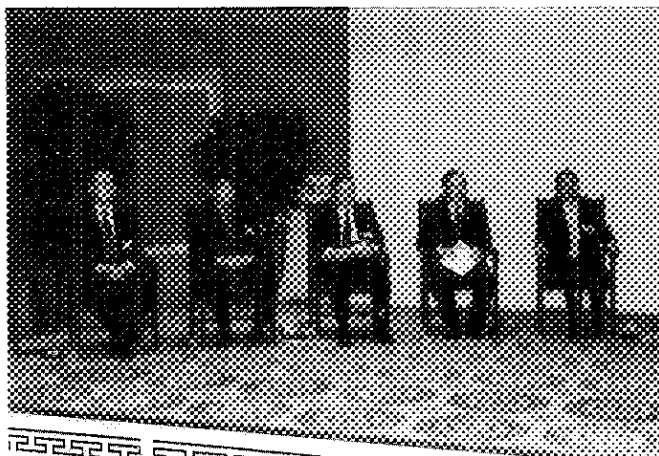
第27回 韓日・日韓民間合同經濟委員會 會議 (1995.4.13~15 CHEJUDO, KOREA)



開會式에 參席한 兩國企業人



會議을 進行하는 兩國團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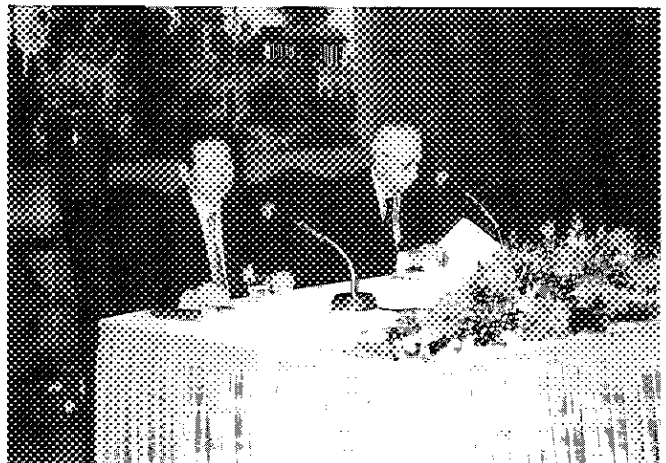
韓國側 團長團과 來賓(朴在潤通商産業部 長官)



分科會 進行 모습



환담을 나누고 있는 兩側人士



會議을 마치고 記者會見하는 兩國團長

目 次

1. 會議日程	5
2. 會議議題	9
3. 兩側代表團 名單	11
4. 開會式 團長人事	
1) 朴 龍 學 韓國代表團 團長	26
2) 羽倉 信也 日本代表團 團長	28
5. 開會式 來賓祝辭	
1) 朴 在 潤 通商産業部 長官	31
2) 山下 新太郎 駐韓日本特命全權大使	37
6. 開會式 顧問人事	
1) 金 相 廈 大韓商工會議所 會長	39
2) 川上 哲郎 (社)關西經濟連合會 會長	41
7. 基調演說	
1) 새로운 時代, 새로운 패러다임 -선한 이웃으로 다시태어나자 -	43
金 宇 中 大宇GROUP 會長	
2) 國交正常化 30周年을 맞이하여, 日韓經濟協力の 將來를 생각한다 -	50
米倉 功 伊藤忠商事(株) 會長	

8. 全體會議 ①

1) 一般經過報告	56
2) 各專門委員會 報告	
(1) 韓日・日韓 貿易委員會	58
(2) 韓日・日韓 機械工業委員會	59
(3) 韓日・日韓 中堅・中小企業委員會	61
(4) 韓日・日韓 產業一般委員會	63

9. 第 1 分科會 (貿易關聯分野)

1) 主題發表

(1) 「WTO體制下에서의 韓日兩國의 協力方案」	67
----------------------------	----

安 宗 原 (株) 雙 龍 代表理事

(2) 「WTO體制下の 日韓 貿易의 未來像」	72
--------------------------	----

伊藤 正 住友商事(株) 取締役 會長

2) 코멘트	81
--------	----

10. 第 2 分科會 (產業協力分野)

1) 主題發表

(1) 「轉換기에 선 韓日關係와 새로운 兩國間 技術協力 方案」	101
---------------------------------------	-----

李 潤 雨 三星電子(株) 代表理事 副社長

(2) 「아시아地域에 있어서의 産業協力の 未來像」-----	106
----------------------------------	-----

三木 利夫 新日本製鐵(株) 代表取締役 副社長

2) 코멘트 -----	114
--------------	-----

11. 合同分科會 (交流增進分野, 其他)

1) 主題發表

(1) 「過去・現在, 그리고 未來의 韓日關係」-----	125
--------------------------------	-----

金 容 雲 漢陽大學校 名譽教授

(2) 「日韓 旅客觀光産業의 振興을 위하여」-----	134
-------------------------------	-----

佐藤 晃一 (株)호텔 오쿠라 代表取締役 社長

2) 提案 및 答辯

(1) 「韓日經濟人交流促進團 誘致」-----	142
--------------------------	-----

朴 泳 逸 大農GROUP 會長

(2) 「訪日輸出促進團 및 對日投資誘致團・産業技術交流및선 派遣」-----	145
---------------------------------------------	-----

李 吉 鉉 三星物産(株) 副社長

(3) 「青少年交流韓日大學生 相互訪問(共同提案)」-----	148
----------------------------------	-----

竝木 友 (社)日韓經濟協會 常務理事

13. 全體會議 ②

1) 第 1 分科會 (貿易關聯分野) 議長報告 -----	153
--------------------------------	-----

朴 世 英 韓國側 共同議長

1) 第 2 分科會 (產業協力分野) 議長報告	----- 158
趙 錫 來 韓國側 共同議長	
14. 共同聲明	----- 161
15. 閉會式 團長人事	
1) 朴 龍 學 韓國代表團 團長	----- 165
2) 羽倉 信也 日本代表團 團長	----- 166

日 程

日 時：1995年 4月 13日(木) ～ 15日(土)

會議場所：濟州新羅 HOTEL 5F HALLA (開·閉會式, 第2·合同分科會)
濟州觀光센터 (第1分科會)

4月 13日 (木)

16:00 - 16:40 開會式 ----- 濟州新羅 HOTEL 5F HALLA

(1) 開會

(2) 兩側團長人事

韓國側：朴 龍 學 團長

日本側：羽倉 信也 團長

(3) 來賓祝辭

韓國側：朴 在 潤 通商産業部 長官

日本側：山下 新太郎 駐韓日本國特命全權大使

(4) 顧問人事

韓國側：金 相 廈 大韓商工會議所 會長

日本側：川上 哲郎 (社)關西經濟連合會 會長

(5) 議長選出

(6) 議題採擇：朴 龍 學 團長

16:40 - 17:00 COFFEE BREAK

17:00 - 18:00 基調演說

韓國側：金 宇 中 大宇GROUP 會長

새로운 時代, 새로운 패러다임

- 선한 이웃으로 다시 태어나자 -

日本側：米倉 功 伊藤忠商事(株) 會長

國交正常化 30週年을 맞이하여, 日韓經濟
協力の 將來를 생각한다.

18:00 - 18:30 全體會議 ①

- (1) 一般經過報告
- (2) 各專門委員會 報告
 - 1) 韓日貿易委員會
 - 2) 韓日機械工業委員會
 - 3) 韓日中堅中小企業委員會
 - 4) 韓日產業一般委員會

19:00 - 20:30 RECEPTION (共同主催) ----- 濟州新羅 HOTEL 5F
HALLA II, III

4月 14日 (金)

09:00 - 12:00 各分科會別 會議

第1分科會「貿易關聯分野」----- 濟州觀光센터 1F
會議室

共同議長 韓國側：朴 世 英 副團長
日本側：藤村 正哉 副團長

第2分科會「產業協力分野」----- 濟州新羅 HOTEL 5F
HALLA II, III

共同議長 韓國側：趙 錫 來 副團長
日本側：館 豐夫 副團長

《 分科會 細部日程 》

09:00 - 09:05 兩側共同議長 人事
09:05 - 09:30 韓國側 主題發表
09:30 - 09:55 日本側 主題發表
09:55 - 10:23 PANELIST 發言 (兩側 各2名)
10:23 - 10:30 豫備時間
10:30 - 10:45 COFFEE BREAK
10:45 - 11:15 主題發表者, PANELIST 補充發言
11:15 - 11:50 質疑應答
11:50 - 12:00 議長總括

12:00 - 14:00 午餐會 (韓國側 主催)

° 顧問・團長團, 各專門委員長 ----- 5F WEOLLA
° 團員 ----- 5F HALLA I

14:00 - 15:25 合同分科會「交流增進分野, 其他」-- 5F HALLA II,III

共同議長 韓國側：金 在 哲 副團長

日本側：梅村 正司 副團長

《合同分科會 細部日程 》

14:00 - 14:05 兩側共同議長 人事
14:05 - 14:30 韓國側 主題發表
14:30 - 14:55 日本側 主題發表
14:55 - 15:05 質疑應答
15:05 - 15:20 提案事項
15:20 - 15:25 議長總括

15:25 - 15:45 全體會議 ② ----- 5F HALLA II, III
第 1, 2 分科會 結果報告

15:45 - 16:00 COFFEE BREAK

16:00 - 16:30 閉會式 ----- 5F HALLA II, III
(1) 共同聲明採擇
(2) 兩側團長人事
(3) 閉會

17:00 - 17:30 共同記者會見 ----- 5F WEOLLA

4月 15日 (土) * OPTION PROGRAM

(1)

08:40 - 09:40 HOTEL - 民俗自然史博物館 (BUS)

09:40 - 11:00 見學

11:00 - 11:20 博物館 - 濟州空港 (BUS)

(2)

07:00 - 07:30 HOTEL - 中文GOLF場

07:30 - 12:00 大會進行

12:00 - 13:30 午餐

議 題

1. 第 1 分科會（貿易關聯分野）

韓國側：「W T O 體制下에서의 韓日兩國의 協力方案」

安 宗 原 (株)雙 龍 代表理事

日本側：「W T O 體制下의 日韓 貿易의 未來像」

伊藤 正 住友商事(株) 取締役 會長

2. 第 2 分科會（產業協力分野）

韓國側：「轉換기에 선 韓日關係와 새로운 兩國間 技術協力 方案」

李 潤 雨 三星電子(株) 代表理事 副社長

日本側：「아시아地域에 있어서의 産業協力の 未來像」

三木 利夫 新日本製鐵(株) 代表取締役 副社長

3. 合同分科會（交流增進, 其他）

韓國側：「過法・現在, 그리고 未來의 韓日關係」

金 容 雲 漢陽大學校 名譽教授

日本側： 「日韓 旅客觀光産業의 振興을 위하여」

佐藤 晃一 (株)호텔 오쿠라 代表取締役 社長

〈提 案〉

(1) 「韓日經濟人交流促進團 誘致」

朴 泳 逸 大農GROUP 會長

(2) 「訪日輸出促進團 吳 對日投資誘致團・産業技術交流및선 派遣」

李 吉 鉉 三星物産(株) 副社長

(3) 「青少年交流韓日大學生 相互訪問(共同提案)」

竝木 友 (社)日韓經濟協會 常務理事

한 任務가 있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尊敬하는 韓日兩國의 代表團 여러분.

지금 世界經濟는 하나의 큰 轉機를 맞고 있습니다. 舊共產圏의 社會主義經濟體制가 崩壞됨에 따른 自由市場經濟로의 編入過程이 아직도 完全치 못하고 있는 데다가, EU와 NAFTA의 結成等 經濟의 地域主義가 強化되는 趨勢가 深化되고 있는 가운데, WTO體制의 出帆으로 새로운 國際貿易秩序의 構築이 進行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國際經濟가 여러모로 變化를 가져오고 있으므로, 이에 積極的으로 對應하기 위해서도 韓日兩國의 相互協力은 從前 以上으로 緊要한 課題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世界經濟가 이처럼 새로운 달바꿈을 爲해 安간힘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日本의 經濟는 버블의 後遺症이 가져온 오랜 不況의 늪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時期에, 阪神大震災라는 豫期치 못했던 大慘事로 말미암아 새로운 經濟的 難關에 直面하게 된 直後에 이번에는 円高事態를 맞음으로써, 어려움에 逢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日本은 지난날에도 不況과 經濟難局을 그때마다 슬기롭게 克服하여, 確固不動한 經濟大國의 자리를 堅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日本은 반드시 早速한 時日內에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것으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여기서 日本側 代表團 여러분께 當付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과 같은 全世界的인 難局에 直面하고 있을때일수록, 世界와 더불어, 그 중에서도 바로 이웃인 韓國과 더불어 힘을 합쳐서, 相互補完의 努力을 持續하기 爲한 協調를 強化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두나라는 勿論이려니와 東北아시아의 安定과 繁榮, 나아가서는 全世界의 發展과 人類의 幸福에 이바지하는, 最上의 結果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確信합니다.

끝으로, 이번 合同會議가 兩國間 經濟協力の 加一層의 強化를 가져오는 뜻깊은 轉機가 될 수 있기를 懇切히 祈願하면서 이것으로 人事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大端히 感謝합니다.

團 長 人 事

日 本 代 表 團

團長 羽倉 信也

방금 소개받은 羽倉입니다. 오늘 이곳 제주도에서 제27회 일한·한일민간합동 경제위원회가 개최됨에 즈음하여 일본측을 대표하여 한마디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친애하는 박용학 단장님을 비롯한 한국측 고문님들과 대표단 여러분께서 저희 일본측 대표단을 따뜻하게 환영해 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내빈으로 왕림해 주신 박재운 통상산업부 장관님과 山下 駐大韓民國 特命 全權大使님께서도 多忙하신 가운데 임석해 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본 합동회의의 개최 준비를 위하여 각별히 애써주신 한일경제협회 사무국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謝意를 표하고자 합니다.

나아가서 阪神 대지진 시에 따뜻한 구호의 손길을 뻗쳐주신 한국 정부 및 각 경제단체, 기업등의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일한 국교정상화 3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할 만한 해입니다. 그 간의 30년 동안 한국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일컬어지는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하였으며, 순조롭게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실현시켜 왔습니다. 또한 金泳三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이후에는 경제적 민주화가 가일층 진전되는 가운데 국민의 참여와 창의에 입각한 「신경제」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가을 이후, 이른바 「세계화」 정책을 제창하시어 한국의 국제적 지위의 가일층의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개도국에 대한 경제협력 등 경제력에 상응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책임을 수행하겠다고 표방하고 계십니다. 또한 1996년에는 OECD 가입이 예정되어 있는 등 한국은 선진국 대열진입을 그야말로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一連의 움직임을 보면서 한국의 경제적 실력향상과 이에 따른 한국의 자신감과 긍지에 대하여 깊은 인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러한 한국경제의 눈부신 약진에 힘입어 일한 양국의 경제관계도 더욱 확대되었고 그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국의 무역액은 그 간에 2억달러에서 389억 달러로 자그만치 2백배 가량이

로 확대되었습니다. 양적인 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한국의 기술력과 가격경쟁력향상을 배경으로 하여 최근 들어서는 수직분업적역할 분담에서 수평분업적 역할분담으로 변화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양국 기업이 공동으로 생산이나 연구개발을 한다든지 한국기업이 일본기업을 인수하는 등의 움직임은 이러한 움직임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제관계뿐만이 아닙니다. 지금은 정치·문화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갖가지 레벨에서, 단체간은 물론 개인적인 교류에 이르기까지 그 폭과 깊이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양국관계는 과거에 유례가 없을 만큼 양호해졌다고 봐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교정상화 30주년을 맞이한 오늘날, 우리들은 이러한 과거 30년간의 축적을 토대로 하여 종전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equal partner 관계를 지향할 단계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아시아 내지 세계속의 일본과 한국의 역할은 더욱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즉, 21세기에도 세계경제를 이끌어 나갈 견인차적 역할이 기대되고 있는 아시아에서 그 중에서도 선진경제국인 일한 양국이 서로 손잡고 아시아국가들과의 공생을 꾀하면서 이 지역의 경제발전에 공헌하고, 이로써 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일한 양국의 이익에 합치될 뿐 아니라 세계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도 필요 불가결한 일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념할 만한 해인 올해의 합동회의를 계기로 하여 「아시아 속의 일한」 「세계속의 일한」이라는 시점이 뜻하는 바를 다시금 초심으로 돌아가 되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일본 경제는 급격한 엔고와 阪神대지진에 의한 피해 등으로 말미암아 갇혀복되기 시작했던 경기가 주춤할 우려가 있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정치적으로도 단기정권이 계속되고 있고, 현 정권도 완전히 안정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는 경제적으로는 수출과 설비투자의 증가를 배경으로 호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정치적으로는 金 泳三 대통령의 임기가 반이 지나고, 올 6월의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이른바 「정치의 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칫하면 국제적인 경제문제를 소홀히 하기 쉬운 이러한 상황하에서야말로 우리 민간인에 의한 경제교류가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 올해는 양국의 현안인 북한문제를 둘러싸고 커다란 움직임이 예상되며, 이 방면에서도 가일층의 협력이 필요해질 것입니다.

양국 대표단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이해하시어 이번 제27회 일한·한일
민간합동경제위원회가 예년보다 더욱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이해와 협력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양국 대표단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모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이상
으로 저의 인사말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來賓祝辭〉

한·일 經濟協力の 새로운 전개

－ 互惠的 同伴關係를 향하여 －

通商産業部

長官 朴在潤

인사말

하구라 노부야(羽倉信也) 日韓經濟協會 회장님, 朴龍學 韓日經濟協會 회장님, 日本과 韓國 경제계 여러분! 그리고, 야마시타 신파로(山下新太郎) 대사님을 비롯한 來賓 여러분!

韓國과 日本 두 나라의 경제협력증진과 민간교류확대를 이끌어 온 「韓日・日韓 民間合同經濟委員會」의 스물 일곱번째 회의에 참석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韓國과 日本의 國交가 正常화된지 꼭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1965년 友好와 協力を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이래, 그동안 經濟를 비롯한 社會・文化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한 交流를 추진하여 눈부신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양국간의 經濟協力增進에 헌신해 온 한·일 經濟人 여러분의 노고에 致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1세기를 맞아 東北亞의 中心國家인 韓國과 日本은 새로운 協力の 時代를 열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濟州道 회의는 두 나라의 經濟人들이 세계와 미래를 향하여 함께 손잡고 나아가기 위한 相互協力方案을 함께 모색하고, “互惠的 同伴關係”를 다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變化하는 通商與件

21세기를 불과 몇년 앞두고 있는 오늘날 世界經濟는 전에 없이 빠르고 폭넓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금년 1월1일부터 GATT를 대신하여 세계경제를 규율할 WTO體制가 출범하였습니다. WTO체제는 모든 나라의 국경 문턱을 낮추

고 세계를 하나의 열린 시장으로 통합하여 보다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가능케 함으로써, 세계무역과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와 같이 多者主義가 강화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地域主義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地域主義의 일부 차별적인 조치들은 협력적인 세계경제체제의 강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만, 당사국의 노력에 따라서는 地域主義가 多者主義의 試驗場으로서, 이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경제질서의 급속한 변화로 국가간의 競爭은 보다 치열하게 전개될 것입니다. 다만, 이와 동시에 공존공영을 위한 국가간의 協力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에 각국은 양자관계에서 협력과 신뢰를 쌓아나가야 하므로, 국경을 초월한 기업간의 戰略的 提携를 지원하는 등 協力的인 通商活動에도 많은 비중을 두게 될 것입니다.

「競爭과 協力」의 通商政策

2년전에 출범한 한국의 문민정부는 「新경제 5個年計劃」에 따라 재정·금융·경제행정규제 등에서 광범위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경제의 발전 메카니즘의 근간을 政府의 指示와 統制로부터 國民의 參與와 創意로 대체하려는 것입니다. 모든 경제활동에 대하여 경제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능동적으로 창의력을 발휘하게 함으로써 경제발전의 새로운 原動力을 만들어 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세계化」를 國政의 중요한 指標로 삼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世界一流의 규범과 관행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新경제」와 「世界化」가 추구하는 방향은 한국의 통상정책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한국은 각종 지원수단을 동원하여 수출우선의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국내산업보호라는 단기적 이익을 위해 수입개방은 지엽적이고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렀던 측면도 없지 않았습니다.

세계 13대 무역국가로 성장한 지금 한국은 협력을 요구하는 새로운 국제조류에 부응하여 능동적이고 전향적인 통상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競爭과 協力」을 조화시키는, 또는 「競爭과 協力」을 병행시키는 통상정책을 펴 나가고자 하

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수출에만 역점을 두지않고 輸入도 함께 생각하는 通商政策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출에 있어서는 양적인 성장을 계속해 나가면서 수출구조를 고도화하는 질적인 발전도 동시에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수입에 있어서는 대외적인 관계 뿐만 아니라, 국내산업의 경쟁력강화와 소비자후생의 증진도 함께 고려하여 實質的이고 一貫性 있는 開放政策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무역 뿐만 아니라 技術 및 資本의 協力도 重要視하는 通商政策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외국과의 산업·기술협력을 수반하지 않는 수출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외국과 제휴할 기술과 투자할 자본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商品과 서비스 뿐만 아니라 技術과 資本의 交易도 중요시할 것입니다.

세째로, 多者主義에 적극 參與하는 通商政策을 펴 나갈 것입니다. 과거 多者間 通商協議에서 우리는 한국의 책임과 역할의 분담 요청에 대하여 경제적 사정이나 정치적 민감성을 이유로 수동적인 자세로 대응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수동적 자세에서 과감히 탈피할 것입니다. 다자간 통상협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을 반영시켜 나가면서 새로운 세계경제질서의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넷째로, 한국은 세계경제와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位相에 걸맞는 責任과 役割을 수행하기 위해 後發開途國에 대한 支援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발전 경험을 후발개도국에게 전수하고, 그들의 발전을 위해 자본과 기술을 공여하며 公的開發支援(ODA)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한·일간의 互惠的 同伴關係

한국의 對日 通商政策 또한 이와 같은 「競爭과 協力」의 통상정책방향과 궤를 같이 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 30년간 한·일 두 나라는 무역·투자·기술·산업등 經濟全般에 걸쳐 긴밀한 經濟協力關係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이제 日本과 韓國은 서로에 대하여 각각 제2위와 제3위의 交易相對國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양국간의 경제협력관계는 一方的 依存關係로부터 互惠的 同伴關係로 바뀌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과거에는 한국이 工業化에 필요한 機械類와 部品·素材를 일본으로부터 수입하고, 그에 따라 제조된 경공업제품을 제3국에 수출하는 형태였습니다. 최근

에는 이들 部品과 素材를 중심으로 같은 産業內에서 양국간의 교역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컨대, 일본으로부터 특수주문형 반도체와 특수강을 수입하면서 한국은 범용메모리 반도체와 후판을 수출하는 경우 등입니다.

이와 같은 産業內 交易은 産業間 交易에 비하여 국가간이나 생산자간의 분업을 통해 보완성을 증대시키고, 기술의 발전을 촉진합니다. 따라서, 産業內 交易은 균형되고 호혜적인 교역확대를 가져옵니다.

둘째, 투자에 있어서도 과거에 한국은 일본 기업에게 있어서 단순히 저렴한 임금을 활용할 수 있는 海外生産基地의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아자동차와 마쓰다자동차가 첨단기술을 상호보완하여 대형승용차를 공동개발키로 한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국간에는 戰略的 提携를 통하여 상호협력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셋째, 기술협력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貿易逆調를 이유로 일방적인 기술이전이 요구되기도 하였습니지만, 이제는 경제논리에 따라, 그리고 서로의 필요에 의해 技術交流를 통한 分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후지쓰와 삼성전자간의 薄膜트랜지스터방식 液晶畫面에 대한 기술을 상호 공유키로 한 경우 등입니다.

이와 같은 互惠的 同伴關係는 양국기업이 보다 전향적인 통상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더욱 확대·심화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한·일 양국간의 互惠的 同伴關係를 강화하기 위한 매우 유익하고 현실적인 방안의 하나로 본인은 部品·素材産業에서의 양국간 산업협력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한 때 한국은 민주화의 과정에서 임금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勞使紛糾가 빈발하여 일본기업에게는 해외생산기지로서의 매력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勞使協調의 雰囲気가 확산되는 가운데 임금 상승률도 생산성 향상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세계 제12위의 방대한 內需市場, 높은 敎育熱과 풍부한 熟練勞動者, 선진국에 견줄 수 있는 産業基盤, 그리고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는 社會間接資本 등은 투자대상지로서의 한국의 매력을 되살려 주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국을 세계에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 각종 제도들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外國人投資에 대한 制限業種의 대폭적인 축소와 節次의 간소화, 土地取得規制의 완화 그리고 海外資金調達의 원활화 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6월과 내년 7월이면 光州와 天安에 外國人投資企業 專用工團이 완성되며, 이들 공단의 입주기업들에게는 임대료 면제, 수입국다변화제도의 적용제외,

세제와 금융상의 지원등 획기적인 혜택이 부여됩니다.

일본이 部品・素材産業을 한국으로 이전할 경우 엔高의 영향을 극복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탈출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게는 國交正常化 이래 해마다 계속되어 왔고 그 폭이 확대되어 드디어는 전체 무역적자 규모를 초과하고 있는 對日貿易赤字를 건설적으로 축소해 가는 아주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亞・太地域에서의 협력

지금 아시아・太平洋 地域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21世紀가 太平洋의 世紀가 될 것이라는 아놀드 토인비의 전망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太平洋 地域의 역동적 발전을 위하여 동반자로서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앞서 제안한 바와 같이 한국이 일본의 部品・素材産業의 生産基地가 된다면, 여기에서 생산된 제품은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아시아・太平洋 地域에 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의 尖端技術力과 資本力이 한국의 優秀한 人力・生産力과 提携된다면 세계 일류의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더 나아가 한국과 일본 사이의 협력관계를 확대하는 것은 아시아・太平洋 地域의 共同繁榮에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나라가 양국의 상호이익과 세계를 위하여 함께 할 일들이 매우 많습니다.

앞으로 양국은 APEC등 지역협력체내에서 무역과 투자의 확대를 위해 함께 협력하는 것은 물론이며, 중소기업 육성과 超高速 情報通信網體制의 구축 등 地域開發을 위해서도 계속 협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맺음말

韓國과 日本 經濟界의 代表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來賓 여러분!

세계경제질서의 틀이 새롭게 바뀌고, 세계경제의 발전원동력이 아시아・太平洋 地域으로 옮겨지고 있는 지금, 韓國과 日本 두 나라 사이의 경제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경을 넘어서서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창출해 내는 經濟人 여러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韓日・日韓 民間合同經濟委員會」가 이러한 역할을 뒷받침하는 求心體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濟州道 회의가 “互惠的 同伴關係”를 바탕으로 우리 두 나라가 세계와 미래를 향하여 손잡고 나아가는 진정한 상호협력을 모색하는 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구라 노부야 회장님을 비롯한 日本 經濟界 代表 여러분들의 訪韓이 한국인의 따뜻한 우정속에 즐겁고 보람있는 기억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회의의 준비를 위하여 애써 주신 양국협회 관계인사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來賓祝辭

駐大韓民國 日本國特命全權大使

山下 新太郎

박용학 한일경제협회 회장님, 羽倉(하구라) 일한경제협회 회장님, 박재운 통상산업부 장관님, 그리고 참석해주신 여러분.

방금 소개받은 山下 (야마시타)입니다.

양국의 경제협력관계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계시는 여러분께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셔서 양국간의 경제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키기 위해서 회의를 가지시는 것은 극히 의의깊은 일이며, 본인으로서 이 모임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올해는 일한양국에 있어서 전후 50년, 국교정상화 30년이란 기념해야 할 해이며, 이제까지 양국이 걸어 온 길을 돌이켜보면서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위해 새로운 걸음을 시작함에 알맞는 해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1965년 당시의 한국으로부터 일본으로의 수출은 4,400만달러, 수입은 1억 6,700만달러였습니다.

작년 '94년의 한국으로부터 일본에 대한 수출은 '65년 당시의 300배가 넘는 135억달러를 초과했으며, 수입은 역시 150배를 넘는 약 254억달러에 달했습니다. 수출입을 합한 무역규모로 봐서도 약 30년간 사이에 180배 가까이까지 증가되었습니다.

이렇게 양국의 통상관계는 긴밀한 관계로 발전되어 오고 있습니다.

투자면에 있어서도 양국간관계는 한층 더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첨단기술분야에 있어서의 양국기업간의 협력이 추진되고 있으며, 일한양국이 상호의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일한양국의 경제관계가 수직적인 관계로부터 보다 수평적인 관계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작년에는 한국의 대일무역적자가 100억달러를 넘는 등 무역불균형이 한층 더 현저해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반드시 비관적인 측면만은 아닙니다. 특히 한국의 대일 수출이 3년간에 걸친 감소경향으로부터 벗어나서 '94년에는 16.9%의 대폭 증가로 전환된 것이 주목됩니다. 이것은 엔고의 영향도 있지만 한국기업의 수출노력과 일본의 수입확대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대일수출이 한국의 경기확대에 따라서 급증되어, 대일수출의 증가율을 상회하는 26.9%의 증가를 기록했음으로 인해 대일적자액이 확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대일수입품목의 구성을 보면 자본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입자본재가 한국제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무역불균형의 시정을 위해서는 민간차원의 노력이 정부간의 노력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양국의 경제계에 의해서 설립된 일한,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의 활동은 양국간의 산업기술협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무역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번처럼 양국경제계를 주도하는 여러분들이 상호이해를 위해 경주하고 계시는 노력이 일한양국간의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국의 경제관계가 보다 긴밀하고 미래지향적인 파트너로서의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힘이 불가결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진력을 부탁드립니다 제 인사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開會式〉

顧問人事

大韓商工會議所
會長 金相廈

尊敬하는 하구라노부야(羽倉 信也) 日韓經濟協會 會長님, 朴龍學 韓日經濟協會 會長님, 그리고 이자리에 參席하여주신 韓日兩國의 經濟界代表 여러분!

아름다운 自然景觀과 독특한 鄉土文化를 자랑하는 이 곳 濟州에서 第27回 韓日 · 日韓民間合同經濟委員會 合同會議를 開催하게 된 것을 慶祝해 마지않으며, 이렇게 人事의 말씀까지 드리게 된 것을 큰 榮光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周知하시는 바와 같이, 21世紀를 目前에 두고 있는 오늘의 國際經濟環境은 하루가 다르게 變化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妥結에 따른 WTO體制的 出帆은 完全한 國家間 自由貿易을 實現시킴으로써 世界經濟를 單一市場으로 統合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國家的 利益을 共有하고자 하는 크고 작은 經濟블럭이 擴大됨으로써 多樣한 形態의 世界經濟構圖가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또한, 國家間 經濟力 隔差에 따른 技術 및 生産設備의 急速한 移轉과 低價輸入商品의 內需市場 流入에 따른 “産業空洞化” 및 “價格破壞”의 出現 등은, 이른바 “國境없는 無限競爭時代”의 到來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世界化, 國際化, 開放化라는 이름아래 새로운 世界經濟秩序의 再編을 예고하고 있는 1995년의 우리 周邊의 與件은 韓日 두나라에게도 關係緊密化를 위한 倍前의 努力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韓日 兩國의 企業人 여러분!

最近 우리 두나라의 經濟狀況을 보면 兩國間 經濟協力 增進을 위해 유리한 環境이 造成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日本은 最近 繼續되는 엔고의 波及효과를 最小化하기 위해 經濟의 글로벌화에 拍車를 가할 것으로 豫想되고 있습니다. 한편, 韓國은 지난해 外國人 投資關聯制度를 크게 改善한 데 이어, 社會間接資本 施設의

擴充사업도 순조롭게 進行시키고 있으며, 지난 3月에는 OECD에도 加入申請을 마침으로써 經濟의 先進化, 開放化가 크게 進展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처한 이러한 對内外 經濟環境을 감안해 볼 때, 우리 두나라 企業人이 相互協力可能 分野를 찾는다면 두나라의 經濟發展은 물론 다가오는 21世紀에 經濟成長의 中心地가 될 아시아 太平洋지역에서 우리 두나라가 成長의 軸이 되는데 寄與하리라 믿습니다.

모조록 오늘 이자리가 眞率한 意見交換을 통해, 韓日 兩國間의 經濟協力增進을 위한 實質的이고도 具體的인 方案들이 論議되는 有益한 자리가 되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이 기회를 빌어 지난 1月 日本 關西지방에서 발생한 大地震으로 인해 犧牲된 貴重한 人名과 엄청난 財産上的 損失에 대해 深深한 慰勞의 뜻을 表하며 被害復舊가 하루속히 이루어 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이자리에 參席하여 주신 兩國 代表團 여러분께 다시한번 感謝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健勝과 하시는 사업의 繁昌을 충심으로 祈願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感謝합니다.

顧問人事

(社)關西經濟聯合會
會長 川上 哲郎

내빈 여러분, 일한양국 대표단 여러분, 오늘 일한양국의 민간합동경제위원회 회의 제27차 회의가 이렇게 성대히 개최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문으로서 한마디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1월 17일에 발생한 매그니튜드 7.2의 대지진으로 兵庫(효고)현을 중심으로 5,500명이나 되는 많은 분의 귀한 생명이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장을 맡고 있는 關西經濟聯合會가 있는 지역도 큰 피해를 입었으며, 제자신도 지진피해를 입었습니다. 지진발생 직후로부터 한국정부 및 민간 각 단체께서 보내주신 따뜻한 지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일본최대의 취급화물량을 갖는 고베(神戸)항의 피해는 심각하며, 한일양국의 무역에 대해서도 잠시동안 많은 폐를 끼치게 될 것 같습니다만, 하루속히 복구되도록 관계자 일동이 현재 전력을 경주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아시아각국의 경제성장은 눈부신 것이 있습니다. 1인당 GNP가 급속히 신장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국간의 관계가 가일층 강화되어, 역내에서의 수평분업체제의 구축이 진전되어, 세계의 성장센터로서 구미와 함께 큰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한양국간에는 구조적인 무역불균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본으로서는 가일층의 시장개방이나 규제완화를 도모하여 거액 무역흑자의 삭감이나 제품수입의 확대에 노력함과 아울러, 한국내의 부품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술이전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11월에는 APEC 각료회의와 비공식 정상회의가 오사카(大阪)에서 개최됩니다. 이 회의는, 21세기를 향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새로운 협조와 발전의 대강을 구축하기 위해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APEC는 EC나 NAFTA와 같이 협정에 바탕을 둔 강한 통합이 아니라, 완만한 협의체제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차원만이 아니라 민간도 의논에 참여함으로써 개방된 경제협력의 촉진을 도모할 것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계도 大阪회의의 개최에 맞추어서 심포지움의 개최를 준비하고 있으므로, 한국의

여러분께서도 많이 참가해 주시기를 바라고자 합니다.

올해는 일한국교정상화 30주년에 해당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일한양국이 세계나 아시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 나가야 할 것인지, 양국간의 구체적인 경제협력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서 기탄없는 의견교환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양국간의 상호이해가 가일층 깊어지면 다행입니다.

< 基調演說 >

새로운 時代, 새로운 패러다임
좋은 이웃으로 다시 태어나자

大宇 GROUP
會長 金 宇 中

< 인사말 >

여러분을 뵙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저를 이자리에 招請해 주신 朴龍學 會長님과 하구라 노부야(羽倉信也) 會長님, 그리고 經濟委員會의 임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兩國의 존경하는 기업인들 앞에서 저의 소신의 일단을 이야기하게 된 점을 큰 영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선 이자리를 빌어 얼마전 고베(神戸) 대지진과 도쿄(東京) 독가스 테러라는 큰 재해를 입은 日本國民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天災地變과 人災라는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속에서도 日本國民들이 보여준 놀라운 秩序意識과 의연한 대응태도는 韓國을 비롯한 세계인 모두에게 커다란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마도 마스크를 통해 전파된 사고처리의 모습을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日本이 경제는 물론 이미 생활, 문화수준에서도 世界化를 달성하고 선진국에 이르렀음을 실감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日本은 이번 災難을 통해 잃은 부분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많은 부분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第27回 韓日民間合同經濟委員會가 열리는 이곳 濟州道는 우리나라의 최남단에 위치하여 만물이 소생한다는 봄이 가장 빨리 찾아오는 곳입니다. 봄기운이 완연한 훈훈한 날씨에 힘입어 兩國의 經濟協力에 대한 논의가 더욱 진지하고 뜻깊은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급변하는 世界環境속에서 韓國과 日本, 더 나아가서는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이 미래를 위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世界化의 관점에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 世界化와 우리의 環境 >

지금 世界는 時間的으로는 20世紀의 막이 내리고 21世紀가 열리는 전환기에 있고 空間的으로는 폐쇄된 국경이 열리면서 世界人의 활동영역이 넓혀지는 변환기에 있습니다. 또한 思想的으로는 이데올로기라는 종전의 가치판단 기준이 사라지고 自國의 利益을 중요시 하는 변혁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제 한나라의 국력수준도 政治나 理念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經濟力이 얼마나 강한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自國의 經濟的 利益을 위해서는 이념은 물론 과거의 협력과 동맹조차도 이제는 아무 쓸모없는 기준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 自國의 利益을 지키기 위해서 인접국 또는 경제적 목표를 같이하는 국가간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EU(유럽연합), NAFTA(북미 자유무역 협정)라는 구체적인 지역블럭화 결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블럭들은 겉으로는 多者主義와 自由貿易을 표방하지만 근원적으로 살펴보면 지역내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經濟聯合에 다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전 출범한 WTO(世界貿易機構)體制도 中國과 日本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급격한 經濟成長과 세계에서 차지하는 경제적인 영향력에 자극을 받은 유럽과 美國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결성한 貿易機構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유럽과 미주지역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급속히 지역블럭화 되고 있습니다. 3億규모의 人口와 5兆달러의 GDP단위로 뭉치고 있는 이들에 대항하려면 아시아를 포함한 다른 지역의 국가들도 이에 맞선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世界經濟의 중심은 지중해에서 대서양을 거쳐 太平洋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太平洋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한 日本은 아시아 지역의 세계화를 선도하고 이를 위해 적지 않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국가라 생각합니다. 日本은 지금이야말로 과거 세계화의 기준이 되었던 유럽과 미주대륙에 연연하지 말고 과감히 인근 아시아 지역에 눈을 돌려 共存共榮의 길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각 구미의 地域化가 궁극적으로는 日本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국가들을 주된 타겟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코자 합니다. 日本 또는 아시아지역 어느 국가 혼자 이에 대항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동북아시아지역에는 文化的, 人種的으로 가장 가까운 민족이 모여 있습니다. 따라서 서구지역에 쏟는 半의 노력만으로 서로를 신뢰하고 화합한다면 倍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韓日兩國이 먼저 서로 결속하고 주변국가들과 협력한다면 그 상

승효과는 유럽이나 미주지역의 지역화에 맞설 수 있는 효과적 제후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제 아시아의 世界化를 위해서 韓日兩國은 그 어느때보다 서로를 믿고 이해하는 가운데 새로운 관계를 모색해야만 할 때입니다.

< 世界化와 韓日關係의 基本 前提 >

韓國과 日本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政治, 經濟, 文化的으로 교류를 지속하고 있는 동원문명권내의 이웃입니다. 兩國은 오랜 세월동안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올해는 韓日 兩國關係에 있어 戰後(光復) 50周年, 國交正常化 30周年을 맞는 보다 뜻깊은 해입니다. 한일경제교류의 실질적 기구에 해당하는 韓日民間合同經濟委員會가 개최된지도 벌써 27年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난 반세기동안 韓日 兩國關係는 정부와 관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동안 韓日 政府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양국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었고 또한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지금에 와서 되돌아 보면 韓日간의 협력에 있어서 피차간 더 잘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과 불만도 없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이지만 정부와 같은 거대한 사회조직은 官僚主義의 폐쇄성과 안주성으로 인해 변화를 적절히 수용하지 못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대안 마련을 위한 결정이 매우 느리다는 자적도 있습니다. 지난 과거 兩國關係가 다소 미진했던 이유도 상당부분은 여기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韓日 兩國關係도 과거처럼 정부와 외교채널에만 의존하지 말고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는 기업이 앞장서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전환을 모색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들은 資本主義와 社會主義의 대결이란 冷戰體制가 결국은 '보이지 않는 손'을 신봉한 自由市場體制의 승리로 끝났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같은 값진 결과의 근저에는 부단한 혁신과 끊임없는 노력을 계속해 온 기업과 기업가의 '움직이는 손'으로서 역할이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기업은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모든 문제에 대해 보다 合理的이고 效率的으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유동성을 지닌 조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앞장서서 문제를 풀어내고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면 兩國關係는 지난날 보다 더 신속하고 원활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행스럽게도 韓國은 文民政府가 들어선 이후, 經濟 運營에 있어서 기업의 자

움이 대폭적으로 신장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판단력에 대한 신뢰의 표시이며 적극적인 지원의지라 생각합니다. 日本의 경우도 政府와 企業간의 신뢰가 世界 어느나라보다 강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韓日 兩國의 기업이 정부의 지원아래 적극적으로 현안 해결에 나선다면 어떤 難題라도 대부분 풀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企業은 세계시장을 무대로 서로 다른 文化圈의 다양한 파트너와 經濟協力을 맺어 왔고 共存共榮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받는 경험과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물며 같은 문화권을 가지고 있는 韓日兩國의 企業들이 이같은 관계를 맺지 못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한 韓日兩國 關係를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서로를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진실된 마음이 先行되어야만 합니다. 서로를 믿지 못한다면 그 관계가 넓어지고 깊어지기 보다는 서로의 표면만 보는 겉도는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日本 말에 겉으로만 표현하는 말투는 ‘다테마에(建前)’라 하고 진짜 속마음을 털어 놓고 말하는 것은 ‘혼네(本音)’라는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兩國의 企業인들이 형식에 불과한 다테마에式 표현은 벗어 버리고 서로 마음을 여는 혼네의 마음으로 돌아간다면 兩國 關係는 보다 다양해지고 활발해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제 韓日 兩國은 지난 半世紀의 관계를 반추해 보면서 그동안의 問題點을 철저히 인식하고 반성하는 가운데 선한 이웃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진솔한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 韓日 關係의 基本, ‘혼네(本音)’精神 >

우리 두나라 국민들에게는 해묵은 감정과 갈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兩國 企業인들이 善隣協力을 하자고 하면 韓國에서나 日本에서나 곱지 않은 시각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韓國의 지식인들은 내심으로 日本이 이웃나라와의 ‘貿易逆調’, ‘技術移轉’에는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합니다. 日本도 역시 마음속에서는 韓國인들이 지나치게 과거에만 집착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日本의 정서로 보자면 韓國이 半世紀나 지난 과거를 아직도 잊지 않고 자신들의 입장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방패막이로 활용하거나 과거청산금 명목으로 經濟援助를 요구하는 구실로 이용하고 있다고 섭섭해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대해서는 韓日間의 문제에 머무르지 않는 듯합니다. 과거문제에 관한한 中國 등 아시아 지역의 여러나라들도 全國民은 물론 言論이 들끓는 격양

된 감정분출의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日本 議會의 不戰決議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日本 內部的 논란에 대해 며칠전 中國의 인민일보는 사실을 통해 日本이 아직도 과거를 진실된 마음으로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고 批判한 점도 이 같은 사례에 해당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느 국민들의 시각이 옳고 그른지를 논하는 문제에서 탈피하여 지나간 歷史를 ‘흔네(本音)’의 정신으로 냉정하게 분석해 보고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자신을 생각해 볼 수 있는 ‘易地思之’의 정신을 韓日 關係의 기본으로 삼아야만 합니다.

日本은 2次 世界大戰以後 훌륭한 지도자들의 헌신과 근검한 생활태도, 그리고 국민의 근면성으로 빠른 시일내에 국가 재건을 이룩했고 높은 경제적인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의 많은 지도자들은 이같은 日本의 선진화된 문화수준과 경제기적의 半은 이웃나라 도움에 바탕을 두었다는 歷史的 史實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戰後 아시아 지역의 冷戰體制 지속으로 日本은 자유진영의 일원으로 편입되어 서구 과학과 기술의 무상이전, 그리고 무한에 가까운 美國市場의 혜택을 받아 경제성장을 가속화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韓國戰爭을 통해 日本은 정치적 안정속에서 경제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 국민들은 日本이 2次大戰 당시 지배했던 아시아 여러나라의 장래를 위한 教育投資에는 인색했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이라도 日本이 아시아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젊은 사람들에 대한 교육투자를 더욱 늘려 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합니다.

이제 日本은 놀라운 經濟成長으로 세계 많은 국가들에게 驚異의 대상으로 부각되고있습니다. 일본은 다른 나라와의 ‘協力과 調和’에도 적극성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 世界化를 위한 韓日의 選擇 >

1世紀前, 韓國과 日本은 世界化라는 측면에서 너무나도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당시 韓國은 世界化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물밀듯이 밀려오는 외국문물에 대해 빗장을 걸어 잠그는 鎖國政策을 택한 결과 국가의 주권을 상실하는 쓰라림을 맛보아야 했고 오늘 현재까지 民族分斷이라는 아픔을 겪는 痛恨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반면 日本은 구미열강의 힘에 의한 開國을 危機로 생각하지 않고 외국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機會로 활용하여 先進化와 富國의 기틀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이같은 韓日兩國의 다른 선택은 수천년동안 가깝게 지낸 두나라를 한세기동안 너무나도 먼나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나간 兩國 世界化의 歷史를 되돌아 보면서 同質文明圈의 중심국가가 변화하는 환경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주변국가의 성패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새삼스럽게 생각해 보게 합니다. 1世紀前 韓國과 日本, 그리고 中國이 서로를 믿고 협조하면서 각각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국은 물론 주변국가의 안위를 함께 염려하고 서구 열강에 대응했다면 아시아 지역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밝고 희망찬 모습을 가질 수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19世紀末 日本 최대의 啓蒙思想家인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1835-1901)는 아시아에서 벗어나 서구를 지향하자는 '脫亞入歐'론을 제창하면서 日本 世界化의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한세기가 지난 이 시점에서 日本은 '脫亞入歐'에 대해 다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고 '혼네(本音)'의 마음으로 '아시아의 共存共榮에 순수하게 봉사한다'는 새로운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다.

過去는 現在를 비추는 소중한 역사의 거울입니다. 오늘날 아시아는 지난날과는 사뭇 다른 환경속에서 새로운 선택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지난날 아시아는 구미열강에 의해 '힘'으로 強占을 당한 슬픈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아시아는 '힘'이 아닌 '經濟'라는 새로운 수단의 도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선택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몫입니다. 이를 슬기롭게 대처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느냐의 여부 역시 우리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그 판단의 중심에 韓國과 日本은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韓日 兩國은 새로운 선택이 두나라는 물론 아시아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分水嶺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과거의 경험을 거울 삼아 '善隣協力을 통한 共同繁榮'이란 대전제아래 올바른 대안을 모색해야만 할 것입니다.

韓日兩國의 기업인들도 두나라의 새로운 선택에 적극 參與하여 兩國의 懸案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동시에 아시아 지역의 大同團結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만 합니다. 이제 韓國과 日本은 함께 노력하고 도와주는 同伴者로서, 서로에게 충고하고 일깨워 주는 善意의 競爭者로서 世界化의 모범을 보이고 다른 國家의 世界化를 이끌어 가는 先導國家의 모습을 새롭게 정립해야만 합니다.

< 맺음말 >

世界는 빛의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變化하는 環境에 적응하지 못하면 生存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參席한 모든 분들도 世界的 變化를 몸으로 느끼고 아시아 지역의 미래를 위해 韓日 兩國이 새로운 選擇과 올바른 判斷을 내리는데 많은 힘을 더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歷史와 傳統을 지닌 韓日民間合同經濟委員會가 매년 儀禮的으로 만나는 행사로 끝나지 말고 서로 진실된 마음을 열수 있는 기회를 더욱 많이 마련하여 이를 바탕으로 두나라가 함께 發展하는데 寄與하는 보다 뜻깊은 모임으로 계속 變換되기를 진심으로 期待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국교정상화 30주년을 맞이하여, 일한경제협력의 앞날을 생각한다

伊藤忠商事株式會社

會 長 米 倉 功

방금 소개받은 이토추(伊藤忠) 商事的 요네쿠라(米倉)입니다. 박용학 회장님, 羽倉 회장님을 비롯한 일한양국의 주요 경제인 여러분이 참석하신 이 민간합동경제위원회에서 말씀드릴 기회를 얻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1월 17일 새벽에 한신·아와지(阪神・淡路) 섬 지구를 강습한 대지진으로 5,400명이란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현재도 10만명을 넘는 분들이 부자유스러운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 한신·아와지대지진에 의한 피해가 일본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습니다. 또한, 한국의 대일수출의 27%가 고베(神戸)항을 경유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므로, 양국간의 무역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도 피해지의 부흥과 고베항의 기능의 조기회복이 급무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까지 5년만을 남겨놓고 있는 지금, 변모해가는 아시아·세계에 있어서 일한양국이 21세기의 장래를 향해서 양국의 협력관계에 대해서 평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오늘은 「국교정상화 30주년을 맞이하여, 일한경제협력의 앞날을 생각한다」는 테마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국교정상화 30주년

일한국교정상화 교섭은 14년에 걸친 어려운 교섭을 거쳐서 1965년 6월에 일한 기본조약이 정식으로 조인되었으며,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본 민간합동경제위원회는 국교정상화 이후의 양국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민간 경제교류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많은 선배 여러분의 노력으로 자유로운 의견교환의 장으로서 제1회 회의가 1969년에 개최되었습니다.

본 회의가 양국간의 지속적인 상호이해와 우호친선의 증진에 기여한 역할은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해 오신 일한·한일경제협회의 오랫동안에 걸친 노력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양국관계의 가일층의 강화와 상호이해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양국의 민간경제교류의 중심적 존재로서 양국 경제협회에게 기대되는 바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세계화와 글로벌라이제이션

올해 1월 1일부터는 세계무역기구(WTO)를 기축으로 한 새로운 무역체제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WTO체제의 발족은, 자유·무차별한 무역체제 아래서 공정한 국제간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전개됨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경제는 그야말로 대경쟁시대로 들어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WTO체제는 발족되었지만, 아직 가입국이 각각 추진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WTO에 포함되어 있는 많은 협정을 각국이 어떻게 실시해 나갈 것인지, 협정에 따라서는 장래적인 대강이 결정되었을 뿐, 사실상 그 내용이 금후의 국제교섭에 그 내용이 위임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도 큰 과제가 아직 남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WTO체제와 대경쟁시대 속에서 세계 각국은 경제중시적인 자세를 더욱 더 강화해서, 산업경쟁력을 향상시켜서 수출을 확대하고 국내의 고용을 창출하는데 국민이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자유무역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일한양국에게 상당히 유익하다는 인식을 갖는다면, 양국은 이 새로운 WTO체제의 원활한 출범과 그 후의 자유무역체제의 강화를 향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말, 金泳三大통령께서 「세계화」 구상을 발표하셔서 귀국에서는 이 「세계화」라는 말이 경제·정치를 말할 때의 키워드가 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일본인으로서도 金泳三大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세계화란 말은 익숙치 않은 말입니다만, 아마도 최근에 일본에서도 자주 거론되고 있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란 말에 가까운 의미일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올해로 전후 50년을 맞이하여 정치, 경제, 행정 등 모든 면에 걸쳐서 구조개혁의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일본경제의 현상은 여전히 거액의 대외불균형을 안으면서도 규제사회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시장개방도 아직 충분치가 않습니다. 또한 일본기업은 공공요금, 인건비 등 코스트가 상당히 높은 체질이나 90엔을 하회하는 초(超)엔고현상 가운데서, 산업구조전환의 일환으로서도 전략적으로 국제분업·국제협조를 추진하는 글로벌화의 길을 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엔고와 규제완화로 산업의 공동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우려하는

소리도 있습니다만, 일본의 산업의 국제화는 산업의 발전과 성숙에 따른 필연적인 방향이며, 엔고나 규제완화는 그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일본경제를 활성화시켜, 국제공헌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시장을 개방해서, 기업은 적극적으로 글로벌화를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기업의 글로벌화에 따른 직접투자의 증가는, 장기적으로는 최적생산입지나 현지에서의 일관생산, 부품이나 소프트웨어의 세계공통화, 국제분업에 의한 생산 네트워크의 국제통합 등 전략적 활동을 통해서 아시아, 태평양지역, 세계경제의 지속적 성장에 공헌한다는 경제효과를 가져옵니다. 정부개발원조와 민간직접투자의 연계에 의한 관민협력으로 ASEAN, 중국 등에서는 1980년대 이후 눈부신 경제발전의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근년 한국기업의 해외투자도 활발화되어 있으며, 이제는 한국 자신이 피원조국으로부터 선진국의 일원으로서 원조국 대열에 참입하려고 하고 있으며, 관민협력 아래 일본기업과 마찬가지로 세계경제,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공헌이 확대되어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도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듯이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해, 내년 1996년에는 OECD가입이라는 그야말로 경제선진국의 일원이 됩니다. 한국경제의 과거의 발전과정에서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외자규제나 수입제한, 정부의 수출촉진원조 등 국내산업 보호정책이 취해졌습니다. 그러나 한국도 OECD가입을 앞두고 개방체제의 정비나 규제완화가 긴급한 과제로 되어 있으며, 이것은 일본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과제와 똑 같습니다. 金泳三大통령께서는 세계경제 속에서 한국의 경제규모에 알맞는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도 시장개방의 뜻도 포함해서 「세계화」 구상을 발표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3. 양국경제관계

일한의 국교가 정상화된지 30년이 지났습니다만, 1965년의 국교정상화 당시에는 겨우 2.2억달러에 불과했던 일한간의 무역이, 작년 1994년에는 한국통계청의 통계에 의하면 384억달러 규모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작년의 한국의 대일수출은 중화학공업제품의 수출이 호황을 보여 전년대비로 16.9%의 증가를 나타냈습니다만, 대일수입도 한국의 호경기를 반영하여 전년대비로 26.9%가 증가되어 '90년 이후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고, 결과적으로 118억달러를 넘는 대일무역적자를 기록했습니다.

1991년 9월에 서울에서 개최된 제23회 일한·한일민간합동경제위원회의 제1합동분과회에서 「일한무역의 장기전망」이라는 주제로 양국간의 무역불균형에 관

해서 제 자신이 솔직한 의견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 양국간의 무역은 확대균형의 움직임과 그에 대한 양국의 진지한 노력으로, 일한무역의 앞날을 결코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도 이 확신은 옳다고 믿고 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에는 한국으로부터 민관합동투자유치단이 2번 방일하셔서 東京을 비롯한 일본국내 각지에서 한국에 대한 투자유치에 관한 설명회·상담회가 실시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작년 10월에 오니시(大西) 大阪상공회의소 회두를 단장으로 모시고 한국투자환경조사단이 파견되었습니다. 1988년에는 건수로 178건, 금액으로 7억달러였던 일본의 대한투자가 1992년에는 72건 1.5억달러로 일단은 감소되었습니다만, 1993년에는 85건 2.9억달러, 1994년에는 재정경제원의 속보에 의하면 건수로 216건, 금액으로 4.4억달러가 되는 등, 다시 대폭 증가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일한양국의 관민이 일체가 된 투자촉진 노력의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해외투자 중에서, 작년 일본의 신문에 크게 보도된 것으로서 한국기업에 의한 일본기업 매수가 있습니다. 강재가공기업의 매수등과 같은 일본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형태는 앞으로도 증가되어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한국기업의 일본에서의 거점의 설립, 기술센터의 설치 등과 함께 스스로 일본시장에 진출해서 개척함으로써 대일수출의 증가에도 이어지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산업기술협력 분야에서는, 1992년의 「일한무역불균형 시정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에 관한 합의를 바탕으로 양국에 설립된 산업기술협력재단의 활동에 대해서도 여기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양재단은 발족된지 2년여가 경과되었습니다만, 주로 한국중소기업의 산업기술향상의 기반이 될 산업기술인력 육성사업으로서, 각 차원의 관리자나 기술자·연구자의 일본에서의 연수나 경영층에 대한 세미나를 실시하고 또한, 중소기업의 경영력 강화에 협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생산성향상 프로젝트나 공장진단사업을 실시해 왔습니다. 나아가, 민간기업에 있어서의 기술이전을 상업베이스로 실시하기 위해서 일한 양재단이 공동으로 「일한 테크노마트」라고 하는 기술전본시를 재작년과 작년에 서울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들 사업의 성과는 비교적 단기간으로 실현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일한 양재단의 착실한 노력에 기대하고자 합니다.

4. 아시아경제의 발전

세계경제 속에서 유일하게 고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아시아는 21세기에는 유럽

· 북미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경제권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IMF의 예측에 의하면 '94년의 세계경제의 실질GDP성장율은 3.1%, '95년은 3.6%로 세계경제의 호경기가 더욱 상향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에 관해서는 실질GDP성장율은 '94년이 8.0%, '95년이 7.3%로 세계평균을 대폭 상회하는 높은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시아는 '95년에도 세계의 성장의 중심으로서 세계경제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수출주도적인 고성장에 이어서 아시아역내 각국의 자립적 경제발전에 의한 국민소득의 상승으로 아시아역내의 소비시장의 급격한 확대가 계속되고 있으며, 무역과 투자도 순조롭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무역과 투자의 좋은 순환이 아시아의 고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아시아역내 상호간의 무역과 투자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그 결과로서 역내경제의 상호의존관계도 심화됨과 아울러 점차 자립화의 방향으로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시아경제의 자립화경향은 고성장이 계속되는 가운데서 앞으로 더욱 더 현저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아시아경제의 급성장에 대해 일부 경제학자나 연구기관 등에서는 금후의 성장에 관한 불안요소의 지적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각국에서의 임금상승과 인플레이션의 진전, 외자의존경제의 취약성, 에너지부족, 환경파괴, 인프라(사회기반)의 부족, 인재부족 등이 성장의 저해요인으로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국,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 NIES 각국의 경제도 성숙기에 들어가고 있으며, 일본의 성장이 '70년대에 감속된 것처럼 일정한 성장의 둔화라는 것도 생각해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작년 11월에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APEC에서 역내무역의 자유화에 관한 최종적인 달성목표를 2020년으로 하는 내용의 공동선언, 소위 보골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올해 11월에는 APEC 각료회의와 비공식정상회의가 大阪에서 개최됩니다만, 올해 회의에서는 작년의 인도네시아회의에서의 목표실현을 위한 구체적 행동지침과 역내경제개발협력에 관해서 의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APEC의 목표는, 역내의 경제적 활력을 유지·발전시키는 일이며 그ダイナ미즘을 역외로 확대하여 그것을 통해서 세계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일한 양국간의 경제발전에 있어서는 기술, 자본이 일본으로부터 한국으로 향하는 형태의 경제협력관계가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한국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일한 양국은 아시아에 있어서의 선진국으로서 시장을 개방함과 아울러 그 자본과 기술을 아시아의 도상국으로 이전해 나감으로써 아시아의 발전을 짊어지는

나라로서 APEC 각국의 기대에 보답하게 됩니다.

아시아역내의 중소기업육성, 부품산업의 육성, 나아가서 인재개발, 사회기반의 정비등에 대한 노력이 앞으로 더욱 더 중요해 집니다. APEC의 멤버국가들 사이에는 그 경제발전단계·규모 등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멤버국가의 1인당 소득의 격차는 EU에서는 5대 1인데 비하여 APEC에서는 80대 1입니다. 앞으로 인도차이나 각국이 APEC에 가입하게 되면 멤버간의 소득격차는 100대 1로 될 것입니다. 발전단계가 늦어진 국가들에 대한 선진국의 협력은 불가결합니다. 중소기업문제나 인재육성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선진국인 일한양국이 자기 자신의 경제발전의 경험을 충분히 살려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작년의 미·북한합의 이후, 북한과의 교류의 단서가 보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아시아의 발전을 위해 동아시아의 안정이 불가결합니다. 여기서도 민간차원의 협력이 앞으로의 관계개선을 위해 크게 기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때, 일한양국의 기업이 공동으로 원조에 참여해 나감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작년부터 올해에 걸쳐서 제 자신이 일본의 경단련 및선의 일원으로서 미국·캐나다·싱가폴·태국·월남 등 국가를 방문하여 많은 정부관계자나 민간기업의 정상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통감한 것은 21세기의 국제사회에 대한 공헌에 대한 민간경제계의 역할의 중요성이었습니다. 민간과 정부가 적절한 역할분담을 생각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간기업이 갖는 경험이나 기술을 원조에 살려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는 민간활력을 살린 안전에 대한 공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시아의 선진국인 일한 양국은, 우선 양국의 규제완화, 시장개방으로 아시아에 대한 수출시장을 제공하여, 사회기반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대한 공동참여, 공동사업의 전개나 직접투자에 의한 생산시프트, 비즈니스·네트워크의 구축 등 글로벌하고 다양한 협력관계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양국간의 기업의 협력을 생각할 때의 기본은 양국기업이 대등한 파트너로서 양자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있는 분야를 적절히 조합시켜서 공동으로 사업·프로젝트를 생각하고 추진해 나가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한 양국의 기업은 이미 충분히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진을 위한 파트너」로서 일한 양국의 기업이 손에 손을 잡고 아시아의 발전에 기여해 나가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一 般 經 過 報 告

社團法人 韓日經濟協會

專務理事 申 德 鉉

작년 4月, 日本 福岡市에서 開催되었던 第26回 韓日・日韓民間合同經濟委員會會議에서 合意된 事項의 實施現況 및 관련된 兩國間의 協力事業에 대해 報告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個 專門委員會의 活動狀況에 대해서는 잠시후, 각 專門委員會의 韓國側 委員長으로 부터 報告가 있을 豫定입니다.

첫째, 「訪日輸出促進團」의 派遣과 受容에 대한 事項입니다.

이는 韓日・日韓 兩市場協議會가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3回의 促進團이 日本에 派遣되어 106個社 147名이 東京, 大阪을 비롯한 日本各地 延 8個 都市에서 商談會를 개최하여 兩國의 貿易增進에 寄與하였습니다.

둘째, 「對日投資誘致團」의 派遣件입니다.

작년 5月 民間經濟界와 政府關係者 合同으로 投資誘致團 107名이 訪日하여 東京, 大阪, 北九州등 3個 都市에서 日本企業 關係者 479名을 대상으로 對韓投資誘致를 위한 說明會 및 相談會가 개최되어 日本企業의 對韓投資 進出에 대한 認識을 높였으며, 또한 同年 10月에는 日本의 「對韓投資環境調查團」이 來韓하여 韓國政府 및 地方自治團體의 投資誘致說明會, 韓日兩國 經濟人들의 懇談會 및 창원 公단견학등을 실시하여 韓國의 投資環境을 직접 確認할 수 있는 계기를 가짐으로써 投資對象國으로서의 韓國에 대한 認識을 깊게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産業技術協力財團 事業에 대해서 입니다.

'92年 1月 서울에서 開催되었던 韓日兩國頂上會談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韓日貿易不均衡 是正등을 위한 具體的 實踐計劃」이 합의됨에 따라 설립된 韓日・日韓産業技術協力財團은 '93년에 이어 '94年에도 産業技術人力育成, 韓國中小企業의 生産性向上에 대한 제언 및 협력, 産業技術交流協力, 研究技術人力派遣, 세미나등의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兩國 財團은 위의 사업을 통해 兩國間 産業技術交流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國內 中小企業의 國際競爭力 強化는

물론 對日貿易不均衡 改善에 크게 기여하는등 國內 財團事業이 정착화되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産業技術交流促進團」에 대해서 입니다.

재작년부터 産業技術協力財團事業으로 實施해오고 있는 本 事業은 작년 6월에 中小企業經營者, 部品開發擔當者 40명으로 구성된 日 訪問團이 訪日, 工場見學・懇談會・展示會視察등의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産業技術에 관한 세미나를 開催하여 兩國의 産業技術交流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섯째는 「韓日中堅經營人交流事業」입니다.

第6回째인 작년 11월에 韓國側으로부터 (株)大農 朴泳逸 會長을 團長으로 19個社 19명이 日本을 訪問하여 經濟界人士禮訪, 産業施設見學, 韓日中堅經營人交流懇談會, 日本 TOP經營人招請 講演會등을 실시하였고, 이를 계기로 兩國 中堅經營人間의 相互理解와 交流増進에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여섯째는 「靑少年交流事業」에 대해서 입니다.

작년 여름방학을 이용, 7月 하순 韓國大學生 40명이 日本을 訪問하였으며, 日本에서는 8月 하순 27명이 訪韓하였습니다. 大學生들은 7박 8일간의 체재기간중 民박, 兩國 學生交流, 工場見學, 고적견학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상대국의 産業・社會・文化를 직접 접하고 相互理解와 우호를 돈독히 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일곱째, 1991年度부터 시작해오고 있는 「韓國中小企業 自動化研修」는 작년에 80명을 실시하여 總 230명이 되었습니다. 또한 韓國企業으로부터 日本企業을 대상으로하는 技術移轉 希望案件이 작년도에는 14件이 있었으며, 그 가운데 2件에 대해서 당사자간 協議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日本에서의 地方의 國際化, 그리고, 韓國의 地方自治制의 본격실시에 따라 兩國 地方都市間 交流가 深化되어 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韓日직항편개설, 産業協力, 輸入促進등을 위한 日本地方都市의 日 訪問團이 總 9回 139명이 訪韓하였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地方都市間 交流에 많은 成果를 거두었습니다.

이상으로 經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韓日・日韓貿易委員會 報告

韓日貿易委員會
委員長 金殷湘

韓日・日韓貿易委員會의 活動狀況에 대해 報告드리겠습니다.

第21回 韓日・日韓貿易委員會는 昨年 6月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東京에서 兩側으로부터 42名の 委員이 參席한 가운데 開催되었습니다. 同 會議에서 討議된 主要內容에 대해 報告드리겠습니다.

첫째, 日本側에서 「日本の 纖維製品 輸入 推移와 展望 및 그 環境」에 대한 發表를 통해, 日本의 纖維製品 輸入 展望 및 日本 政府의 MFA 發動基準에 대한 意見을 提示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韓國側은 纖維製品の 急速한 輸入擴大로 因해 日本의 纖維産業이 어려움에 直面하고 있다는 것은 理解하지만 MFA에 의한 輸入制限에는 慎重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輸入制限이 不可避한 境遇에도 事전에 韓國側과 緊密한 協議가 必要하다는 점을 指摘하였으며 이에 대해 率直한 意見交換이 있었습니다.

둘째, 韓國側에서 「韓國 農林水産物の 對日輸出 現況 및 輸出擴大 方案」에 대한 發表를 통해 農林水産物の 對日輸出擴大를 沮害하고 있는 障礙要因을 指摘하였으며, 兩側은 이를 改善하기 위해 兩國 政府에 通報하는등 繼續하여 協力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日本側에서 「日本の 家庭雜貨市場의 動向과 開發輸入」에 대하여 具體的인 事例를 中心으로 發表하였는데, 이는 韓國業體가 日本市場의 變化를 理解하는데 有益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 會議부터는 商品分野別로 議題를 採擇하여 討議하였는데, 이것은 兩側 모두에게 意義있는 것으로 評價되었습니다.

以上 簡單히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韓日・日韓機械工業委員會 報告

韓日機械工業委員會
委員長 景 周 鉉

韓日・日韓機械工業委員會의 經過報告를 말씀드리겠습니다.

去年에 開催된 第20回 韓日・日韓機械工業委員會 合同會議는 1994年 6月 8日(水)부터 10日(金)까지 3日間 日本側에서는 弘津 秀雄(Hirotsu Hideo) 委員長을 비롯한 32名, 韓國側에서는 景周鉉 委員長을 비롯한 24名이 參加하여 日本國 橫浜(Yokohama)에서 開催되었습니다.

第20回 合同會議에서는 兩側 事務局의 協議에 따라서 從來의 會議進行方式을 發展的으로 變更하여, 企業經營에 關한 特別講演 및 環境問題機械産業의 役割等에 關하여 Panel Discussion 方式으로 進行되었습니다.

우선, 첫째날에는 日本側에서는 (株)三菱(Mitsubishi)綜合研究所의 團野廣一(단노 히로가즈) 專務取締役으로부터 「東ASIA의 經濟成長과 機械工業의 經營課題」에 關한 特別講演이 있었습니다. 이 講演에서 世界의 成長中心地로서의 東ASIA에 對한 評價와 向後展望에 對한 說明이 있었으며, 다음으로 東ASIA에서의 韓國의 位置와 問題點 및 日本經濟의 長期不況과 円高下에 있어서 企業의 構造調整(Restructuring) 努力의 狀況 說明에 이어, 美國의 General Electric社 및 歐洲의 ASEA Brown Boveri社의 構造調整 事例의 說明이 있었습니다.

두번째 날은 日本側에서는 (財)國際環境技術移轉研究센터의 野田眞男(노다 마사오) 總務企劃部長을 講士로 한 「日本에 있어서의 環境對策 變遷」 韓國側에서는 三星經濟研究所의 朴鍾植 博士를 講士로 한 「産業環境 變化와 機械産業의 役割」이라는 主題가 發表되었으며, 各主題別로 兩國 Panelist 各2名の 意見發表 및 質疑應答이 進行되었습니다.

日本側 主題發表에서는 日本의 環境對策, 特히 産業公害對策의 變遷에 關하여, 日本 四日市(유키카이찌)地域의 事例를 中心으로 大氣汚染對策, 水質汚染防止對策 및 廢棄物對策에 對하여 說明이 있었습니다. 이에 企業의 環境投資에 對한 日本政府의 各種 支援對策, 四日市(유키카이찌) 公害對策의 敎訓 및 環境技術에 關한 日

本の 狀況 等 Panelist의 活潑한 意見發表 및 質疑應答이 進行되었습니다.

韓國側 主題發表는 環境變化 豫測과 對處方案摸索을 위한 産業環境의 主要變化 및 이것이 産業界에 미치는 影響에 對한 說明과, 이에따른 機械産業의 對應方向 및 役割에 關한 說明이 있었습니다. Panelist들의 意見으로서는 産業構造의 變化 속에서 機械工業의 課題, 技術 取得方法, 韓·日間の 協力關係의 內容과 發展方向, 베어링業界에서 본 製品의 高附加價值化 및 韓·日 協力方案에 對한 意見等, 活潑한 質疑應答이 있었습니다.

會議 終了後 (株)三菱(Mitsubishi)重工業의 「미쓰비씨 미나토미라이 技術館(Mitsubishi Minatomirai Industrial Museum)」을 見學하며 매우 意味있는 時間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昨年の 合同會議는 韓日 兩國 機械工業界에 매우 有益한 結果가 있었다고 생각하며, 同會議에 參席하여 주신 兩國委員 여러분들께 이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感謝를 드리면서 以上으로 第20回 韓日機械工業委員會 合同會議 經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傾聽해 주셔서 感謝합니다.

韓日・日韓中堅中小企業委員會 報告

韓日中堅中小企業委員會
委員長 高明哲

韓日・日韓中堅中小企業委員會의 1994年度 活動狀況 및 今年 3月 東京에서 開催된 第13回 韓日・日韓中堅中小企業委員會 合同會議의 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먼저 韓日・日韓中堅中小企業委員會의 1994年度 活動狀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昨年 本 會議에서 報告드렸던 바와 같이 兩國 中小企業間의 새로운 提携, 交流가 摸索되고 있는 가운데 1994年 第12回 會議부터 業種別 團體間 交流를 主要議題로 다뤄 兩國의 鑄物, 麵類(乾麵) 2個團體가 參加하여 資料 및 情報交換, 相互訪問等を 具體적으로 推進할 것을 合意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지난해 9月 韓國鑄物工業協同組合의 協助로 日本鑄物工業會 一行이 訪韓하여 鑄物工團을 視察하였으며 兩國業界間의 有機적인 協力方案에 對해서도 協議를 하였습니다.

또한 麵類(乾麵) 業種은 兩國 組合間의 發刊誌 交換 등 情報交換을 통한 相互利害 增進을 圖謀하여 向後 폭넓은 交流를 위한 基盤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今年 3月 16日(木) 東京에서 開催된 第13回 會議의 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韓國은 高明哲 委員長을 비롯한 11名, 日本은 니시키오리 아키라(錦織 璋) 委員長 代行을 비롯한 19名이 參席하여 兩側 委員長의 人事, 委員紹介에 이어 經過報告, 議題發表, 自由討議 및 業種別 團體間 交流協議를 推進하였습니다. 協議議題로서 日本側은 「事例로 본 日韓協力事業의 着眼点」 韓國側은 「韓・日 業種別 團體間 交流에 對하여」를 發表하였습니다.

이중에서 日本側은 韓國 中小企業이 안고 있는 問題点 및 이의 解決을 위한 韓國企業 및 業界團體에 對한 要望을 紹介하였으며, 韓國側은 業種別 組合으로부터 調査된 資料를 바탕으로 兩國 業種別 團體間 交流의 現況을 發表하였으며 同交流의 範圍擴大 및 內實化를 위한 兩國 關聯機關間의 繼續적인 協力を 要請하였습니다.

다.

이어 自由討議 時間에는 韓・日 兩國의 議題發表에 의거 兩國 中小企業間의 交流活性化의 沮害要因 및 해결책에 對한 意見交換이 있었으며 또 業界의 交流增進의 一環으로 提議된 兩國 地方自治團體間의 交流促進에 對해서도 論議가 있었습니다.

한편 兩國의 魚肉煉製品과 레미콘 2業種의 業種間의 交流는 情報交換 및 展示會 參加, 技術交流 等に 對한 合意가 이루어져 向後 이를 積極 推進키로 하였습니다.

會議 2日째인 17日(金)에는 韓國代表團이 東京都 江東區 關東 스미세 生콘크리트(株)의 최신에 生콘크리트工場을 見學하였습니다.

以上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傾聽해 주셔서 感謝합니다.

韓日・日韓産業一般委員會 報告

韓日産業一般委員會
委員長 趙 錫 來

韓日・日韓産業一般委員會의 活動狀況에 대하여 報告드리겠습니다.

本委員會는 1990年의 發足以後 「産業技術協力の 方向」, 「環境問題의 現狀과 産業界의 對應」 등 韓日經濟關係를 둘러싼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調査研究를 實施, 계몽활동을 통하여 韓日兩國의 相互理解에 노력해 왔습니다.

이들 일련의 事業인 3번째 테마로써 현재 「韓國에 있어서 投資環境要因으로서의 勞使關係」에 대하여 調査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오늘 本會議에서는 이 문제에 관하여 報告를 드리고자 합니다.

잘알고 계신바와 같이 韓國에 대한 日本으로부터의 直接投資는 1988年을 정점으로 그後 계속 감소되어 왔으며, '93年, '94년에 약간의 회복 조짐이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낮은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韓國에서는 官民이 合同으로 投資環境의 整備와 外資誘致活動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더욱 海外投資家의 관심과 매력을 환기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安定的인 勞使關係를 確立할 수 있는가?」가 最大의 課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작년 여름에 韓日兩國은 각각 「勞使關係 TASK FORCE」를 조직하고, 同年 9월에 서울에서 第1回 合同會議과 11월에 第2回 合同會議를 開催하였으며, 금년 2월에 東京에서 第3回 合同會議를 開催한바 있습니다.

同會議에서는 (1)兩國에 있어서 勞使關係의 變遷과 現狀, (2)日本의 勞使交渉・勞使關係의 分爭調整를, (3)在韓日係企業의 勞使關係現況, (4)韓國의 勞動關聯法改正의 動向등에 대한 발표를 실시하고, 兩國의 勞使關係의 역사와 현상, 제도와 그 조직등 기본적인 사항에 관하여 STUDY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韓日各國의 企業에 있어서 勞使와의 懇談會도 실시하여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청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會議과 병행하여 韓國側에서는 在韓日係企業을 대상으로한 앙케이트

조사와 인터뷰조사, 그리고 在日母企業의 인터뷰조사를 실시하고, 日本側에서는 韓國企業의 勞使를 대상으로한 앙케이트조사를 실시하여 유익한 資料情報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兩側은 今年 7月 以後에 次期 合同會議를 개최하고, 本問題에 대하여 改善策등 구체적 懸案事項에 관하여 검토한 후, 最終報告書를 작성 第4回 韓日・日韓産業一般委員會 合同會議에서 報告하는 것으로 韓日兩國은 協議한바 있습니다. 이와같은 兩國共同의 調査研究活動에 의해 投資環境要因의 하나인 勞使問題에 대하여 적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유익한 改善策이 제기될 것으로 期待됩니다.

마지막으로 本事業의 推進과 관련하여 協力을 아끼지 않으신 日本側의 渡里 杉一郎(와따리 스기이찌로) 委員長께 진심으로 感謝를 드립니다.

이상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第 1 分 科 會

(貿 易 關 聯 分 野)

〈共同議長〉

韓國側：朴 世 英 韓周通産(株) 會長

日本側：藤村 正哉 三菱マテリアル(株) 取締役 副會長

〈第 1 分科會 主題〉

(貿易關聯分野)

WTO體制下에서의 韓·日兩國의 協力方案

(株) 雙 龍

代表理事 安宗原

존경하는 하구라노부야회장님, 박용화 회장님, 韓國과 日本의 선배, 동료경제인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저는 오늘 第27回 韓·日民間合同經濟委員會 제주도회의에서 여러분께 직접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韓國과 日本의 존경받는 경제인 여러분이 이끌어 오신 본 合同經濟委員會는 지난 사반세기에 걸쳐 양국의 經濟協力を 증진하는데 많은 공헌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韓·日 양국의 상호 경제협력의 주춧돌을 쌓아오신 위원회 여러분들께 眞心으로 경의를 표하며, 민간차원의 이 모임이 양국의 경제협력 체제를 더욱 공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今年初 자유무역질서를 지향하는 WTO체제가 본격 출범한 후 세계경제는 국가간의 경쟁과 상호협력이 동시에 요구되고 상호연계성이 더욱 커지게 되는 시대를 맞게되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세계 무역질서는 미국과 EU등 서방제국의 주도로 재편되어 向後 10년간 5,000억불이 넘는 순소득 증가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증가소득의 상당부분을 미국과 EU가 차지하고, 일부분만이 韓國과 日本을 포함한 극동 아시아지역의 몫으로 돌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WTO체제는 세계무역질서를 재편하고 교역을 촉진시키는 본래의 기능과 함께 시장개방을 통해 경쟁력이 없는 국가의 산업은 기반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으며 WTO체제 추진의 주체세력이었던 경제대국들이 오히려 WTO정신에 위배되는 방향인 BLOC주의 및 보호무역주의로 가고 있어 지구경제는 지금 세계주의와 지역주의가 혼재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막대한 무역적자 및 재정적자,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경제권의 위기 지속으로 인한 최근의 달러가치 하락과 엔화의 초강세로 세계경제는 격

변을 맞고 있으며 갈수록 심해지는 지역이기주의로 무한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동북아 경제권의 핵심인 한·일양국의 교역관계를 돌이켜 보면 韓國측으로서는 지난 '65년 1억불의 무역적자를 기록한 이후 '80년의 28억불, '90년의 59억불을 기록하고 '94년에는 119억불로 매년 확대되어 왔으며 이러한 무역적자는 설비와 부품류의 대일 수입이 주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와같은 무역적자는 구조적인 관계로 단기간내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양국이 무역적자를 발전적으로 해소해 나가기 위한 지속적 노력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안목으로 세계 주요지역에서 韓·日間에 긴밀한 이해와 협력에 바탕을 둔 공동진출 방안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大戰 이후 세계경제는 미국과 유럽의 주도로 이끌어져 왔으나 '60년대 이래 일본의 경제발전을 필두로 한 동아시아의 급속한 성장으로 동아시아는 세계경제에 있어서 북미연합, 유럽연합과 함께 3대 세계경제권의 한축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1세기초에 세계경제를 리드할 동아시아 경제권에 대해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아시아 경제성장의 견인역할은 '60년대에는 日本이, '70년대에는 NICS가 '80년대 후반에는 ASEAN이 그리고 '90년대에는 중국이 맡고 있으며 '80년대 이후 아시아의 경제성장속도는 선진국의 4-5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90년대 들어서 日本은 버블경제의 와해와 엔고의 지속으로 전후 최저인 1-2% 이하의 저성장을 보였으나 대부분의 아시아 경제권은 힘찬 활력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日本의 아시아에 대한 무역흑자는 '88년 193억불을 시현하였으며 '90년대들어 매년 전년비 20-30%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었고 '94년에는 600억달러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日本의 대아시아 흑자 증가세는 ASEAN 및 NICS에 대한 흑자 급증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韓國의 경우 對ASEAN 수출입 추이는 지난 '91년 수출 71억불, 수입 61억달러를 기록한 이래 '94년 수출입 실적은 수출이 114억불, 수입 77억불로 전년대비 각각 22%, 7%가 증가하여, 한국의 무역흑자는 '91년 10억불, '94년은 37억불로 매년 확대되고 있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韓國과 日本이 아시아지역에서 무역흑자를 보이고 있지만 동지역을 이제는 판매시장으로만 보지말고, 韓國과 日本이 함께 진출하여 동지역의 번영에 기여함으로써 共存共榮하는 것이 그 어느때 보다도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

서 본인은 한·일 양국의 보다 긴밀한 경제협력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나아가 아시아를 중심으로한 세계의 繁榮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韓·日 양국은 시장개척을 추진함에 있어 전략품목별로 공동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日本은 우수한 기술력, 자금력 및 정보력등의 장점을, 韓國은 긴요한 산업기술과 숙련된 기능인력등의 역량으로 기술개발 분담을 통해 한·일양국이 공동으로 전략적 시장개척에 매진한다면 상호보완적 입장에서 공동의 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공동협력 분야는 아시아 전지역에서 이루어져야 되나 특히 21세기의 DARK HORSE로 부상하는 중국과 제2의 중국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인도시장에 대한 공동진출입니다. 중국은 현재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향후 10년내 아시아 최대 경제대국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도 또한 라오총리의 적극적인 경제개혁 정책으로 외자의 유치에 적극적이며 사회간접자본시설만 어느정도 구축되면 제2의 중국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10년간 수백억불의 PROJECT가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 양대 시장에서 韓國과 日本이 각국이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동시장을 공략한다면 양국 모두의 국익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째, 러시아의 자원개발입니다. 시베리아 가스와의 공동개발을 통해 경쟁력 있는 에너지 공급원을 확보하는 것은 양국은 물론 동아시아지역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업용 원자재와 원료를 배경으로 동지역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이로써 동아시아지역의 富의 증진 또한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韓·日 양국은 자국시장보다는 아시아 전체를 韓·日 양국의 공동시장 및 공동생산의 발판으로 삼아,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나아가서 아시아 전지역의 경제발전을 주도해 나감으로써 아시아 전지역의 복지증진과 생활수준의 향상에도 기여하는 중심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같은 韓·日經濟 공동노력의 성공적인 결실을 바탕으로하여 아직도 저성장에 머물고 있는 아프리카등 미개발지역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우리 韓·日 양국이 다같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세계경제면에서 보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위치는 세계경제활동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인구의 40%, 세계육지면적의 43%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지역은 대외무역의 급격한 확대로 세계전체에서 차지하는 무역비중이

급증하였고 참고로 '93년 APEC국가가 세계교역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3%에 달하였으며 이들 지역에 대한 한국, 일본, 미국등을 중심으로한 직접투자 급증도 경제성장에 크게 이바지한 바 있습니다.

아시아 경제는 구미諸國과는 달리 상이한 경제발전 단계와 다양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으며 세계 여타지역과는 다른 독특한 분업구조를 형성하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이며, 이를 둘러싼 세계는 WTO체제 출범으로 범세계적인 자유무역 질서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경제인 여러분 !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성장지역인 아시아, 태평양지역은 향후 역내 무역 비중이 계속 커질 것이며 상호 투자도 대폭 증가함으로써 역내 상호의존성이 심화될 것이며 세계경제성장의 견인차로서 21세기 세계경제를 계속 주도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때 한·일 양국의 긴밀한 협조체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韓·日 兩國의 國交가 정상화된 지 이미 30年이 흘렀습니다. 30年이면 사람의 성장과정으로도 장년의 나이에 들어 성숙한 경지에 들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상호 보완적인 측면에서 많은 經濟的 성과를 가져왔고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공동발전의 여지는 더욱 확대되리라고 생각하며 한·일양국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공조체제를 구축함에 있어서의 장애물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과감하게 제거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의 세계체제는 단일국가보다는 복수의 지역공동체 중심으로 형성되고 국제질서는 이런 지역적 국가집단들의 다원적 세력균형에 의해 운영되어 나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WTO체제의 출범을 의미있게 하기 위해서는 전체와 부분, 부분과 부분과의 조화가 중요하듯이 세계각국의 자국이기주의를 줄이고 범세계적 공존공영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물방물이 돌을 뚫듯이 국가간의 異見의 벽은 낮아질 것이고 자라나는 우리의 다음세대는 더 나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韓國과 日本은 역사적, 사회문화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漢字를 공유하고 불교와 유교의 영향을 공통으로 경험한 양국의 문화적 유사성은 향후 경제면에서는 물론 나아가 동아시아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한·일 기업간에 연합군을 편성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상호협력 추진에 크나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양국의 협력은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걸맞게 창조성과 호혜협력정신에 바탕을 두어 혁신적이고, 새로운 양식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국경제인 여러분의 역할이 WTO체제하에서 무한경쟁시대의 21세기를 맞아 아시아·태평양시대의 주역으로 더욱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말로 양국이 상호협력하여 共同繁榮의 길로 다같이 가도록 힘을 한곳에 모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WTO體制下の 日韓 貿易の 未來像

住友商事株式會社

會長 伊藤 正

(머리말)

방금 소개받은 스미토모 商事의 伊藤입니다. 오늘은 「WTO체제하의 일한 무역의 미래상」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본 경제도 작년부터 어설프게나마 겨우 회복세를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 대지진으로 阪神지역의 경제는 크나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만, 일본경제 전체로서는 이번 재난의 피해를 극복하고 앞으로도 계속 회복세를 견지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경기 순환적 의미의 회복이며, 거품 경제의 후유증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또 그간 누적되어 온 제반의 구조적 문제들도 일본 경제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작년에 8.4%의 고도성장을 기록했으며, 올해도 상승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일본경제도 규제완화등의 일련의 구조개혁을 성공시켜 조속히 강인한 체질을 되찾아야 하리라 봅니다.

올해는 일한 국교정상화 30주년이라는 기념할 만한 해입니다. 때마침 우루과이라운드의 성공으로 올해 1월 1일에는 WTO가 발족하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50년만에 처음으로 세계무역기관 (World Trade Organization) 이라는 국제기관이 탄생한 것입니다. 일한 양국의 경제·무역면에서도 올해가 새로운 발전의 원년이 되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I. 일한 무역 관계에 대한 회고

1. 일한 무역의 확대

여기서 1965년의 국교 정상화 이후의 양국 무역 관계를 간단히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양국의 무역은 1965년에는 수출입 합하여 2.1억 달러였던 것이 1975년에는 37억 달러, 1985년에는 121억 달러, 작년 1994년에는 389억 달러로 계속 힘차

게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 간의 년 평균 신장율은 19.8%로서, 같은 기간의 세계 무역의 년 평균 신장율 11.5%와 비교해 볼 때 두드러지게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간 일본의 세계 무역량은 년 평균 13.6%씩 늘어났습니다만 일한간의 무역 신장율은 이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2. 일한 무역의 상품 구조의 변화

양국 무역의 상품 구조 면에서 보면 일본의 대한 수입은 1965년에는 식료·원료·연료가 전체의 88%, 그 밖의 것, 즉 이를 “제품”이라고 총칭해도 될 것 같습니다만, 이것이 12%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1993년에는 식료·원료·연료가 20%, “제품”이 80%로 그 비율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제품 수입 비율인 80%도 대 NIES 평균인 74%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내역을 보면 1965년에는 섬유제품이 전체의 56%를 차지했었는데 '93년에는 21%로 저하되고, 대신 '65년에는 전 제품 수입의 1%도 채 되지 못했던 금속품이 '93년에는 22%로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기계·기기류 중에서 신장세가 현저한 것은 전기 기계입니다. 이 전기 기계가 크게 신장된 데는 반도체등 전자부품의 신장이 크게 공헌하였습니다. 반도체등 전자부품의 對수출은, 예를들면 1983년부터 '93년까지의 10년 사이에 71백만 달러였던 것이 9.6억 달러로 13.5배로 늘어났습니다.

반도체등 전자부품의 경우 일본의 對韓 수출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1983년부터 '93년까지 10년 동안에 3.2억 달러에서 20.5억 달러로 6.5배로 신장했습니다. 근년 들어서 일한 양국 산업간의 수평분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만 반도체등 전자부품의 무역이 그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對韓 수출상품의 구성을 보면, 30년 전에는 기계·기기가 3할, 기타제품이 약 6할, 식료·원료·연료가 약 1할이었는데 지금은 기계·기기류가 6할, 기타제품이 약 4할, 나머지 수%가 식료·원료·연료입니다.

그 밖에 주목할 분야로서 철강분야를 들 수 있습니다. 1965년부터 '88년까지 23년간 철강은 일본으로부터 한국으로의 수출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89년부터 반대로 일본측의 수입이 더 많은 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양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품목을 서로 공급하는 국제분업이 나타납니다.

3. 일한 무역 불균형

이처럼 양국간의 무역확대는 양국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그 간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의 恒常的 對韓 수출 초과라고 하는 무역불균형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국은 1960년대 중반 이후 '70년대 말경까지 고도성장을 계속하였습니다. 그 간 한국의 對日 수출은 크게 늘어났습니다만, 한편 對日 수입도 현저하게 증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對日 무역적자는 1965년에 1.2억 달러였던 것이 1970년에는 5.7억 달러, 1980년에는 28.2억 달러로 확대되었습니다.

1980년대 들어서 한국은 賃金仰騰, 노사관계에 대한 불안등으로 말미암아 수출 경쟁력이 한때 저하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때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도 한계점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정부는 1980년에 「수입선다변화품목」 제도를 마련하여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1982년에는 對日 적자가 20억 달러를 밑돌 정도로 감소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83년 경부터 한국경제가 회복되면서 對日 수입도 늘어나, 對日 적자는 다시 중대되었으며, 1986년에는 5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87년에는 「對日 불균형개선 5개년계획」이 책정되어 실행되었습니다만 이것도 충분한 효과를 올리지 못하였습니다.

'86년부터 '89년까지 한국의 세계무역수지는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對日 적자는 약간의 삭감으로 그쳤으며 일한간의 무역마찰은 계속되었습니다.

II. 한국의 신통상정책

1. 新對日政策

1993년 7월에 한국정부는 새로운 對日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는 「종래의 정치적 논리와 감정에 치우쳐 있던 對日정책을 청산하고, 경제논리에 입각하여 상호 신뢰관계를 굳히고 동반자관계를 구축한다」는 기본인식에 입각한 것이었으며, 다음과 같은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 * 앞으로는 한국으로부터의 수출을 촉진하으로써 불균형 시정을 도모한다.
- * 일본 시장은 공급자와 인간적 신뢰성을 장기적 관점에서 중요시하는 시장임을 인식한다.
- * 對日 적자의 주된 요인인 기계·전자부품의 수입을 삭감하기 위하여 국산품개발을 촉진한다.
- * 일본의 對韓 투자를 촉진하고 인재교류등을 추진한다.
- * 일본의 지방 경제권·중소기업과의 협력관계 다각화를 도모한다.

이들은 대단히 전향적인 자세이며, 향후의 일한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중요한 시책이 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동년 10월에는 일본 상사에 대해서도 현지법인 설립을 인가하고, 수출로 한정된 것이기는 합니다만 무역업을 허가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당사를 포함한 몇몇 회사가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한국제품의 수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설립 후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커다란 실적을 올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의 수출확대를 통하여 한국의 경제발전에 일조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2. 「세계화」 정책

또 작년말에는 金 泳三 대통령께서 「세계화」 정책을 제창하셨습니다.

이 「세계화」 정책은 「WTO체제의 발족으로 상징되는 세계경제의 개방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세계의 일류국가로 살아 나갈 수 있는 한국을 건설하여 다음세대에 넘겨줄 것을 목적으로」한 것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1996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OECD가입을 향하여, 선진국으로의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나 해외생산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해외직접투자액은 1993년에는 19억 달러였는데 '94년에는 35억 달러로 급증하였습니다. 한국의 산업은 착실히 「세계화」를 향하여 걷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재벌기업에 의한 일본기업인수, 사무용빌딩의 매입, 한국기업의 일본 현지법인을 동경 증권거래시장에서 상장시킨다는 계획등 한국기업의 일본진출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해외로부터 일본으로의 직접투자 중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일한관계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전개과정을 살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양국관계를 앞으로 가일층 긴밀화하기 위하여 풀어야 할 과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III. 보다 긴밀한 일한관계를 향한 과제

1. 무역불균형 문제에 대한 대응

우선 방금 말씀드린 무역불균형 문제에 대한 대응입니다.

일본은 對美관계에서도 대폭적인 무역흑자를 기록하여 美國으로부터 신랄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日美간의 무역도 과거를 돌이켜 보면 제2차 세계대전 후 1965년까지는 일관하여 일본측의 수입초과가 계속되었습니다. 이는 일본의 고도성장기에 미국으로부터의 자본재수입이 증대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성한 수입수요는 일본경제가 호황일 때 특히 증대되었습니다.이럴 때 정부는 무역적자를 더 이상 확대시키지 않기 위하여 긴축정책을 취하여 경기를 감속시켰습니다. 고도 성장기의 일본은 이와 같은 국제수지의 天井에 몇 번씩이나 부딪쳤습니다.

이로 인해 그 당시 일본정부의 통상정책은 당연히 수출 장려책이었습니다.

그러던 일본경제는 '60년대 중반 이후 간신히 구조적 무역적자체질을 벗어났고, 통상정책도 '70년 경부터는 그 때까지의 수출진흥일변도 정책으로부터 수출입 양면을 고려한 종합적인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官民합동의 수출회의가 무역회의라고 불리게 된 것도 1970년부터 입니다. 무역회의는 요즘도 매년 개최됩니다만, 최근에는 오직 어떻게 하면 수입을 늘릴 수 있을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수출공헌기업이 표창을 받았습시다만, 최근에는 수입공헌기업이 표창을 받습니다. 스미토모상사도 '93년 가을의 무역회의에서 수입공헌기업으로서 표창받았고 저도 細川총리로부터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일본도 열심히 수입확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수확대를 위한 거시적 정책과 함께 대담한 규제완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보수적 비즈니스 관행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자들도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일본이 고도 성장기에 구조적 對美 무역적자를 계속했듯이 한 나라의 경제가 급성장할 때는 자본재를 중심으로 수입수요도 고수준을 지속하며, 자본재 공급국과의 사이에서는 적자가 계속된다는 측면이 있다는 점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서 저는 무역불균형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즉, 무역은 수입하는 측에게도 수출하는 측에게도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게임이며,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에게 많이 팔았다거나 적게 팔았다거나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양 당사자가 모두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You win we lose, 혹은 We win you lose 식으로 어느 한쪽이 이득을 보고 다른 쪽이 손해를 보는 관계가 아니라 양쪽이 모두 이익을 얻는 이른바 Win win 게임이라는 사고방식입니다. 제로섬 사고가 아니라 플러스섬 사고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일한 양국간의 왕복무역액은 지금까지 힘차게 확대되어 왔습니다. 이를 전향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불균형은 적은 편이 바람직합니다만, 그것도 수출입합계와 대비하면서 축소해 갈 수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요컨대 확대균형이라는 사고방식이며, 1993년 7월에 한국정부가 발표한 「新對日 정책」도 기본적으로는 이와 같은 입장에 기초를 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각도에서 일한무역을 바라보면 수출입 총액중의 무역불균형금액의 비율은 '65년~'69년은 평균 66%, '70년~'74년은 38%, '75년~'79년은 29%, '80년~'84년은 26%, '85년~'89년은 22%로 꾸준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물론 '91년 이후에는 이것이 다시금 확대되어 20%대 후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므로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확대균형으로 이를 이룩해야 합니다.

2. 규제완화 · 상거래관습의 개선

다음으로 무역불균형문제는 양국 베이스에서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세계베이스로도 논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총 국제무역수지는 약간의 적자인 반면, 일본의 흑자정도는 압도적으로 커서 크게 균형이 깨진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인하여 일본에는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거시적으로 보면 일본은 소득에서 소비를 뺀 저축에 걸맞는 국내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이를 시정하기 위한 거시적정책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한편 미시적면에서도 수입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다면 그것도 흑자가 줄지 않는 요인이 됩니다. 일본의 경우는 정부규제가 지나치게 많다는 것과 상거래 관행이 폐쇄적이라는 점입니다.

일본에는 막대한 内外 가격차가 존재합니다. 특히 규제로 보호받고 있는 산업에서 생산되는 재·서비스의 가격은 국제수준에 비하여 비쌉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가장 효율이 높은 산업에서조차 경쟁력을 상실하고 맙니다. 규제완화의 필요성은 지금까지도 계속 지적되어 왔습니다만 이제는 시급을 다투는 촉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3월말에 규제완화 5개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앞

으로도 우리 재계는 정부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가일층의 규제완화를 요망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폐쇄적인 비즈니스 관행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규제완화가 진행되면 시장원리가 작동되고 폐쇄적인 상거래관행도 줄어들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동시에 독점금지법의 운용강화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의 규제완화 5개년계획에서 독점금지법의 적용제외를 '98년중에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함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도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계십니다. 일본이 어물어물하고 있으면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 가며 모범을 보여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3. 직접투자

세번째 과제는 직접투자의 확대입니다.

일본의 對韓 직접투자는 작년에 제조업에서 약간 증가하였으나 아직은 낮은 수준이며, '87년을 피크로 최근에는 다소 저하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이 일본기업의 보다 매력적인 투자시장이 될 수 있도록 가일층의 규제완화·자유화를 바라고자 합니다.

한편 한국의 對日투자도 작년에는 약간 늘어났습니다만 저조한 추세입니다. 일본의 투자환경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높은 지가, 높은 인건비등 쉽게 해결되지 않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지나친 각종 업계규제나 행정지도도 투자저해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對日 직접투자 촉진방안에 관해서는 저도 經團聯의 국제산업협력 위원장으로서 '92년에 이 관련 업무를 수행, 「의견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일본정부도 이 의견서에서 건의된 사항을 상당부분 받아들여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기업 자체가 더욱 오픈되어야 한다는 등의 점도 포함하여 對內 투자촉진을 위한 개선의 여지는 아직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4. 글로벌한 산업협력

네번째 과제로는 일한양국산업에 의한 글로벌한 비즈니스 전개에의 추진을 들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일한양국기업은 서로 국제수평분업의 진전등을 통하여 상호 보완관계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양국시장에서의 쌍무적관계 강화에 그칠 것이 아니라 경제의 글로벌리제이션(globalization)이 진전되는 가운데 양국기업은 널리 세계시장에 조인트웍(joint work)을 추진해야 합니다.

일한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제3국에서의 대형 프로젝트에 공동참여함으로써 양국 산업의 기술·인재·자금을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또한 위험분산도 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아시아에서는 발전설비, 통신시설, 화학플랜트, 제철플랜트등 폭 넓은 분야에서 일한 기업이 공동으로 수주하거나 혹은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유럽에서 한국과 일본의 반도체 메이커가 전략적제휴를 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한 양국이 서로의 강점을 발휘하여 협력하고, 세계 각지에서 공동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양국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중요할 뿐 아니라 양국관계를 더욱 긴밀화하는 데도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IV. WTO체제하의 일한협력

마지막으로 21세기를 향하여 일한관계가 세계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어떠한 협력·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저의 사견을 말씀드리고 저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냉전의 종식으로 동서간의 벽이 무너지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남북간이 가까워져 세계는 하나의 커다란 시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세계의 자유무역체제를 유지·강화시킬 국제기관으로서 WTO가 창설되었음은 대단히 뜻깊은 일입니다.

세계의 자유무역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늘 누군가가 강력한 리더쉽을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의 리더쉽에 힘입은 바 컸습니다만 미국도 최근 들어서는 가끔씩 내향적인 자세로 기울 때가 있습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직후의 압도적인 경제적 우위상태로부터 그 상대적 지위가 서서히 저하되었으며, 쌍둥이 적자라고 하는 구조적문제로부터도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에게만 향후의 세계무역체제의 리더역을 맡기기 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의 미국은 WTO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리즘보다도 스스로의 영향력을 미치기 쉬운 지역주의(regionalism)쪽으로 힘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처럼 보입니다.

미국이나 EU가 지역주의지향성을 강화하고 세계가 블록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시아·태평양을 가장 개방된 시장으로 유지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런 뜻에서 APEC도 WTO와의 정합성을 증시킨 오픈 리저널리즘을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제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한국은 '96년에는 OECD에 가입할 것입니다. 아시아에 선진국이 둘 생긴다는 것은 실로 마음 든든한 일입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자유무역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려온 나라이며,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과 한국이 WTO체제하의 자유무역 추진에 리더쉽을 발휘하고, 양국이 손에 손잡고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협력하면서, 세계의 자유무역체제를 수호해 나갑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일한관계가 구축되어 갈 것으로 믿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분과회〉
(무역관련분야)

코 멘 트

金永俊 副社長 : LG전자의 부사장을 맡고있는 김영준입니다. 住友상사의 伊藤 회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한일 양국은 동반자적인 관계를 유지,발전시켜서 미래지향적인 무역확대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에대해서 저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무역수지 불균형은 그 자체로서는 정당한, 상호 호혜적인 무역활동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양국의 교역증대를 저해하는 여러가지 요인을 제거시켜야만 한일 무역은 계속해서 발전되어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일본의 규제완화나 폐쇄적인 거래관행의 시정도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규제완화는 일본산업을 활성화시켜서 매수진작에도 효과가 있는 일석이조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정부에도 규제완화정책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본정부의 시책은 아직까지 기대수준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본 산업계 자체도 규제완화의 구체적인 각론부분에서는 서로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획기적인 규제완화정책이 실효성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적하신대로 한국정부도 규제완화를 통해서 일본기업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통산산업부의 박재윤 장관께서 광주·천안 외국공관에 입주하는 외국기업에 대해서 임대료를 면제하는등 수입선다변화 정책에서 그 예외를 인정하고 또 세계 및 금융지원등 한국정부의 외국기업 투자여건 조성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는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교육된 고급인력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이는 임금면에서의 불리함을 상쇄할 수 있기때문에 엔고로 고전하는 기업의 투자대상으로서 한국이 유망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투자여건에 대해서 외국기업의 불만은 여러가지 있겠지만 행정상의 문제점도 상당히 지적되고 있는 바 앞에서 통산산업부 장관께서 발표하셨듯이 이런부분은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계의 모든국가들이 외국자본의 유치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또한 유독 일본 정부만은 이에 대해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본 정부측에서도 이부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외자유치를 주요정책목표로 하여 경상무역수지의 개선에도 주력하겠다는 일본정부의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WTO체제에 대해서도 한일 양국의 협조문제에 대해 몇가지 코멘트를 하고자 합니다. WTO체제하에서 아시아지역의 이익을 대변하여 한일 양국이 협력하는 방법은 몇가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특히 중국을 WTO체제에 조속히 가입하는데 한일 양국이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WTO협정하에서는 주요 관심사인 반덤핑 및 원산지 규제의 문제점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부분의 개선에도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대처한다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90년대 후반에 WTO가 본격적으로 가능하게 되면 서비스나 무역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시장개방 압력이 강화될 것이며 이에대한 공동대응도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NAFTA발의와 함께 대폭적으로 관세를 인하한 멕시코의 최근의 경제위기에서 나타난 바와같이 개도국들의 실력이상으로 시장개방조치를 강요하는 것은 세계경제의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일 양국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통상협상부분에서 아시아의 대변자 역할을 함께 수행해내어 아시아역내 시장의 발전적 도모를 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池内 康彦 理事長：방금 소개받은 第一勸業銀行 종합연구소 池内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한일 경제관계가 상당히 많은 변화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제적인 침체에 비해서 한국의 양적인 측면에서의 발전, 질적인 측면에서의 변혁은 그야말로 눈부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 한국측 내빈여러분들의 인사나

강연을 통해서 이와같이 통감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지금 안정원 대표이사님의 말씀이 앞으로의 한일 관계에 대해서 장래의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신데 대해 상당한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아시아지역을 판매시장으로서만 보는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진출하여 동지역의 번영에 공헌함으로써 공존공영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아시아 전체를 한일 양국의 공동시장 및 공동생산의 전진기지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은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한일무역불균형 문제, 첨단기술의 이전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때때로 문제점으로서 지적되어 왔습니다만 이와같은 점에 대해서 저희들 역시 동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로서의 불균형 문제 그리고 첨단기술 이전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한국의 수출은 계속 호조를 보여왔으며 일본에 대해서 가장 수출이 많았던 89년의 수준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당시에는 일본의 수출기업의 개발수입이 호조를 보여 수출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유통기업이 일본시장의 제품을 기획하여 해외기업에서 생산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올해의 증가는 한국기업의 기술력향상을 반영하고, 수직적인 역할분담에서 대등한 입장에서 소위 수평분업적인 역할분담으로 변화를 하고 있어 이것이 한국의 대일 수출증가를 가져다 준 것으로 생각합니다.

伊藤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기아와 마쯔다의 4000cc승용차 공동개발, 대우와 일본전장의 합작부품공장 설립, 삼성전자와 NEC의 유럽에서의 반도체 협력생산등 대등한 입장에서 대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정원 대표이사님의 제안이 실현되는 호재가 점차 나타나고 있는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기업에 대해서 특히 적용되는 것으로써 서포트 인더스트리라는 저변산업의 육성강화의 필요성은 한국에서도 아직 큰 과제가 되지 않고 있지않나 생각됩니다.

중견중소기업간의 기술이전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저변산업의 육성에 힘써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세계화 내지는 아시아에서의 한일 협력관계 강화에도 필수적인 조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재작년 11월에 보고서가 양국정상들에게 제출되었습니다. 한일 경제포럼에서도 발표되었습니다만 한국에서도 현재 여러가지 육성정책이 취해지고 있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양국의 산업협력재단의 각종사업이나 모델 중소기업 육성사업등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바람직한 것으로서는 중소기업들 사이에서

개개 기업간 차원에서 기술이전 성공사례가 착실히 증가되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한국중소기업들의 사장들이 스스로 사내에서 리더쉽을 발휘하여 생산현장을 지도해 주시고 기술이전 또한 성공시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둘째로 저변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한국에서의 금융정비가 시급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금리가 상당히 높고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좀처럼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기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신용보증협회와 같은 제도의 정비, 국내금리를 국제수준에 적합한 수준으로까지 낮춘다거나 하는 해결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축을 해서 자금이 은행업의 금융기관에 모여 금리중계기능이 잘 적용될 수 있는 금융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벤처캐피탈의 육성도 유효한 한가지 수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으로서는 伊藤회장님의 말씀에도 있듯이 내수를 집착하여 수입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정부로서는 엔화강세대책, 내수대책으로서 추경예산의 조기편성 그리고 3월말에 발표된 규제완화의 5년이라는 기한을 3년 앞당기는 대책, 그리고 금융완화를 일관하여 결정하는 보도가 되고있습니다. 이는 침체되어 있는 일본의 국내경기 활성화를 꾀하는 것으로써 한국측으로부터의 수입증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가 호전되면 기업의 마인드도 향상되어 투자활동도 활발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일의 제휴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일본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한국에서도 엔고일 경우에는 수출에 플러스가 된다고 하는 즉 원화약세가 메리트가 된다는 생각만 있습니다만 만약 엔고가 되면 엔화표시 수출액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화는 역시 안정화시켜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일본도 장래에 엔화의 안정화를 위해서 더 한층 시장을 개발하고 금융시장도 더욱 활성화시켜 엔을 보유하고 조달하는데 편리하도록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동시에 한일 양국에서 힘을 합쳐 미국의 재정적자, 무역적자를 축소시켜 달러약세를 저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楊秀吉 院長：저는 지금은 교통문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과거 20여년간 국제경제문제를 연구해 왔고 또한 계속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한국측 토론자로 나와 있긴 합니다만 사실 한국측 대표의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경제학자의

대표로서 한일 양국의 기업인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선 이자리에 학계에서 참석한 사람은 저 한사람인 것 같아서 한가지 건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학계와 기업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본 합동경제위원회의 발전에 좋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제, 오늘 양국의 기업인 여러분들이 세계경제와 한일간의 협력과제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공감하는 부분보다는 경제학자로서 기업인들과 조금 견해가 다른 몇가지를 말씀드려서 토론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업인들의 세상에 대한 시각에서 두어가지 놀라운 점을 봤는데, 그 하나는 한일 양국의 주위여건 다시 말해서 세계경제여건을 보는 시각이 경제학자들보다 훨씬 어두운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 양국이 단결을 하자는 그런 결론이 나오고 있는데 결론은 받아들입니다만 그 몇가지 전제에 있어서 조금 검토가 되어야겠다는 느낌입니다.

예컨대 WTO는 유럽과 미국인들의 자국을 위한 기구이며 이는 한국과 일본에게는 그다지 이득을 주지 않는 하나의 위협요인이라는 발언이 여러차례 되었고, WTO체제의 출범과 더불어 시작된 무한경쟁을 하나의 위협으로 보는 시각 또한 느꼈습니다. 그리고 유럽과 북미 NAFTA란 형태의 지역주의도 아시아를 겨냥한 하나의 음모라는 시각도 없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신문에서 읽고 있는 엔고를 세계경제의 혼란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씀하시고 계신데, 저는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WTO체제라는 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누구보다도 한국과 일본과 같이 국제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들을 위해서 이루어진 하나의 새로운 세계경제질서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WTO체제가 출범하게 된 그 배경에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있었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70-80년대의 GATT체제를 중심으로 한 세계 자유무역 질서가 자꾸 악화되는 바람에 그것을 방지하고자 이루어진 새로운 협상과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70-80년대에 보호무역주의가 만연해 가면서 그 보호무역주의의 대상이 바로 일본과 한국을 위시한 동아시아 국가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WTO체제가 출범됨으로 해서 다자간 무역질서가 다시 강화되고 자유무역주의적으로의 방향을 정립함에 따라서 그 수혜자는 그 누구보다도 일본과 한국을 위시한 무역주도의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나라들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EU 유럽의 지역주의, 그리고 NAFTA에 관해서 상당한 우려를 하시는 듯 합니다만, EU 자체는 유럽의 정치적인 통합을 향한 하나의 중간단계이며 자기방어적인 요인이 있긴 하나 그것이 원천적으로 보호무역을 하자는 취지라기 보다는 동아시아에 대해서 자기네들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니까 다시한번 경제를 부활시켜 보고자 하는 차원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NAFTA 또한 세계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미국의 글로벌리즘을 향한 첫단계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NAFTA라는 것은 유럽의 공동시장과는 다르게 자기들간의 무역장벽을 없애는 것이지 대외무역, 제3국에 대한 무역장벽을 공동으로 조정하는 그러한 측면은 없다는 점을 지적해 드립니다. 이러한 지역주의는 앞으로 어떻게 발전되느냐에 따라서 일본과 한국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WTO체제라는 다자주의가 확립됨으로 해서 보호무역주의보다는 대외개방적으로 발전될 여건이 일단은 조성되었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WTO체제와 지역주의를 동시에 볼 때, 지역주의 자체는 한국이나 일본과 같이 대외지향적인 국가한테는 모든것이 위협요인이 생겼다기보다는 시장이 넓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WTO체제나 또 지역주의 체제에도 몇가지 루프홀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반덤핑 제도입니다. 유럽의 반덤핑 제도는 가장 보호무역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이번 우루과이라운드에서 개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에 따라서 일본이나 한국이 손해를 보느냐 안보느냐하는 것이 결정되게 되어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 그리고 환경과 연계해서 무역정책을 운영하자, 노동문제와 연계시켜서 무역정책을 운영하자, 또 공정경쟁을 위한 각국의 산업경제정책 자체에 관한 새로운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계가 어떻게 핸들링하느냐에 따라서 보호무역주의적으로도 될 수 있고 자유무역주의적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의 기회와 노력에 따라 좌우된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역경쟁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계신 것을 느꼈는데 오히려 기업인들의 입장에서 무한경쟁이란 환영받을 대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한경쟁이란 기업활동의 자유가 한층 넓어지는 것으로 경쟁력이 있는 기업한테는 그 이상의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기업은 다른나라의 기업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이라는 차원에서 더욱 그렇게 생각됩니

다.

엔고는 하나의 일시적인 현상 혹은 혼란이라기 보다는 일본의 막대하고 만성적인 무역흑자라는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방안으로써 스스로 발생한 하나의 현상으로, 그동안 일본의 막대한 만성적인 적자가 세계경제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우리모두가 아는 바와 같습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저로서는 엔고현상이야말로 세계경제에 가장 바람직한 뉴스의 하나라는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년간 세계경제는 80년대 후반에 플라자 합의에 따른 엔고 이후의 몇년과 마찬가지로의 상당히 폭넓은 구조조정과정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구조조정과정을 보면 지난번에 일본도 결국은 그 과정에서 승자로서 입장을 선용했고 한국도 그 당시 그 여건을 잘 활용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양국이 지금의 엔고를 결과적으로 볼 때에는 다자국의 이익에 일치가 되게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일협력의 방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엔고에 대한 대응이 현안과제이며 지금 오늘의 이 회의에서는 이에 대해서 한층 심층적인 토론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일협력방향을 제 나름대로 정리해보면 세계경제의 질서정립에 공동기여를 해야하고 앞으로 WTO차원에서 환경문제, 노동문제, 경제정책문제, 직접투자문제 등등 여러가지 새로운 질서가 논의되고 정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엔고에 따른 일본의 구조과정에서 일본기업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한일간 협력, 이를 전략적 제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야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는 특히 伊藤회장님의 주제발표내용에 전폭적으로 동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이것이 저의 후반주제가 되겠습니다만 한일간의 교역확대는 한국의 일본에대한 수출구조가 고도화, 수평분업화 되도록 한다는 긍정적인 말씀들을 해주셨고, 또한 한결같이 한일무역불균형을 걱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무역불균형이라는 것은 정부측에서는 걱정할 만한 문제이지만 기업인들이 크게 걱정할 만한 문제는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무역불균형이란 각 기업이 행하는 무역의 통계를 모두 합하여 매크로적으로 나타나는 보이지 않는 현상입니다. 제가 보기에 한일 무역불균형은 한일간의 문제가 아닌, 일본이 전세계적인 무역흑자를 가지고 있는데 대한 세계경제차원의 문제로 한일무역불균형은 그것이 하나의 반영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업인들 차원에서는 무역불균형이란 것이 한국의 기업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한 행위의 결과이고, 또 일본의 기업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한 행위의 결과이므로 경제적인

관점에서의 문제는 없다고 여겨집니다. 단지 제 느낌으로는 이것은 결국 정치적인 문제이고 심리적인 문제이며 국민정서적인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금번 합동위원회 회의에서 한일무역불균형의 현황과 그 문제성, 왜 문제이며 무역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점을 규명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무역불균형 자체를 억지로 줄이려다 보면 각국 기업인의 이익에 반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이는 양국 경제에 안 좋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이 무역불균형의 문제성을 정확히 규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불균형 문제와 관련시켜서 언급되는 것이 일본정부의 규제, 일본의 기업관행, 또 한국의 규제와 기업관행인데 이러한 문제는 조금 더 심층적으로 자세히 토론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소위 비관세무역, 이것은 예컨대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흑자를 운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균형 문제와 일본의 비관세무역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며, 일본의 비관세 장벽 문제에 대한 좀 더 구조적이고 정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어느 일본학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일본의 여러가지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인해서 일본의 소비자들이 일본 GNP의 3-4%정도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의 고발이 아닌가 합니다.

伊藤회장님께서 여러가지 일본의 문제를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일본측의 노력에 대해서도 고무된 바가 있습니다.

끝으로 伊藤회장님께서 APEC과 관련하여 개방적인 지역주의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의 인식을 촉구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APEC 경제정상들이 모여 합의한 사항중에서 2010년 혹은 2020년까지 아태지역의 자유무역을 실현한다는 합의를 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계약으로서 사인한 것은 아님니다만 정상들이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어쨌든 지켜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2010년까지 무역을 자유화하고 후진국들은 2020년까지 무역을 자유화한다고 보는데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15년 혹은 25년 정도의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본과 한국간의 자유무역을 실시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만, 저는 경제학자로서 될 수 있는대로 이것을 조속히 실현했으면 하고 바랍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여러가지 비경제적인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일기업인들께서 특히 주축이 되셔서 한일간의 자유무역 실현을 위해서 여러가지 장애요인을 빨리 발굴하여 그것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양국간에 그리고 아태지역에 그리고 전 세계 차원의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坂井 米男 支店長 : 방금 소개받은 伊藤忠商事의 坂井 입니다. 지금 양선생님의 조금 더 낙관적으로 봐야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엔화강세등으로 인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 낙관적인 시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이 최근 얼마나 많이 변했는가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93년 7월에 한국에 와서 아직 1년 8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금융실명제를 비롯해서 날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놀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백화점이 일본과는 반대로 계속해서 호황을 보이고 있고 신설되거나 하고 있습니다. 건물이라든지 도로, 지하철 각지에서 이와같은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100층빌딩의 건축계획이 세가지나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주요사업에서 거액의 설비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설비투자는 이제 막 저조한 상태에서 벗어난 상태인데 반해 한국의 투자계획은 전년비 50% 상승이라는 상당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최근 한국의 30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해외회사의 법인수가 2월말 국내에서의 법인수를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2년동안에 30대 재벌이 가지고 있는 법인이 130개나 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증가세가 얼마나 두드러진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민간은 물론 정부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OECD 가입이라든지 규제 완화 시장개방 혹은 여러가지 대외정책등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계십니다. 저도 한국에 진출하고 있는 일본기업들을 위해서 과거보다는 덜하지만 노사관계라든지 세금문제등이 있어, 이와같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한국 정부측의 주도로 여러가지 대응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측 주도로 간담회를 열어서 그에 대한 대응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측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하자고 하는 것은 2-3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와같은 점들을 한국이 신중히 검토하고 단지 제스처어만 그런것이 아니라 내용도 역시 상당히 구체적이고 개선이 기대되고 있는 내용으로써 한국이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신중히 대처하고 있는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 경제활동의 현황과 일본의 현황 즉 경제지표를 보더라도 비교가 되지 않

을 정도이거나 혹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대로 되고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와같은 차이를 최근 들어서 부쩍 많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그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온지 2년이 채 되지 않았습디만, 안사장님의 기조연설에서의 전략적인 상품공동개발이라는 제안에 대해 저희들도 앞으로 정보통신 관계, 여러가지 측면에서의 새로운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접속기술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기술, 그 니즈를 찾아서 연구하며 소프트와 하드의 공동개발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에 있어서는 인도와 러시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떠한 형태로든지 협력을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저 역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저의 사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WTO 체제가 출범되었습니다만 원래 한일 기업은 여러가지 분야에서 경쟁관계에 있습니다. WTO가 보호없는 무한경쟁시대를 여는 것이라고 한다면 한일간의 경쟁은 더 한층 치열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들어서 한편에서는 민간기업의 협력도 눈에 띄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몇차례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열교환기 시장이라든지 혹은 반도체에 관련된 투자 또는 첨단기술을 사용한 공학기계 투자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는 섬유염색 기술이라든지 환경관련 기술이전, 혹은 산업폐기물의 재활용 등 환경관련 기술도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으로부터의 OD에 있어서 한일컨소시엄은 현재로서는 당연한 것으로 정착되었습니다. OD에도 한국의 기술을 사용하여 협력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池内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4월1일에 일본과 한국의 중소기업이 조인트한 중소기업에 관련하여 저도 참석하고 있는데, 양국모두 경영자는 30-40대 사람들로써 준비하는데도 1년정도의 시간이 걸렸고 그 동안에 많은 문제점들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잘 해결되어 4월1일부터 사업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같이 젊은 사람들이 협력하여 만든 회사가 반드시 성공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환경이 역시 그와같은 필요성을 만들어 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다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며 인접국인 일본으로부터 그와같은 기술을 도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또한 리스크쉐어를 한다거나 하는 형태의 컨소시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의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엔화강세로 인해서 해외로 거점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역시 기술을 필요로 하는 해외진출이라면 한국이 가장

유력시되는 지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와같은 점에서 봤을때 지리적으로 가깝고 물류경비가 적다고 하는 메리트를 한국은 가지고 있습니다. 니즈가 있는 곳에서는 이와같은 협력관계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도 최근의 흐름은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는 한국 기업도 진출을 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섬유제품을 들어보면, 베트남이나 중국으로 진출한 한국공장에서 일본이 기획한 상품을 만들어서 일본의 슈퍼에서 파는 경우도 당연히 되고 있습니다. 한일협력에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제 김우중회장님의 연설에도 경쟁과 협력의 조화의 시대라는 말씀이 있었습디만 그와같은 것이 현재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민간기업간의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상호 실리를 얻지 못하면 협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은 의미에서 봤을 때 과거 양국의 기업끼리 서로 쓴 경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언제까지나 남아있으면 민간간의 협력은 좀처럼 진전을 볼 수 없습니다.

시대는 이미 변화되었고 서로 피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때문에 여러가지 이견이 나오겠지만 NO라고 할 때에도 성심성의껏 NO라고 말할 수 있게끔 서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한국업체에 한가지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은 한국제품의 품질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만 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비스의 품질향상에 대해서 한가지 부탁드립니다 싶은 바입니다.

해외의 고객으로부터クレーム이 들어오면 그クレーム을 한 고객을 중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성숙산업이라고 한다면 프로덕트에서 마케팅으로 발상의 전환을 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현재의 설비투자로 생산성은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한국 즉 아시아는 지금 성숙한 경제에 들어서 있고 이만큼 발전할 수 있는 시기가 앞으로 없을 지도 모른다는 말도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설비투자에서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늘어나 언젠가 팔고싶을 때 팔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향상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방진듯한 말씀을 드렸습디만, 한일 협력의 신시대가 반드시 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安宗原 代表理事 : 아침에 몇가지 말씀을 드린 연휴에 일본측으로부터 여러가지 좋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특히 池内이사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은 대단히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자리를 통해서 한일 양국의 협력을 보다 증진시키기 위해서 동아시아에서의 협력부분을 특별하게 강조드리고 싶은 마음에 오늘 이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일본측에서도 말씀이 계셨습지만, 특히 결국은 동아시아에서의 협력부분을 다루기 이전에 현안부분으로 되어있는 한일간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특히 계수로 표현되는 무역부분의 언밸런스 문제에 대해서도 최근 일반부분이 유통부분을 포함한 개발수입이 늘고 있고 한국과의 관련부분도 수평적 분업이 형성되어 대기업간의 무역수지 불균형을 시정하려는 노력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간의 기술이전문제를 확대 발전 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향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좀 더 발전 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신 부분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측에서 중소기업을 보다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론도 제시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한일간의 문제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많은 부분의 자본재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제3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을 위한 부품을 의존하고 있는 관계로 역조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최근에 또한 아시아쪽의 경쟁력 있는 나라로부터 대일본 제품진출이 늘어감에 따라서 지금의 역조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추가해서 항상 이야기하는 일본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에 관련된 문제는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들을 보다 빠른 시일내에 해결 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사반세기동안 마련하면서 해오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한국입장에서는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야 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추진해 감으로 인해서 하루빨리 균형발전을 모색해야 하고 일본측으로서는 무역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중·단기적인 여러가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늘상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WTO체제하에서 특히 동아시아에서 리더역할을 해 주어야 할 일본이기 때문에 국제화를 지향하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현재부터 미국측에서 특히 지적하고 있는 일본의 전통적인 국제화 지향과 맞

지않는 상관습의 문제, 유통구조상의 문제, 또는 계열화의 문제와 같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혜를 합쳐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하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확대발전 속에서 균형발전을 조속히 가속화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동아시아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부분에서 장애가 되는 단기적인 문제들, 특히 비관세 장벽과 같은 부분은 과감히 떨쳐버리고 일본이 공동화 현상을 우려하여 기술이전을 포함한 생산기지 이전을 두려워하는 부분은 지금 동아시아 전체를 하나의 경제블럭으로 봤을때에는 과감히 떨쳐버려야 할 생각이 아닌가 하는 일부의 우려를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나아가야 할 부분에서 특히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협력권을 대강 보면 환태평양 경제권, 동북아시아, 동남아, 화남, 동아시아 경제권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이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북아 경제권은 특히 경제권 형성의 가속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중국과 러시아 일부를 포함하고 한국과 일본이 협력관계에서 특히 상호 보완적인 면이 충분히 있다는 면을 활용해서 균형발전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에너지와 산업자원, 농축산물 부분이 부족하고, 중국등은 자본기술, 경영력의 노하우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서로 경제적인 관계에서 상호보완성을 충분히 교류하고 생산요소 결합형의 경제권 형성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서로 긍정적인 부문에서 공동 개발체 형성을 할 수 있는 자신을 가지고 가속화를 위해서 노력함으로 인해서 세계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마이크로섹터 부분에 근무하고 있어서 오늘같이 이러한 거대한 자리, 매크로섹터를 주로 다루어야 하는 문제가 되면 대단히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세계경제문제 특히 한일 경제의 문제점들을 제시하시고 걱정도 하셨습니다만 저는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위로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계의 경제가, 세계의 역사가 시작된지 거의 2000년이 되고 그러는 가운데 세계의 문명과 문화는 계속 발전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다루는 양국간의 문제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모든 경제문제도 계속 발전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제대로 모아서 가속화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위해서는 더 긍정적인 각도에서, 또는 적극적인 각도에서 작은

문제라도 서로 자유롭게 협의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伊藤 正 會長 : 두가지 점에 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전에 한국측의 주 제발표에도 있었습니다만, GATT 사무국의 GATT합의가 완전히 실시되는 2005년까지 우루과이라운드 합의가 가져다 주는 상품의 무역자유화가 세계의 소득을 연간 약 5천여 달러 증가시킬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GATT 사무국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더라도 이 소득증가는 수입품이 싸짐에 따른 경제적인 플러스 효과이며 또한 무역 상대국에 대한 수출이 증가함으로써 오는 소득증가효과를 GATT 사무국이 개발한 세계모델에 입각해서 추산한 것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 이상의 자세한 기술은 없습니다만 저는 이 숫자자체를 어느정도 신뢰해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액수가 더 커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국가별 소득증가에 대해서도 미국이 1220억 달러, EC가 1640억 달러 일본은 267억 달러, 개도국이 1720억 달러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에 비해서 일본이나 개도국이 왜 이렇게 액수가 적은지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로서는 일본이라든지 한국등은 자유무역에 의해서 상호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WTO체제하에서는 경쟁력이 없는 국가의 산업기반은 악영향을 받게 된다고 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적어도 한국의 경제는 WTO체제에 의한 무역자유화의 진전으로 인해서 일본과 마찬가지로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점은 조금 전에 저는 앞으로 한일 양국은 손에 손을 잡고 올해부터 출범한 WTO체제 속에서 협력해 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WTO 출범이후의 과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7년 이상이나 계속되어 온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드디어 타결된 것입니다만 이것을 제대로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WTO의 분쟁처리 절차라는 것은 대단히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지만 무역분쟁이 발생했을 때 모든 WTO 가입국은 이 분쟁을 적극적으로 발동할 의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점에서 예를 들어 미국은 여전히 통상법 301조를 구사하면서 고압적인 양국 간 협상을 계속 하고자 하고 있으며 분쟁처리를 WTO의 분쟁처리 위원회에서 논

의하여 그것이 미국의 주권을 저해하는 결과가 될 경우에는 미국은 WTO에서 탈퇴할 것을 대통령에게 권고한다고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미국의 자세는 앞으로의 WTO의 전전한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일 양국은 WTO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와같은 미국의 행동을 그때그때 검토해 나아가지 않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국에서는 WTO의 사무차장이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점에 대해서 대단히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WTO체제 하에서 환경이나 노동조건의 문제도 무역거래와 관련시켜서 규정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움직임도 있다고 하셨습니다만, 여기서 생각해야 할 점은 예를 들어서 환경의 오염방지책이 강구되어지지 않은 설비가 만들어 졌을 경우 그러한 제품은 수입을 저해한다든가 죄인들과 같은 노동력을 이용한 제품은 수입하지 않는다는 식의 움직임도 약간은 있고, 그러한 움직임이 점차 확대되게 된다면 그것은 자유무역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개도국 경제의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 같습니다.

환경문제는 인접국이나 지구 전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무역과 관련시켜서 논의하는 것도 어느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이 환경이 다른나라에 큰 해를 미치지 않는 한 각각의 국가산업의 발전단계를 배려한 규정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일은 아시아지역의 대표라는 의미에서도 그러한 점에 대해서 특히 유의해 나아가지 않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또한 노동조건에 대한 것으로써 인권을 무시한 것에 가까운 것들은 물론 강력히 저지해야겠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수입제한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비교우위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한일 양국은 아시아의 국가도 충분히 고려해서 이들 문제점들에 대해서 대응해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永俊 副社長 : 오늘 아침 伊藤회장님과 한국 쌍용의 안사장님께서 양국 경제의 협력체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조금 더 각론에 들어가서 한 두가지만이 자리를 빌어서 제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일 양국경제가 협력해야한다는 이야기는 여러번 함께 공감해 왔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부분에서 어떻게 협력을 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렇게 많이 다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두가지 포인트중의 하나는 제품간의 분업을 좀 더 활성화시켜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칼라TV 산업에 있어서는 일본의 업체들이 와이드비전 즉 수익성이 높고 부가가치가 높은 와이드비전에 대해서 크게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중형급이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업체들의 대일수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이 제품간의 분업을 좀 더 활성화 시킨다면 양국 경제에 보다 유익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두번째는 제품의 공동개발이라든지 공동연구가 지금보다는 좀 더 활성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전자업계에서는 일본업체와 한국업체간의 공동개발이나 공동연구가 조금씩 활성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요새는 저희들이 프레닝인 개념이다 디자인인 개념이다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품을 개발할 당시, 기획할 당시부터 양쪽이 협력해서 제품을 개발한다면 양측에 전부 이익을 가져다주는 그런 제품 개발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사이 한국 업체들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힘이 과거보다는 많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LG전자에서는 일본 알프스와 LCD부분에서 일본에 연구소를 설립해서 공동연구를 한다던가 반도체부분에서 일본업체와 한국업체가 시장적으로 기술적으로 공동연구를 하고 있는 이런 현상은 앞으로 더욱 촉진되어야 할 절로 보고 있고 이것이 한일간의 경제발전이나 무역협력에 커다란 프러스가 되는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池内 康彦 理事長 : 한국이 일본시장의 제품을 파는 현재의 마이크로 차원에서의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두가지 점에 주안점을 두고 싶습니다.

첫번째는 일본의 소비자들의 변화, 두번째는 직접적인 경쟁상대의 동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소비자는 거품경제이후 현재 매우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눈이 매우 엄격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치라는 것을 중시하게 된 것입니다. 위스키를 예로 들자면 조니워커라면 가격은 세계각국과 비교할 수 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의 경우라면 일본의 소비자들은 탔을때 편하고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그중에서 가장 좋은것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예가 한가지 있습니다. 볼보라는 자동차의 경우 환경친화적이라는 점을

일본 소비자들에게 신문 한 페이지 분량의 광고를 통해 호소함으로써 일본 소비자들도 스스로 여러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즉 환경을 파괴하고 안전하지 않은 자동차는 사지 않겠다 그리고 가격측면에 있어서도 세계각국의 가격을 비교해 가면서 경쟁력이 있는 것만 사겠다는 식으로 일본의 소비자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즉 가치를 중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프로덕트인에서 마케트인으로 바뀌었고 다시 커스토머인 즉 소비자를 중시할 필요가 있게 된 것입니다.

또 한가지 경쟁상대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대만은 예를 들어서 PC업체일 경우 일본에 상당히 많은 업체가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PC업체의 3층에 있는 OEM 사무실을 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 상자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절대로 말하면 안된다고 했기때문에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미국과 유럽의 유력 PC 업체들의 상자가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 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세계의 가장 저렴한 곳에서 만들어서 가장 잘 팔리는 곳에 판매하는 글로벌 기업이 이미 경쟁상대인 대만에서 형성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령 현재 일본의 PC시장에 대만의 세력이 우세하다고 하더라도 내일은 또 다시 다른 경쟁자가 등장하고 그 가운데 한국의 여러가지 부품과 같은 것이 들어와서 일본의 PC시장이 한국의 PC로 채워진다고 해도 저희들로서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저희 소비자로서는 질 좋고 저렴하고 오랫동안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일본의 시장은 성장률은 떨어지지만 지금까지 수입에서 차지하고 있던 비중이 낮습니다. 따라서 포텐서 수출상대로서는 상당히 기대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호텔에 칫솔이 비치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것은 환경을 중시한 자세라고 생각하며 매우 훌륭한 일이고 일본도 이점을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호텔에서 판매하고 있는 칫솔의 가격이 매우 싸다는 것도 알 수 가 있었습니다.

한국도 일본도 자원측면에서의 제약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와같은 의미에서 세계에 모범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坂井 米男 支店長 :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APEC에 관한 것입니다. APEC이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APEC 내에서의 규정화를 지나치게 추진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독자적인 관세와 같은 협상을 시작하게 되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고 APEC은 성공하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는 일국 일표주의를 관철시키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한 운영방법을 통해서 현실적으로는 관세를 운운하는 문제를 가지고 마찰을 빚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경제협력을 추진 할 것인가 어떤 분야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안전을 가지고 한일이 협력하여 상호 좋은 쪽으로 의견을 투합해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양선생님께서 순경제적으로는 한일무역불균형은 우려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결과적으로 100억 달러를 넘게되면 그것은 국민 감정상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적으로는 여러가지 일본측의 시장개방 즉 본질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그와같은 감정적인 문제또한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언론, 매스컴에 대해 한가지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한국의 대일무역적자를 주도한 것은 일본의 소비자들이고 특히 伊藤忠가 그중에서 가장 심각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만, 한국측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수입할 수 없다는 것을 언론계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 그것이 국민 감정으로까지 비화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第 2 分 科 會

(產 業 協 力 分 野)

〈共同議長〉

韓國側：趙 錫 來 曉星GROUP 會長

日本側：館 豐 夫 三菱自動車工業(株) 取締役 相談役

〈第 2 分科會 主題〉

(産業協力分野)

轉換期에 선 韓日關係와 새로운 兩國間 技術協力 方案

三星電子(株) 半導體總括
代表理事 副社長 李潤雨

I. 머리말

안녕하십니까?

三星電子 半導體 部門을 맡고있는 李潤雨입니다. 韓日 兩國의 經濟代表團 여러분들을 모시고 연설을 하게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주최측에 깊은 感謝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主題가 「轉換期에 선 韓日關係와 새로운 양국간 技術協力 方案」이기 때문에, 우선 韓日關係가 왜 轉換期에 있는지에 대해 제 나름대로 생각한 바를 말씀드리고, 이어서 그동안 양국이 技術協력을 추진함에 있어 제기되었던 문제점에 대해 설명드린후, 끝으로 21세기를 눈앞에 둔 현시점에서 韓日 兩國間的 새로운 技術協力 方案에 對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II. 國際環境 變化와 轉換期에 선 韓日關係

먼저 현재의 韓日關係가 왜 轉換期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번째로는 새로운 세계 무역질서의 胎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昨年에 115개국의 대표들이 UR협정에 서명함으로써 브레튼 우드 협정이후 그동안 세계 경제질서를 지배해 온 GATT체제가 마침내 세계무역기구(WTO)로 재편됨에 따라 세계경제는 轉換期的 국면에 돌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무역체제에 익숙한 서방선진국들과는 달리, 韓國을 비롯하여 아시아 各國들은 이에 대한 準備가 미흡하여 신규범하에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우려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WTO가 「자유경제체제의 확대 및 BLOC경제의 심화」라는 양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생각할 때 아시아의 선두그룹인 韓國과 日本은 同伴者的 協力關係를 강화하여 域內經濟의 발전을 선도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아시아經濟의 급속한 성장은 兩國間의 새로운 關係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세계 경제성장의 牽引車 역할을 하게 될 아시아 각국들에게는 많은 資本과 技術과 인프라가 필요한 實情으로 韓·日 兩國은 서로 협력하여 아시아의 발전에 기여하여야 하며, 아시아 역내에서의 새로운 분업체제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韓日間의 협력필요성으로 浮刻되고 있는 要素는 최근의 달러가치 하락 및 신엔고로 인한 國際通貨 價値의 再編 현상을 들 수 있습니다. 日本 제조업체들은 이러한 円高克服 타개책의 一環으로 해외 Alliance등 國際化 推進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韓國도 금년 6월의 지방자치 선거이후 지방의 국제화가 큰 ISSUE化 되어 있어 日本과의 産業協力에 보다 큰 관심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兩國의 구조 조정기를 맞이하여 韓日間 공동협력 관계는 더욱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III. 技術移轉의 必要성과 問題點

앞에서 말씀드린 轉換期的 時代變化에 발맞춰 韓日 兩國의 보다 바람직한 經濟·産業·技術協力 關係의 樹立을 위해서, 과거 兩國間 기술협력 추진에 있어 다소 문제가 되었던 몇가지를 간단히 언급코자 합니다.

1965年 兩國間 國交正常화가 이루어진 以來, 韓國側 무역적자규모는 昨年까지 949억불로서 '94년 한 해만도 118억불에 이르고 있으며 今年度 예상무역적자를 포함하면 총 累積赤字規模는 무려 1,000억불을 상회할 것입니다.

이는 단적으로 말한다면 韓國側의 기술력부족과 기반산업의 열세에서 기인된 결과입니다. 韓國이 세계 13위의 교역국으로 성장한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는 韓國의 對日 무역적자는 특히 부품, 설비등 기술이 요구되는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어 대일무역적자의 감소를 위해서는 韓國企業들의 기술개발노력과 함께 日本 企業으로부터의 과감한 기술이전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韓國政府의 최근 통계에 의하면 과거 30년간 日本으로부터의 기술도입 건수는 약 3,800건으로서 每年 100건 이상씩 기술도입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기술도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韓國企業들이 日本의 技術移轉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은 日本의 技術移轉 방식에 대한 것으로, 技術移轉이 동반자적 입장에서 이루어 지지 않음으로써 技術移轉의 질적인 면에 다소 소홀함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즉 하나의 技術이 도입되어서 성공적으로 제품생산에 응용되고 또한 그 기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HARDWARE적인 것 뿐만아니라 SOFTWARE적인 技術移轉이 필요하며 技術移轉 後에도 전문엔지니어의 기술교육, 요소기술, 가공기술 또는 개선기술까지 연속적으로 이뤄져야만 기술이전이 제대로 이행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兩國間 기술협력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한 第3國에 대한 직접투자는 투자대상국에 기술을 이전하여 그나라 인력을 활용, 상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技術移轉 수단입니다만 직접투자에 의한 技術移轉은 직접투자를 실행하는 해당업체의 技術移轉 범위나 그 기술의 중장기적 활용 및 투자의지에 크게 좌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과거 '70年代에는 日本의 對韓 투자가 垂直的 分業형태인 단순한 임가공 형태여서 기술수준을 根本的으로 Upgrade 시켜주는 데는 다소 문제가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그간 韓國의 기술발전 수준을 감안할 때 앞으로는 첨단 고부가가치 분야에서도 상호보완적 협력이 가능할 것이고 특히 최근의 新門高 및 저희 金泳三大統領의 세계화추진에 따른 제반 투자여건의 개선은 兩國間의 기존 투자패턴을 바꿔볼 수 있는 호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IV. 兩國間 技術協力 方案

向後 韓日兩國間の 경제협력관계는 「協力과 競爭을 통한 同伴者的 關係」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지리적으로 가깝고 言語疏通이 비교적 용이하며 풍부한 고급인력등 양질의 산업INFRA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兩國이 서로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양국 기업들에게 互惠의인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보다 現實的인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에서 다음과 같이 몇가지 의견을 제시코저 합니다.

먼저 兩國企業間の 수평분업체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日本企業들의 對韓 투자확대를 요망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향후 상당기간 동안은 엔고가 지속될 것으로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日本企業들은 동남아 및 중국등 低人件費 장점이 있는 지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지속되는 엔고에는 보다 고부가가치 산업의 해외 진출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半導體, 電子 및 機械類等과 같은 고급기술이 요구되는 업종은 우수한 엔지니어의 확보가 용이하고 관련 주변산업 여건이나 인프라등이 발달된 한국이 중국이나 동남아에 비해 훨씬 유리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韓日間 技術移轉 건수가 3,800건에 이른다는 것을 볼 때 그 내용을 떠나서도 日本의 技術支援이 韓國産業 성장에 큰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최근 國際環境을 볼 때 서방 선진국들이 경제의 BLOC化를 형성하면서 域內間 기술 및 貿易交流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동북아시아에서는 강력한 경제권역구축이 미약한 실정으로 향후 이를 위한 韓日 兩國間 협력관계의 전략적 필요성은 점차 강하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韓日兩國間の 協力을 강화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技術協力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垂直的 技術協力보다는 고급기술이 요구되는 설계, 소프트웨어개발 등에서 수평적 분업형태의 兩國企業間 상호 필요한 기술이 있다면 과감히 제공해 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兩國企業들이 필요로 하는 미래첨단기술의 공동개발, 兩國企業間 합작투자 및 공동생산에 협력할 때인 줄로 압니다.

技術交流는 통상 실제로 필요성을 느끼는 당사자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바, 정부차원의 기술이전요구 보다도 현실성이 있는 민간차원의 기술이전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日本政府의 지원하에 추진중인 첨단기술 프로젝트에 韓國企業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실질적인 기술교류확대에 큰 도움이 되리라 사료되므로 향후 이에 대한 보다 폭넓은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韓日兩國은 이미 고부가가치 중심의 산업강화가 급속히 추진되고 있는 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양국간 협력강화를 제안코자 합니다.

첫째, 우리의 미래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멀티미디어 관련 技術分野에서의 협력강화입니다. 이 분야는 소프트웨어 개발분야에 통상 수많은 우수한 인력이 소요되는 바, 兩國의 분담개발 등 방법이 촉구되는 분야입니다.

둘째, 尖端半導體 및 액정패널 분야에서의 協力입니다. 이 분야는 개발·생산을 위한 투자 및 사업 RISK가 크기 때문에 투자 분담의 필요성이 있는 분야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별 표준이 상이하고 시장패쇄성이 강한 디지털 무선통신분야에서도 아시아권역 규격통일 등을 목표로 공동협력하기 좋은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몇가지 예를 들어 兩國間 協力の 방향 및 분야에 대한 저의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V. 맺음말

이제 結論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세계는 技術競爭이 격화되고 기술발전의 가속화 및 복잡화, 융합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근의 급변하는 產業環境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향후 韓・日間 協力方案의 정립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되며,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韓日間 技術協力 方案이 진지하게 논의되고 실행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에서 함及하지 않은 第3國 共同進出 및 資本協力, 兩國間 競爭製品의 差別的 分擔化 등 실로 兩國間 協力關係 摸索은 韓日兩國의 經濟人들이 舊習의 思考와 行態를 과감히 뛰어 넘는다면 얼마든지 擴大 可能하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韓日間 協力關係는 어느 한 국가의 利益보다는 兩國이 21세기 世界 變化에서도 공존공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데 서로 힘이 모아져 결국 한일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저의 미약한 얘기가 向後 韓日兩國間 協力關係에 다소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끝까지 傾聽해 주신데 대해 感謝드립니다.

아시아지역에 있어서의 산업협력의 미래상

- 일본철강업의 산업협력의 사례를 바탕으로 -

新日本製鐵株式會社

副社長 三木 利夫

머리말

방금 소개받은 신일본제철의 미키(三木)입니다.

이번으로 27번째라는 긴 역사와 전통을 갖는 본 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하여, 여러분 앞에서 산업협력에 관해서 주제발표를 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은 저로서는 실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테마는 「아시아지역에 있어서의 산업협력의 미래상」이란 테마입니다.ダイナミック한 경제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아시아에 있어서, 일한양국이 산업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찬스를 발굴함과 아울러, 동지역의 가일층의 번영에 이바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무엇이 필요하느냐라는 시점에서 사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리는데 일본의 철강업이 과거에 실시해 온 산업협력의 구체적인 사례로서 1970년대에 이루어졌던 귀국의 POSCO에 대한 기술협력, 1980년대의 미국 인랜드사와의 합작, 그리고 현재 태국에서 일본의 철강메이커가 POSCO와 협력해서 추진중인 합작사업을 소개드리고 아울러 참고삼아 각국의 철강메이커의 상호이해를 깊이하기 위한 장으로서 극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IISI (International Iron and Steel Institute : 국제철강협회)의 활동에 대해서 피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산업의 동향을 바탕에 두면서 산업협력에 관한 몇가지 제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가 회장에 모이신 여러분의 의논의 단서가 되었으면 아주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급격히 신장하는 아시아의 현상과 장래의 전망

본제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경제규모가 급속히 확대되어가고 있는 아시아지역의 현상과 장래적 전망을, 철강업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94년 현재, 한국·대만·홍콩 등 NIES 각국, 태국·싱가폴·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필리핀 등 ASEAN 각국, 그리고 중국과 일본을 더한 소위 동아시아지역이 조강의 명목상 소비량(見掛소비량 : apparent consumption)은 2억9천만톤에 달하고 있으며, 세계전체의 약 40%를 차지하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조강의 생산량도 동지역에서 2억4천만톤을 계상하고 있으며, 세계전체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첫째로서 1970년부터 1994년까지 약 25년간에 세계전체에서 차지하는 일본철강업의 점유율이 거의 변화되지 않았는데 대해 명목상 소비량·생산량이 모두 한국·대만을 중심으로 하는 NIES, 태국을 비롯한 ASEAN, 그리고 중국의 신장이 극히 현저하다는 것, 둘째로서 일본·한국 이외의 각국은 모두 명목상 소비량이 생산량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력이 크게 부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2000년에는 EU와 미국이 1억톤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임에 대해 중국이 1억7천만톤, NIES와 ASEAN을 합쳐서 1억6천만톤까지 확대되어 세계 제1. 세계 제2의 수요지역이 될 것이 확실히 되고 있습니다.

공급능력에 있어서도 2000년까지 사이에 한국·대만·중국·태국 등에서 잇달아 설비능력 증강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각국의 국산화에 대한 지향성의 표출이며, 설비를 합리화시킴으로써 축소균형의 길을 가려고 하고 있는 구소련·동구·EU 각국과는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감안하면, 아시아에서 이미 해외진출이 현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조립가공산업 뿐만이 아니라, 소재산업에 있어서도 현지생산화의 움직임이 확대될 것이 전망되며, 일본 철강업으로서도 산업협력을 통해서 이바지할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 철강업에 있어서의 산업협력의 역사와 앞으로의 전망

다음에, 일본철강업의 산업협력의 역사를 돌이켜 보고자 합니다.

돌이켜보면 패전으로 괴멸적인 타격을 받은 일본 철강업은, 전후에 미국으로부터 제철기술을 철저히 배운 후 독자적인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5년단위로 생산량을 배증시키면서 세계유수한 철강메이커가 되었습니다.

그후 1960년대부터 '70년대에 걸쳐서 세계각국으로부터 기술협력에 대한 요청

을 받아, 이에 대응해 온 일본 철강업은, 1980년대에는 가전이나 자동차 등 국내 수요산업이 제조거점을 아시아나 미국으로 일부 이전시킨 것에 따라 해외에서의 합작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귀국에 대해서는, 정부 주도적 경제재건책의 일환으로서 POSCO의 제철소 건설에 폐사와 일본강관이 협력한 것이 시작이었으며, 간부 수용이나 실습생 연수를 비롯하여 설비엔지니어링과 조업지도를 실시했는데, '70년대 전반에는 동사를 위한 기술협력이 폐사의 엔지니어링 사업의 대반을 차지하는만큼 비중이 큰 협력을 실시했습니다. 그 후, 생산능력 확대와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한 POSCO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기술수준을 현저하게 향상해 왔으므로 이제는 일본으로부터의 기술협력은 축소 경향에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철강업의 기술수준은 각별히 향상되어 왔지만, 저희가 기술도입을 수용했을 때의 경험을 감안하면 저는 이것을 기초로 자기 스스로 끊임없는 조업 개선이나 연구개발에 노력하는 것이 지속적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뜻으로, POSCO가 RIST (Research Institute of Industrial Science & Technology)를 중심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과 POSTEC (POHANG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에서 우수한 인재의 육성에 노력하고 계시는데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제 한국 철강업은 저희에게 있어서 서로 切磋琢磨하는 좋은 경쟁상대임과 동시에, 질서 있는 시장을 유지·창조하기 위한 대등한 입장의 파트너이므로, 장래적으로는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손을 잡고 제삼국에 대한 산업협력의 길을 모색함을 포함해서 극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 주요 철강메이커가 제철소의 폐쇄·집약을 중심으로 한 재건계획에 착수했는데, 미니밀과의 경쟁의 격화나 채무체질의 악화등으로 인해 충분한 설비합리화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신규설비투자의 지연, 조업의 개선부족이나 연구비의 대폭 삭감으로 의한 기술개발력의 저하로 수요가로부터 요구된 품질수준을 만족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기 때문에, 미국측으로부터 일본의 주요 철강회사에 대해 합작의 요청이 잇달아 왔습니다. 그 때, 일본측이 요청을 수용한 이유는, 첫째로서 일본경제의 성숙화에 따라서 수요산업과 함께 해외로 진출하는 것이 자신의 비즈니스찬스 확대에 연결된다고 판단했다는 것, 둘째로서 일본의 자동차메이커가 북미 진출을 계기로 해서 국내에서 사용했던 고품질 방청강판을 현지에서 조달하고 싶다는 강한 요청이 있었다는 것, 세째로서 기술이전에 그치지 않고 미국의 고용, 경제발전에 기여할 필요성을 新日鐵

로서 의도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폐사는 미국의 인랜드사와 파트너십관계를 체결하여, 기술협력에 의하여 건설비 총계 10억달러, 연간생산 각각 100만톤의 냉연강판 제조회사와 표면처리강판회사를 합작으로 설립했는데, 이것은 일미간의 합작사업으로서는 최대규모의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태국에 관해서는 1980년대 이후, 가전·자동차등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기업의 제조거점 이전이 진행되었으므로 이에 대응하는 형태로 일본 철강업도 하공정설비의 건설에 의한 현지생산화를 실시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의 현저한 경제성장에 의해서 강재수요도 급격히 증대되고 있고 또한 이에 더하여 사회기반정비등 산업협력을 수용하는 태국측의 기반도 급속히 정비되고 있다 등 사정을 배경이 되어, 바로 한달전에 냉연강판공장의 합작사업에 착수할 것이 정식으로 내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태국 최대의 기업그룹인 사이암·시멘트 그룹과 일본의 주요 철강메이커 3사와 POSCO가 공동으로 출자를 해서 공장을 건설하는 프로젝트이며, 일·한·태국 3개국의 기업그룹에 의한 멀티형 산업협력 모델로서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IIISI에 의한 연계와 상호이해의 강화

이러한 국경을 초월한 산업협력은, 협력을 수용하는 측의 경제·산업정책이나 경제발전단계의 차이, 일본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대응 등 니즈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며, 그 형태가 설비협력(하드웨어), 기술이전(소프트웨어), 공동에 의한 합작사업전개 등 다양하지만, 일본 철강업은 세계의 산업사회의 발전을 위해 조금이나마 이바지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자 상호간의 진지한 노력에 의한 부분이 많음은 물론 그 배경에는 IIISI(국제철강협회)에 모이는 각국의 철강업이 평소부터 국제적인 연계와 상호이해에 노력해 왔다는 것도 큰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IIISI는, 세계의 철강업의 발전을 위해 서로 정보나 아이디어를 교환하여, 조사연구를 추진하는 목적으로 1967년에 설립된 국제교류기관이며, 약 50개국 130사에 달하는 철강메이커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7개 상설위원회를 설치해서 철강의 기술·시장개발이 방향성, 수급전망이나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대응 등, 철강업에 공통된 여러가지 과제들을 검토함과 동시에 매년 10월의 연차총회나 4월의 특별이사회에는 각국의 철강경영자가 한자

리에 모여, 자유롭고 개방적인 토론을 통해서 서로의 우정과 신뢰관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1988년에는 서울에서 연차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IISI는, 세계의 철강업의 공존공영을 위해 「국제경제질서의 준수」 「자유와 제도의 조화」 「상대방 입장의 존중」을 기본적 정신으로 극히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왔지만, 일본의 주요 철강메이커도 설립당초부터 가입하면서 오랫동안에 걸쳐서 각국의 철강기업과 교류를 깊이해 온 것입니다.

이것이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철강업의 산업협력을 원활히 전개하기 위한 바탕이 된 것이며, 글로벌화된 세계경제에 있어서의 기업연계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한 하나의 참고로서 특별히 소개드린 바입니다.

산업협력에 관한 제언

그런데, 철강업과 기타 산업을 비교할 때도 협력을 받는 측의 법률·금융제도, 시장규모, 경제발전, 사회기반의 수준, 혹은 협력하는 측의 기업행동이나 투자규모의 차이 등에 따라서 산업협력의 내용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섬유나 컬러TV·VTR·패스컴 등 일부 가전제품에 있어서는 이미 아시아각국과의 수평분업이 현저하게 진행되고 있고 설계개발거점의 이전까지 부분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듣고 있으며, 반도체나 컴퓨터, 나아가서는 자동차도 점차 현지 생산화와 일·구·미의 메이커와의 국제제휴로 한층 더 산업협력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조립가공산업과는 달리 장치산업인 철강업은 상공정설비의 건설에 거대한 자금을 필요로 하며, 투자리스크도 극히 크므로 앞으로는 비교적 투자규모가 작은 하공정설비의 건설에 의한 산업협력이 주류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내용의 차이에 따라서 각 산업이 안고 있는 과제도 다방면에 걸쳐 있습니다만, 한편으로 저는 모든 산업에 공통된 본질적인 과제도 항상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철강업 이외의 산업도 시야에 두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과제와 그 해결책을 몇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로서, 항상 상대국의 경제개발의 속도나 기술력수준에 맞추어서 적절한 협력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수용측의 실력을 넘은 과잉한 협력은 장기적으로는 참된 성장에 불가결한 자조노력의 싹을 못뜨게 만들어, 결국은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하게 됩니다.

전후, 일본의 산업은 구미로부터 적극적으로 설비도입이나 조업지도를 받아 왔습니다만, 저는 이것을 기초로 해서 자주적·단계적인 설비개량이나 조업개선에

노력함과 아울러, 일본의 수요산업과 공동으로 상품개발이나 이용기술개발을 강력히 추진해 온 것이 그 후의 발전의 기초를 구축하게 된 요인이 되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력하는 측도 수용하는 측도 모두 단계적으로 수준을 향상시켜서, 어떻게 기술이나 노하우를 뿌리내리도록 해 나갈 것인지, 또한 첨단기술의 공여·도입에 있어서도 쌍방이 참으로 비즈니스찬스 확대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서 경제발전에 이어질 것인지를 항상 자기 스스로 자문하면서 검토를 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경제발전과 시장규모에 알맞는 산업협력을 실시하기 위해서도 설비의 공동투자·공동이용이란 스킴이 앞으로의 산업협력의 유력한 수단의 하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로서, 산업협력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세계시장이 자유롭고 보더레스한 가운데 있어서도 일정한 질서를 가진 시장의 유지와 상대국의 동사업사나 수요산업과의 공존공영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간기업에 있어서는, 산업협력도 새로운 비즈니스찬스의 발굴이나 수익확보를 제일목적으로 함이 당연하지만, 동시에 상대국의 경제·사회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배려해서, 절도있는 기업활동을 준수해 나가는 것이 장기적인 좋은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비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일본 철강업은 세계시장의 혼란과 무역마찰을 없애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거듭해 왔지만, 시장의 자유화가 한층 더 진전되는 가운데서 시장원리에 따른 질서 있는 경쟁에 노력함과 아울러, 질서있는 시장창조에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세째로서, 경제·경영의 글로벌화에 대응해서 앞으로는 2국간에 그치지 않고 3국간 이상의 산업협력의 바람직한 모습을 모색하는 것이 급무라는 것입니다.

3국에 걸친 협력이 되면 투자규모가 한층 더 확대되므로, 어떻게 해서 리스크를 분산시키느냐, 어떻게 효율적으로 각자가 잘하는 분야를 분담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 점으로 봐서 앞에서 소개드린 일·한·태국의 합작프로젝트나 ASEAN에 있어서의 자동차의 BBC(Brand To Brand Complementation)스킴 등은 기타 산업에 대해서도 상당히 참고가 될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네째로서, 실사확인사항의 불이행은 쌍방의 상관습의 차이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제적으로 통하는 룰에 따라서 산업협력을 추진시켜 나가는 것이 긴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당사자인 기업이 서로 절차를 따라서 결정해야 할 사항을 수시로 확인을 하면서 진행시킨다는 것은 물론, 업계차원으로 공통된 토양을 형성한다는 것도 중요한 방안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철강업의 업체단체인 일본철강연맹은 중국과의 전문가교류를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조사·통계, 환경관리·공해방지를 비롯한 공통된 틀 만들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본 회의나 일한·한일경제인포럼, 전경련경제·경영간담회로 대표되는 재계인끼리의 교류나 관민이 일체가 된 투자환경조사단 파견등을 통해서 국제적 틀에 관해서 가일층의 이해를 깊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섯째로서, 세계가 새로운 국제질서 구축을 위해 협조와 연계를 강화하는 가운데서, 이제는 일한양국은 아시아를 비롯한 해외지역의 산업개발이나 지구규모의 국제공헌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관민의 협력으로 설립된 JAIDO (Japan International Development Organization : (주) 일본국제협력기구)에 의한 선도적 출자, 각국 민간기업·정부 등에 의한 사업참가, 일본수출입은행과 OECF (Overseas Economic Cooperation Fund : 해외경제협력기금)에 의한 융자 등 삼위일체가 된 지원시스템이 강력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월남의 메콩강 개발, 중국의 황하사막의 녹화, 볼네이의 열대우림 보존등을 대표적인 예로 하는 대규모의 지구환경·에너지·인프라정비 등의 관련된 프로젝트 (글로우벌·슈퍼·프로젝트)에 관해서는 일본 GIF (글로우벌·인프라스트럭처·펀드)연구재단이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퍼지빌리티·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기술적·경제적으로 곤란한 과제가 산적되어 있기 때문에 실현화는 결코 용이하지 않지만, 모두 인류번영을 위해 필요한 개발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지금이야말로 국경을 초월한 협력이 강하게 요청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상, 아시아에 있어서의 산업협력에 관해서 저의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일한양국은 과거 무역·투자·금융 등 모든 경제활동을 통해서 밀접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습니다만, 국교정상화 30주년에 해당되는 올해를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아, 한층 더 양국의 정치·경제관계를 확고한 것으로 만들어야 함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더구나 올해의 WTO 발족이나 APEC 大阪회의의 개최, 내년에 한국의 OECD 가입 등을 감안할 때도, 세계의 무역·투자자유화의 흐름은 불가피하므로, 일한양국이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산업·경제협력을 통해 아

시아나 널리 세계경제의 안정과 번영에 이바지할 역할을 맡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더욱 더 중요한 사명을 가지게 될 일한·한일 양국 경제협회의 활동이 가일층 결실많은 성과를 거두시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스피치를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분과회〉
(산업협력분야)

코 멘 트

金都亨 所長 : 산업연구원의 김도형입니다. 신일본제철의 부사장님 논문에 대해서 느낀점 몇마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여러번에 걸쳐서 많은 논문을 접하고 있습니다만, 보기도물게 컴팩트하게 잘 정리된, 그러면서도 21세기 아시아에 있어서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고 협력의 새로운 장르가 개척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신 아주 훌륭한 논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자부품, 기계, 반도체 등과 같은 산업과는 달리 연철강, 석유화학등의 소재산업들은 2차엔고 85년 9월 이후에 2차엔고 때까지도 해외현지생산같은 것이 어려운 특징을 가진 그런 산업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역시 급속한 엔고와 더불어서 가전산업의 해외진출과 함께 소재산업까지도 이제 현지에 진출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시 철강 그 가운데서도 일본의 5개 고로회사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업체인 신일본제철이 앞으로 거대한 시장인 중국과 아세안 니즈에 진출함에 있어서는 일본 업계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리스트럭처링을 통한 업계재편이 어떤식으로 진행될 것인가 하는데 걸려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세계 전체적으로는 철강의 과잉설비가 4천만톤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한국, 브라질, 중진국의 공세가 급격하고 또 계속되는 미국의 덤핑공세, 이런 외국에 대해서 신일본제철은 동경제철의 새로운 기술혁신에 맞춰서 소위 H형강을 둘러싼 전쟁을 치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일본제철이 동경제철이라고 하는 새로운 강자와 어떤식으로 기술경쟁에서 이길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금후의 한국과의 H형강의 고급강을 둘러싼 협력과 또 아세안 중국에 대한 한국과의 공동진출이 업계재편의 결과에 달려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특정한 회사를 거명해서 죄송합니다만 신일본제철이 새로운 주자인 동경제철과의 경쟁에서 어느정도 승산이 있는 것인지, 또 앞으로의 전망이 일본의 조강생산량을 8천만톤 정도로 상정할 경우에 14 - 15개의 고로를 절반으로 줄여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합니다만 그 경우에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3년간에 걸쳐서 2만5천명 정도의 고용을 삭감해야 되는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게 되면 이 정도의 고용삭감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이상의 급격한 고용감소에 과연 견딜 수 있을 것인지 하는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산업협력에 대한 좋은 제언을 해주셨습시다만 역시 칼라TV, VTR, 퍼스컴등의 가전제품과는 분명히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세안에 일본기업들이 생산기지뿐만 아니라 R & D 기반까지 이관해주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칼라TV, VTR과 같은 경우에는 R & D 생산기지마저도 아세안이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물론 철강은 아닙니다만, 가전제품의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아세안을 둘러싼 한일 양국의 협력의 가능성이 과연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본측 발언에 대해서 코멘트를 드렸습니다.

삼성전자의 이부사장님 좋은 의견이었습니다만 몇가지 의문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그동안에 일본기술을 도입해 옴에 있어서 하드웨어적인 것 뿐만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기술이전이 필요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이전이 안되었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물론 이런 측면도 없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한국의 경우 수용태세가 불충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기술혁신이 특히 소프트웨어측면에서 기술혁신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히 일본의 기술도입시 소프트웨어를 상당히 경시해 온 기간이 길었지 않았나 그래서 모든 우대조치들이 하드웨어 중심으로 이루어 졌기때문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우대조치가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이전이 어려웠다고 하는 측면도 동시에 강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반도체, 전자, 기계류와 같은 고급기술이전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엔지니어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엔지니어 확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엔지니어 확보야말로 우리의 수용태세를 정비하는데 관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도체, 전자 및 기계류와 같이 한목음으로 생각해서는 곤란하지 않느

나 즉 전자와 기계류는 기술이전의 패턴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엔고의 영향이 절대적으로 크다고 생각합니다만 기계류의 경우에는 일본의 경우에 엔고와는 관계없이 기계류의 특성, 말하자면 소위 1차 2차 3차라고 하는 수직적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체로 연결된 일종의 네트워크조직이기 때문에 이 기계류가 엔고로 단순히 진행되었다고 해서 단순히 여타국으로 이전될 그런 성격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서포트 인더스트리 기반이 갖추어진 곳에 이전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기반이 가령 일본의 지방에 갖추어져 있다고 하면 엔고가 아무리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아세안이나 한국보다는 일본의 지방으로 이전될 수 밖에 없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업종을 구분해서 우리가 이전요구를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의문과 코멘트가 많습시다만 시간관계상 이정도로 줄이겠습니다.

李正根 局長 : 방금 소개받은 매일경제신문 편집국장 이정근입니다. 저는 과거 80년대 전반에 동경 특파원을 하면서 이런 회의를 취재한 경험이 있고 돌아와서도 기자들로부터 한일·일한 민간합동경제위원회의 기사를 접한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직접 참여해서 말씀을 드릴 영광을 갖게 된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WTO체제가 출범하면서 한편으로는 자유무역체제를 강조하고, 또 한편으로는 브로커현상이 심화되는 이러한 가운데에서 양국이 어떻게 협력해 가야 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이런 것을 모색해야 될 전환기적 외적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점에서 볼때 WTO체제 이 자체는 무역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여기서 논의해야 하는 산업의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신일본제철의 三木부사장께서 지적하신 아시아지역에 있어서의 양국산업의 협력 5가지 제안은 상당히 의의가 있고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귀중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번째로 지적하신 3국이상의 국가들이 서로 협력하는 방안 그로 인해서 한·일·태국의 협력방안을 예로써 드셨습시다만, 이런 관계는 사실 많이 발전되어야 할 것 같고, 또 국제적으로 공헌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해주시고 현재 일본이 벌이고 있는 노력을 일일이 열거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그러한 방향이 앞으로 공동으로 모색되어야 할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

니다.

그리고 한 두가지 여쭙보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두번째로 제안하신 가운데 국경이 없는 시대라고는 하지만, 일정한 질서를 갖는 시장유지와 상대국의 동업타사 및 연간수요산업의 공존공영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공존공영은 현재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점을 강조하셨는데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렸다고 WTO체제가 출범하기 전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본은 오래전부터 당하고 있습니다. 강도를 보면 거의 국경이 없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어서 질서있는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하더라도 또 그나라에 있는 시장의 상대국 기업 또는 수요기업들의 공존공영을 노력한다 하더라도 미국 구라과 국가들의 요구, 그들의 제품이 들어왔을 때의 교란상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양국간의 산업협력관계를 생각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여쭙보고 싶고, 또 한가지는 첫번째로 지적하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산업협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신 점인데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는 과거의 관습이나 하나의 정형화라는 것이 앞으로 WTO체제하에서 어느정도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러한 제안을 하셨는지 이를 다시한번 여쭙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스컴에 종사하고 있는 탓도 되겠습니다만 멀티미디어 시대가 되면서 그 분야에 있어서는 1등이 아니면 2등은 무의미하게 되는 그런 시대로 도래하고 있습니다. 결국 2등이나 3등이나 꼴등은 다같은 입장이 되고 1등인 국가기업만이 살아남는 이런 시대로 도래하고 있는데 그런면에서 삼성전자 이부사장님이 멀티미디어 분야의 멀티기술에서의 협력, 기술교류 특히 소프트웨어분야의 인적양성을 위한 공동노력을 제안하셨는데 이런 분야는 상당히 건설적이고 귀담아들을 만한 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한국측의 패널리스트이기 때문이 아니라 전세계 동향을 보게 되면 상당히 그것이 심각하고 그 시대가 곧 오지않겠는가 하는 면에서 볼 때 양국의 산업협력의 앞으로의 방향을 그 분야에 맞춰도 좋지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본측 참가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鈴木 教之 取締役 : 방금 소개를 받은 山一證券의 鈴木입니다. 오늘 한일간의 경

세계 중진이신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발언할 기회를 얻은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삼성전자의 이부사장님 그리고 신일본제철의 三木부사장님 여러가지 시사에 넘치는 말씀을 하셨고 산업협력의 존재방식에 관해서 인식을 새로이 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금융시장 특히 증권시장이라는 측면에서 산업협력의 미래상을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드릴 나위도 없이 경제란 것은 물건과 돈이 표리일체가 되어서 해나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산업협력을 생각할 때에 있어서 금융면에서의 협력이란 것은 피할 수 없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아시아의 증권시장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제 사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아시아 각국의 경제, 증권시장의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아시아 각국의 증권시장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특히 85년 이후의 발전상에는 눈부신 바가 있습니다. 미주 또는 아세안 8개국의 시장을 하나의 시장으로서 파악해서 그 상장기업수 주식시가 총액을 보면 85년말에 1602개사 1125억달러로 부터 94년은 통계가 발표되고 있지 않은 필리핀을 제외하면 7개국에서 2853사가 1조 2569억달러라는 급속한 확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매대금도 85년에는 불과 248억달러였던 것이 94년에는 5270억달러로 20배 이상 확대가 되었습니다. 80년대 중반까지 아시아에서는 간접금융이 압도적인 주류를 차지하고 그 경제규모에 비해서 증권시장의 발전이 두드러지게 뒤떨어져 있었습니다.

자금조달 기능도 대폭적으로 제한되었고 한계적인 자금조달의 장으로서의 기능밖에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아시아의 증권시장이 80년 후반이후 여러가지 변모를 한 배경에는 말할나위도 없이 아시아 각국의 높은 경제성장이 그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85년 9월 플라자합의가 되어서 선진각국들의 환조정이 수년동안에 걸쳐 니즈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이에 따라서 니즈각국이 연를 두자리 숫자의 경제성장을 수행했다는 것은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80년대 말에 걸쳐서는 아시아 각국의 실질경제 성장률도 일본이나 니즈각국으로부터의 직접투자의 유입을 하나의 지렛대로 해서 두자리 숫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주목되는 것은 각국의 적극적인 시장진흥정책이었습니다. 시장이 정비되지 않는 한 증권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자금유입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규제완화, 자유화와 같은 정부의 전향적인 대응이 있으므로

해서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장진흥책은 실로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주식공급의 확대책, 두번째는 주식수요의 확대책, 세번째가 주식시장의 정비 이 세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주식공급의 확대는 각종 우대정책에 따른 지역의 상장촉진,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이며 수요확대책은 투자신탁을 통한 국내외자금의 동원, 외국인 투자규제, 외환규제의 완화에 외국자본의 유입촉진 등입니다.

또한 인프라스트럭처의 정비는 증권시장 관련법의 정비, 경제시스템의 개선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육성책이 아시아 주식시장의 매력을 높임과 동시에 투자가의 신뢰를 높였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 실제경제의 성장이 각국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활성화와 더불어서 아시아 주식시장의 발전을 가져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아시아 각 지역에서 경제개발을 위해 방대한 자금수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두분께서 지적하신 바와도 같습니다. 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증권시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아시아 증권시장의 현황에 입각해서 저희들이 아시아의 증권시장, 나아가서는 그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어떤 형태로 협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어서 아시아 각국의 더한층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불가결한 장기자본의 안정공급이란 점에 저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리라 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첫번째는 아시아에 있어서의 자본적인 촉진 그 중에서 특히 일본으로 부터의 투자창구로서의 역할입니다. 두번째로는 각국의 증권시장의 인프라스트럭처 정비라는 측면에서 협력할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첫번째로 증권시장의 예를 든다면, 일본의 엔기준 외채시장, 소위 사무라이시장에 있어서의 아시아의 발행채 자금조달액은 94년 3480억엔으로서 3년전의 2.7배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주식시장쪽에서는 일본의 투자가에 의한 아시아 주식투자 상황을 보면 94년말 보유잔고는 36.6억 달러로 5년전의 3배이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증권회사로서는 아시아에 대한 투자의 안정적인 확대를 꾀하기 위해 일본을 포함한 해외투자가에 대한 정보제공과 아시아와 일본등의 파이프역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번째 인프라 정비면에서의 협력이란 점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시아 고도성장의 배경의 하나로는 각국의 적극적인 시장진흥책이 큰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증권시장의 성장속도가 빠르게 자본시장의 인프라스트럭처를 정비하는 대응면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일본의 증권시장은 아시아에서는 가장 오랜 역사를 갖는 시장으로서 경험을 쌓아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이제까지의 성공과 실패를 포함해서 아시아 각국이 이러한 기업정비에 이것이 도움이 될 점이 많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금융자본거래 보더레스화가 촉진되는 가운데 각국시장의 태두리를 조화시켜 나아가자는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자본축적에 대해서 다채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함과 더불어 세계에 대해서도 열린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결제제도나 디스클로저등과 같은 제도에 있어서의 각국의 차이점을 다시한번 재검토하고 내외의 투자가가 똑같은 조건에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기나라 시장의 제도를 그와같은 국제물에 근접시킨다는 것은 투자가의 거래코스트 또는 투자리스크를 내리게 되는데 연결되어 나아가서는 증권시장의 발전에 기여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여러 선배님들 앞에서 발언할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三木 利夫 副社長 : 우선 처음에 김소장님으로부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소재산업의 해외진출 문제라는 것은 공동진출로서 나왔는데 원점에는 역시 리스트라인 점입니다. 리스트라가 성립이 안된다면 이러한 진출은 할 수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이나만큼 잠시 저희들의 리스트라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기업이란 것은 수익을 올려서 그 수익을 올림으로써 그 수익의 결과를 투자하고 그래서 확대해 나아가는데 연결되며 이것이 바로 기업의 발전으로 연결되는 것 이것이 기업의 기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수익이라는 것이 큰 문제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 1987년부터 이번이 3번째가 되나지만 3번에 걸쳐서 구조전환을 꾀해 왔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코스트에 국제경쟁력을 붙인다는 것, 코스트의 국제경쟁력이 모든것이기 때문에 국제경쟁

력을 이만큼 엔고속에서 계속해 나아가려면 코스트의 절감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로써 수익을 회복하고 제대로 된 배당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재생산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1994년부터 1995년, 그리고 내년 이 3년동안에 걸친 제3차 중지계획을 만들어서 이것을 열심히 추진하는 것이고 바로 금년이 그 가운데 해에 해당됩니다. 이속에서 우리들은 코스트의 경쟁력 강화, 다시 말해서 코스트를 내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일본제철의 경우 연간 포장변동률을 통해 약 2조엔의 코스트를 15% 인하시켜서 3000억엔의 연간 코스트다운을 하자는 것이 이번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러한 시기이기때문에 속도가 중요하다해서 그중의 50%인 1500엔을 초년도에 해내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번 결산에서는 1500여엔의 코스트다운을 완성시켰습니다. 따라서 저희 회사의 1994년 결산은 흑자결산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코스트다운의 내용은 역시 일의 추진방법에 경직성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것을 가볍게 해나가고자 한다면 되도록 현장책임을 전부 이양해서 작은 본사를 만들어 가는 것, 즉 Slim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에서 저희들 조직은 사장과 임원인 상무급, 이사 그리고 부장이 3개층으로 나누어 의사결정을 하자는 것도 포함시켰습니다. 이러한 매니지먼트의 개혁이란 것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경쟁력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이와같이 지금 질문하셨던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포스코와 함께 손을 잡으면서 세계 제일의 양국 협동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가지 설비능력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1987년 첫번째때에 생산구조에 손을 대어 고로를 반으로 줄였습니다. 저희회사는 지금 고로가 8개밖에 없습니다.가와사키제철이라든지 다른곳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대폭적인 리스트럭처를 했던 것입니다. 일본의 생산구조는 그대로 두고, 그 위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코스트, 매니지먼트, 조업수준 이러한 리스트럭처를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보면 일본의 철강업은 생산면에서는 1억톤의 생산량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수요는 8천만톤이라는 말씀이 있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수요면이기 때문에 수입 약 500만톤이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는 국내생산 7500만톤정도가 되겠는데 여기에서 2500만톤 수출을 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1억톤이 되며 1억톤의 생산이란 것이 지금의 페이스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되느냐의 여부가 지금 저희들의 대전제가 되어야 하겠지요.

이미 9천만톤에서 1억톤 정도까지는 오르내림이 있을 것이고 이를 염두해 둔 리스트럭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부분을 역시 해외로 돌려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1억톤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저희들 회사도 양적으로는 풀생산이 됩니다. 현재 거의 모든 업체가 풀생산입니다.

다음은 해외문제인데 저희들은 제품수출 해방하고 10년전까지는 미국이하 제품의 수출로써 철저히 해왔는데 제품의 수출이 점점 무역마찰을 일으키고 또는 세계가 자유화되어 나아가는 가운데 이것은 성립이 안되겠구나 해서 특히 앞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제품의 수출과 설비의 협력(하드부분) 또 기술의 협력(소프트), 이것과 해외사업 이런 네가지를 장소와 상대방에 따라서 갖추어 나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산을 해 나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동아시아 지역은 역시 우리의 마케트라고 생각합니다. 이 동아시아 마케트가 미국, 유럽지역이 노리는 마케트입니다. 그런 가운데 역시 우리는 경쟁을 통해서 이 마케트를 서로 지켜나가고 마케트를 경제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설비의 공동위원회라는 것이 나온 것입니다. 아무리 동아시아 마케트라 하더라도 그 수요의 증가량이 완급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한꺼번에 뛰어오르는데 이 겹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신장이 될 때는 좋은데 그렇지 않을때는 문제가 생기고 눈깜작할 새에 생산량이 오르게 되면 그 나라경제를 오히려 파괴시키는 원인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시 적어도 동아시아의 마케트에 관해 철강업으로서는 특히 신일본 제철로서는 한국의 포스코 그리고 중국의 포산제철 이런 곳과 동아시아의 마케트를 공동으로 해나가는 설비의 공동이용이란 점도 생각해 봅니다.

역시 아시아의 마케트는 우리들, 동아시아에 사는 우리들의 마케트이지만 그것은 미국이나 유럽에 대해서도 역시 경쟁의 결과로서 지켜나가야 하는 마케트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선진기술을 갖고 경쟁력을 가진 한국의 포철과 저희들 일련의 고로업자들이 손을 잡고 이에 대응해 나아갈 수 밖에 없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合 同 分 科 會

(交流增進分野,其他)

〈共同議長〉

韓國側：金 在 哲 東遠産業(株) 會長

日本側：梅村 正司 日興證券(株) 會長

〈合同分科會 主題〉

(交流增進分野)

過去·現在, 그리고 未來의 韓日關係

漢陽大學校
名譽教授 金容雲

<한일 관계의 새국면>

국제화는 인류역사가 체험한 몇개의 문명단계의 하나이며 기존의 문명 단계가 그치고 보다 고도의 새로운 단계로 이행하는 과정이다. 하지만 아무도 오늘날의 상황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Image)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공해, 환경오염, 핵, 인구이동...등이 범세계적인 문제로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한·일 양국에는 북한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을 포함한 동해권, 황해권 등의 동향이 중대한 공동의 관심사이다.

한편으로는 NAFTA, EC, 그리고 APEC등 광역 경제권 형성이 현실화 되어 있으며, 그에 대응하여 한일간의 성숙한 관계가 요청되고 있다. 이미 노출되어 있는 이들 문제에 대한 대처만이라도 한일은 종전과 차원을 달리하는 새로운 전망을 공유해야 할 것이다. 공존의 지혜가 크게 요망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우측통행이고 일본은 좌측통행이며, 이것이 곧 지금까지 한·일간의 여러 국제회의에 제출되는 의견차를 상징하고 있다. 이대로 서로가 전속력으로 달린다면 결과는 비극적일수 밖에 없다. 미래를 전망하고 새로운 한일의 위상을 모색하기 위해서 과거 한일간의 관계를 돌이켜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일 관계의 재조명>

유감스럽게도 명치유신 이후 일본의 對한국관은 매우 왜곡되어 있었다. 특히 식민지 시대 이후 일본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한국경시의 경향이 강했다. 교과서에서조차 일본문화는 모두가 한국을 제외하고 중국, 인도에서만 영향을 받았다는

식의 기술이 대부분이며, 한일 양국민의 차이만을 애써 강조해 왔다.

친일적이라는 라이샤와의 다음과 같은 말도 있다.

[한·일에는 공통점이 매우 많다. 특히 고대에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일본인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며 오히려 부정하고, 아시아 나라들과 같다는 말에 전될 수 없는 불쾌감을 느낀다.]

이제 우리는 불모의 우월감·열등감에서 벗어나 서로의 공통점의 기반위에서 이성적으로 상호이해의 폭을 넓혀가야 할 것이다.

한일 양민족은 중앙 유라시아 대륙으로부터의 민족이동과 원주민과의 결합으로 형성되었고 생물학적으로는 같은 인종이며, 언어구조는 완전히 가까울 정도로 비슷하다. 전세계에서 표음문자(한글·가나)와 표의문자(한자) 두 종류의 글을 사용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두나라 뿐이다. 이것은 한일 두 나라의 말이 원한국어, 大和語 기반위에 漢字語를 수용하였기 때문에 생긴 당연한 결과였다. 하지만 한일의 두 문화는 확연히 다르며 그 좋은 보기가 표음문자에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한때 한일 두 나라는 吏讀(萬葉가나)를 사용했다. 萬葉가나는 이두의 변형이며 많은 공통적인 부분을 갖는다. 그러나 한글과 가나의 작성방법은 전혀 다르다. 서로가 고유의 원형을 갖기 때문이다. 가령 伊와 以, 加와 可는 한일에서 공통적으로 ‘이’가’로 읽는다. 일본인은 伊,加 한쪽을 없애서 イ,カ 또 以,可를 초로 쓰면서 い, か 을 만들었다.

한편, 한글은 데카르트적인 종합과 분석의 방법을 채택했다. 특히 양·음의 받침 ㅇ 와 ㅁ 은 양은 天, 음은 地라는 동양철학을 인용해 ‘天圓地方’에서 ㅇ 와 ㅁ 을 채택한 것이다.

이들 문자의 작성법은 한일 두나라의 기본적 문화의지, 즉 ‘원형’을 나타내고 있으며, 예술·종교·과학...등 각분야의 문화현상에도 항상 이것과 같은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한·일 관계의 역사>

일본의 발전적인 단계에서는 항상 한국인이 크게 공헌해 왔다. B.C.4~3세기 사이에 일본에 처음 벼농사와 청동기 문화가 한국으로부터 건너가 야요이(彌生)시대의 막이 올랐다. 이때부터 일본은 수렵·채집으로부터 혁명적인 발전단계인 농업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農業革命)

A.D. 4~5세기에는 주로 가야지방으로부터 철기를 갖는 군사집단이 일본으로 건너가 대고분에 상징되는 고대국가를 형성했다.(國家革命)

6세기 중반(A.D.552)에는 百濟로부터 佛教가 건너가 처음으로 일본에 고등종교가 수용되면서 국가 이데올로기로 삼게 되었고(宗教革命)

그 후 아스카(飛鳥)文明의 꽃이 피어났다.

百濟滅亡으로 약 20만명으로 추산되는 百濟人이 건너가 그들의 활약으로 일본은 새로운 문화발전을 하여 天平時代를 맞이한다.(文化革命)

일본이 사랑하는 고대의 文化財, 이를테면 東大寺의 大佛, 正倉院의 건립과 萬葉集, 古事記, 日本書紀의 편집 등에는 한국 도래인의 활약이 눈부셨다. 大佛에 사용된 구리의 발견은 신라인 金上元, 제작 책임자 國中連公麻呂(百濟系), 또 그것에 도금하는 금은 陸奥守, 百濟王敬福에 의해서 발견되었다. 마르크스는 “미국은 두번 발견되었다. 처음에는 콜롬부스에 의해서, 두번째는 켈리포니아의 금의 발견에 의해서이다.”라고 말했다. 그의 표현법을 이용한다면, [일본은 두번 발견되었다. 처음에는 彌生人에 의해, 두번째는 陸奥에서 금의 발견에 의해서이다.]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동북지역을 陸奥라 쓰고 ‘무쓰’라고 읽는데, 그것은 한국어의 ‘물’에서 나왔을 것이다. 이에 이어 이 지역에 百濟系의 사령관(坂上田村麻呂, 百濟王俊哲)에 의해 대개척시대가 열린다.

豊臣秀吉의 조선침략은 한국인에게는 큰 고통만 남겼으나 일본은 결과적으로는 큰 이익을 보았다. 명치혁명의 정치 이데올로기는 [尊王攘夷論]이었다. 그것은 조선포로 학자인 姜沆에 의한 조선 주자학에서 비롯되었다. 한편 그때 강제 납치된 조선 도공중에는 有田의 李參平등이 있다. 이들은 근대화 직후의 산업 발전과 명치유신 혁명군의 군자금에 크게 기여했다.

이와같이 한국은 직·간접으로 일본의 혁명적 발전의 계기를 제공해왔다.

<한·일 역사의 기묘한 관계>

한국과 일본의 역사 사이에는 년대적으로 미묘한 일치점이 있다. 한국과 일본의 고대는 935년에서 그친다. 한국에서는 신라의 고려왕조가 교체하고 일본에서는 平將門의 亂이 터졌으며, 이때부터 동국무사단은 중앙의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한다. 1392년 고려와 조선왕조가 교체되었고, 일본에서는 南北朝가 합친다. 그러나 한·일의 역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전해 갔다. 일본은 개척과 정복에 의해 진

행되었으며, 屯田兵식의 개척은 명치유신 이후까지도 北海道에서 실시했다. 개척지에는 항상 무력이 등장한다. 일본 무사단과 미국의 총잡이는 같은 개척지라는 환경에서 등장한 것이다.

한편 한국은 일찍부터 山谷의 扇狀지역을 농토화했으며, 주로 自家一村식의 마을이 전국에 산재했다. 그것은 주로 풍토의 차이때문이다. 전국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한국어는 坊坊曲曲인데, 일본에서는 津津浦浦라고 한다. 고산이 많은 일본은 주요 취락지가 해안선에 있는데 비해, 한국은 내륙의 각 산골에 있었다.

같은 ‘士’에 대해서도 한국은 붓을 갖는 선비, 일본은 칼을 지니는 무사라는 뜻을 지닌다. 일본의 직업군인이 침략할때마다 한국에서는 맨 먼저 선비가 종이와 붓을 들고나와 檄文을 쓰고 義兵을 모아 대항했다. 전쟁에 있어서도 아마츄어와 프로의 싸움이였다. 일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진 한국이 쉽게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러한 사회제도의 차이는, 특히 근대화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다.

근대화는 공업화를 뜻하며, 국가체제로서는 국민국가가 요청된다. 일본의 무사단 중심의 봉건체제는 국민국가를 쉽게 형성하여 강력한 군대를 가질 수 있는 반면에, 일찍부터 느슨한 중앙집권 체제를 지닌 한국은 오히려 가문중심의 사회제도 때문에 강력한 국민국가 형성에 실패한 것이다.

지난날 한일의 지배·피지배의 관계는 한국에게는 더할나위없는 불행이었지만, 일본에게 있어서도 역시 불행한 일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이와같이 역사를 돌아보는 일은, 이웃인 두 나라가 전통적인 사고만을 갖고 서로간에 ‘힘’만이 작용할 때에는 모두가 불행해 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힘에는 군사력, 경제력도 있다. 최근의 정세로는 경제력이 더욱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

<Zero sum game의 종언>

冷戰시대에는 Zero sum game의 논리가 일방통행 했었다. 그러나 이제 냉전은 끝나고 급속도로 정보가 범람하는 국제화 시대를 맞이했다. 국민국가의 의미가 사라지고 국제화의 흐름속에 한일 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 것이다. 그것은 적어도 상대의 불행이 자신의 이익이 되는 시기는 아니다. 더우기 한국에는 식민지 시대·냉전시대의 유산인 남북분단의 상황이 그대로 남아 있다. 만일 남북간에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이제 한국의 불행으로 일본의 이익이 되기는 커녕 오

히려 불행이 이어질 것이다.

百濟멸망 당시에도 20만의 Boat people이 일본에 건너갔다. 당시 일본에는 광대한 미 개척지가 있었고 오히려 그들을 지렛대로 삼아 대개척과 화려한 문화를 꽃피우게 했다. 그러나 만일 남북이 싸우게 되거나 북한체제가 급격히 붕괴된다면 수백만으로 예상되는 피난민이 일본에 몰아닥칠 것인데, 일본에는 그들을 수용할 자리가 없을 것이다.

남북통일은 결코 흡수통일이 아니다. 서서히 북한의 경제력을 향상시킨 후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 단계로 밟아 나가야 할 것이다. 궁지에 몰린 그들은 자존심이 상하면 끝까지 극한적인 대응을 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필자는 간접적으로 북한의 고위군사 당국자가 했다는 [우리(북한)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다. 고구마와 물만 있으면 얼마든지 싸울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제 2차대전 말기 일본의 상황에 비추어 본다 하더라도 그 말이 결코 허황된 소리만은 아닐 것임이 실감되었다.

바람직한 남북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의 경제적 여유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남한과 북한과의 경제협력은, 또한 일본의 한국과의 경제협력은 모두가 성실하고 서로의 자존심을 존중하는 공존체제를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한일 협정이 체결된 1965년 당시 한국의 수출품은 주로 수산물, 가발, 광석등이었으며 전체 수출액은 약 1억불 정도였다. 금년은 그것이 1,000억불에 달할 것이며 수출품목은 전자·중화학·철강·조선·자동차 등이다. 그러나 이렇게 화려한 표면적인 숫자와는 달리 그 내부 구조를 살펴보면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으며, 그것을 한일 경제인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한일 수교 협정으로 한국은 5억불을 받았다. 그러나 그것은 현금이 아닌 일본에 의존도가 높은 산업설비였다. 당연한 결과로 한국의 산업구조는 일본에 의존하게 되었고, 대일무역면에서도 작년에 119억불의 적자를 示顯하였으며 그동안의 적자는 1,000억불정도를 헤아리고 있다. 그보다 심각한 일은 앞으로 계속 이같은 상황이 늘어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대일적자가 많아질수록 대일감정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앞으로 남한의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에 대해서 이 교훈을 살려야 할 것이다. 경제의 논리는 이익의 추구에 있다. 하지만 심한 격차는 국제적으로 불안한 요인이 될 것이며 서로가 이익을 보는 경제체제를 갖는 일은 국제적인 수평분업일 수 밖에 없다. 여기서 생각나는 것이 전후 미국의 유럽에 대한 마샬플랜, 그리고 일본의 경제 기술원조이며, 일본은 Deming교수로부터 직접 Q.C.까지도 습득하여 Q.C.의

일본화에 성공했다. 미국의 상대적 Share는 줄어들었으나 절대적으로는 늘어났음으로, 결과는 미국도 큰 이익을 본 것이며 그로인해 전후 50년간의 주도권을 잡게 되었다.

불행한 일이지만 정치가는 수년 뒤의 이익보다는 오늘의 인기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경제인에게는 5년, 10년뒤의 대국적인 이익 추구의 사고가 가능하다. 실지로 국내적으로는 장기적 안목의 기업전략이 보통이다. 그러나 국제간에서는 정치적 요소가 개입하는 탓으로 단기적인 이익을 보려는 경향이 강한 것이 안타깝다. 국제화 시대의 경제활동에는 그러한 단기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 또는 국가권력의 개입이 사라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경제계의 의사가 앞으로 한일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믿는다.

국제경제도 게임이다. 한일 두나라 국민은 공통적으로 야구를 즐긴다. 프로의 감독이라면 완전시합(Perfect game)을 바라기도 한다. 그러나 관중에게는 이처럼 재미없는 게임은 없다. 한일 양국간의 경제게임에서 일본측 감독(관료·정치가)이 너무나 Prefect game만을 추구한 나머지 일반 관중인 양국 국민이 오히려 지루함을 느꼈던 것이 지금까지의 실상이다. 이로인해 한쪽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은 국제화에 역행하는 일이 될 것이다.

東洋의 사상에서는 [結者解之](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만든자가 해결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있다. 한국분단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다고 외면하면서 Perfect game에만 열중한다면 일본은 아시아, 나아가서는 세계로부터 영영 신뢰를 구축할 수 없을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과 원만한 한일관계를 위해 대승적인 태도를 취할 것을 바란다.

<국제화시대 = 민족시대>

국제화를 야기시킨 직접적인 원인은 정보수단의 발달때문이었다. 냉전구조는 정보의 차단으로 가능했었다. 권력은 일반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국민에게 흘렸고, 국민은 그것 이외의 정보는 접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강력한 통제가 가능했다. 정보의 범람은 일반에게 선택의 범위를 넓혔으며 저마다 민족은 스스로의 기본적 가치관(원형)에 따라 자신의 진로를 결정한다. 억지로 이데올로기에 의해 통합된 나라는 분열되었고, 억지로 분열된 민족은 하나로 통합되어 간다.

경제논리로만 생각한다면 광역의 시장이 유리하다. 하지만 각 민족은 자신의

자존심이 손상될 때에는 경제이익을 희생시키면서도 스스로의 원형에 집착하여 분리한 것이다. 그리하여 소련은 15개로, 유고는 5개의 나라로 분리되었다. 스스로의 원형과 자존심의 보전이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EC와 같은 광역의 경제권이 형성될 수 있었다.

국제화는 카테일과 같은 융합이 아닌, 모자이크 모양과 같이 저마다의 원형이 공존하면서 전체적으로 조화를 도모하는 체제이다. 무엇보다도 상대의 자존심을 존중하는 공존의 지혜가 크게 요청된다.

<한·일의 가능성>

원활하게 남북통일이 이루어지고, 한·일의 관계가 원만할때 이들 두 민족의 관계는 매우 밝아질 것이다. 두 나라가 중심이 되어 광역의 경제권이 형성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인구만 해도 한일이 합치면 2억, 국민은 근면하고 교육수준도 높다.

산업혁명 이후 번영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항구의 조건이 필수적이었다. 대량생산과 그로인한 무역으로 국가가 부강하게 되기 때문이다. 영국·일본등이 근대화에 성공한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앞으로의 제품은 정밀기술의 발달로 더욱더 輕薄短少化 될 경향이 있으며, 제품 수송의 상당부분을 항공기로 이용하게 되었다. 岡崎久彦氏는 일찍 한국 서해안에 광대한 간척지를 조성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隣國에서 생각한 일』)

그것은 공항, 대형공업단지, 특히 일본·중국 중계지로서 각광을 받게 될 것이다. 한일은 연결되어 함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은 있을 것이다.

현재 일본이 경제대국으로서, 특히 아시아 경제에 대해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이 가담하게 될 때에는 아시아, 나아가서는 세계 경제적 발전을 이루게 될 것이 분명하다.

<한·일의 젊은이>

분명히 두 민족의 원형은 다르며 저마다 특유의 문화양상을 갖는 것은 사실이다. 한·일 두 나라의 젊은이들은 자신의 한세대 전의 선배들 보다는 서로 가까운 문화를 공유한다. 특히 그들이 즐기는 패션이나 취미는 거의 같을 정도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일간의 무력전쟁은 프로와 아마추어였다. 오늘날의

경제게임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격차가 있는지 모른다. 하지만 젊은이들은 같은 게임의 논리를 익히고 있다. 이제는 이들에게 그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할 일이 남아있다.

필자는 평소 일부 한국의 기성세대의 일본문화에 대한 억지스러운 저지책에 대해서는 기회있을때마다 반대의 의사를 표시해왔다. 젊은이는 기성세대가 염려하는것 처럼 나약하지 않으며, 스스로 상대의 것을 선택적으로 골라서 소화해낼 수 있다.

한일의 과거사, 특히 식민지 시대의 과거는 냉정하게 객관화 하여 역사적 사실로서의 인식을 공유하고 공동의 희망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그것을 위한 첫 수단으로서 공통된 내용의 역사교과서가 요망된다. 우리에게는 시간을 오래끌수록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고, 세월을 두고 생각해야할 것이 있다. 東海의 명칭 문제등이 그것이다.

고유의 개성을 갖는 두 원형이 높은 차원으로 승화되어 공존의 지혜를 발휘하며 신명나는 한판 게임이 전개될 것을 바란다. 또한 이 시점에서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면 가능한 일이다.

<원형의 시대>

냉전의 종언은 이데올로기의 몰락이다. 이데올로기는 決定論的인 역사관을 지녔다. 특히 유물사관에서는 원시공산제에서 자본주의 체제, 그리고 공산제에 필연적으로 당도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것은 뉴우턴 역학 이후 수많은 자연 현상의 운동·변화가 설명되면서 일직선적으로 세계가 전개된다는 결정론의 사상이 지배적이었을 때의 일이다. 그것이 허구임이 실증된 것은 정보화 때문이었다. 정보는 수시로 미래의 행보에 새로운 선택요소를 개입시킨다. 최근의 카오스(프랙탈) 이론에는 [나비효과]라는 것이 있다. 오늘 서울에서 날던 나비 한마리가 일으킨 바람때문에 내일 동경에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이다. 오늘의 사소한 정보(사건)가 내일의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시대다.

필자는 원형사관을 주장해왔다. 원형(집단의 기본적 가치관)이 시대적 상황과의 긴장관계 속에서 그 집단(한·일)의 역사를 전개한다는 내용이다. 정보의 범람은 수시로 시대적 상황을 변하게 한다. 칼브레이스가 말하는 불확실성의 시대이다. 하지만 모든 정보는 저다마 원형에 여과되는 것이며 따라서 변화의 각 국면에는 그 의지가 반영된다.

역사는 결정론적으로는 전개되지 않으며 원형이 주도한다. 때문에 우리는 더욱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확고한 신념을 갖고 미래를 향해야 할 것이다. 즉 분명한 목표를 갖고 수시로 변하는 여러 요인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생물은 진화함으로서 지구상의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간다. 그들은 급격한 변화에서는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동적 조절 기능을 발휘한다. 인류는 하나의 종으로서 저마다 문화를 지구상의 환경에 적응하며 생존한다. 우리는 환경과 사회의 변화를 생리적으로가 아니라 정신·의지로서 극복해 간다. 이 시대의 변화를 극복하는 일은 곧 의지의 힘일 것이다.

따라서 오늘의 국제화의 성공여부는 민족의 생존과 연결되는 정신적 요소에 있다. 이웃나라와의 공존적 관계, 즉 원만한 국제화가 그 첫 걸음이 될 것이다.

日韓 旅客觀光産業의 振興을 위하여

株式會社 호텔오쿠라
社長 佐藤 晃一

오늘 역사깊은 일한·한일민간합동경제위원회의 석상에서, 그리고 이처럼 저명한 분들 앞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을 크나 큰 영광으로 생각함과 동시에 긴장을 금할 수 없습니다. 금번 회의의 회장인 이 곳 제주도의 호텔신라는 서울의 호텔신라와 더불어 저희 호텔 오쿠라의 체인 중에서도 가장 자랑할 만한 멤버 호텔입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인사 올립니다.

또한 지난 번 關西 대지진 시에 저희 호텔 오쿠라 고베로 신속히 구호·지원스텝을 파견해 주시고 많은 구호 물자를 보내 주신 삼성그룹 계열사에 대해서도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인은 앞으로의 관광산업에 관하여 호텔산업의 입장에서 고찰하고, 나아가서 한국과 일본의 관광 교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크게 세계의 관광사업에 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현재 저는 WTTC의 멤버입니다. WTTC란 World Travel and Tourism Council 이라는 국제적 조직으로서 여객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세계의 주요 항공회사, 철도, 호텔 등의 CEO 7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각국 정부로 하여금 여객산업의 전략적·경제적 중요성을 인지시키고, 그 진흥을 꾀함과 동시에 이를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바로 지난 3월에 싱가포르에서 총회가 열렸으며 저도 이에 다녀왔습니다.

이 WTTC의 최신 리포트에 의하면 1995년의 여객산업 종사자는 2억 1200만 명이며, 여기에서 생산되는 가치는 3조 4천억 US달러로서 이는 전세계 GDP의 10.9%에 상당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산업의 납세액은 6,550억 US달러에 달하며, 더욱이 년율 5.5%씩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10년 후인 서기 2005년에는 여객산업 종사 인구가 3억 3800만명, 생산액은 7조2천억 US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가 뜻하는 바는 여객산업이 세계 최대의 산업이며 동시에 대단한 고성장 산업이라는 점입니다.

다.

더욱 상세하게 살펴보면, 성장이 현저한 곳은 아시아·태평양 지구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전체 생산량도 실질로 54.6% 신장됩니다만, 아시아·태평양 지구의 그것은 78.9%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북미지구의 생산량은 30.4%, 서유럽 지구는 37.4%로서 아시아·태평양 지구의 생산은 그 양적면에서 2005년에는 서유럽 다음 가는 크기가 됩니다.

다음으로 WTCC에서 제창하고 있는 구체적인 제언을 몇 가지만 소개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입국 수속의 신속화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FAST (Future Automated Screening for Travelers)라는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공통의 서류양식을 사용하고, 손바닥을 광학적으로 컴퓨터로 해독함으로써 번잡한 입국 수속을 자동화하자는 것입니다. 이미 미국의 뉴욕 뉴아크공항과 캐나다 토론토공항 사이에서 실험이 이루어진 바 있으며, 왕래자가 많은 이 두나라 사이에서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세계적으로 도입하자는 제안인 것입니다. 현재 일한 양국의 입국 수속 절차가 간소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양국간의 여행자 수 등을 감안할 때 꼭 도입이 요망되는 것 중의 하나가 아닐까 사료됩니다.

또 한가지 소개 드리겠습니다. 다름 아닌 FANS라고 불리는 Future Air Navigation Systems입니다. 이는 안전한 항공여행을 보장하는 인공위성을 이용한 하늘의 교통정리 시스템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다른 지역의 두배 가까운 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구의 경우, 이와 같은 사회기반시설이 반드시 충분하다고만은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하루라도 빨리 도입하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듯이 세계 레벨로는 참으로 전망이 밝은 여객관광산업입니다만, 일본의 호텔산업의 현황을 보면 현재는 꼭 순조롭다고만도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호텔 오키라의 예를 들어 소개 드리자면, 당사는 1962년의 개업 이후, 일본의 경제성장과 그야말로 같은 길을 걸어 왔습니다. 그 동안 1970년대의 석유파동도, 1980년대의 엔화강세도 이겨내면서 성장을 계속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일본경제는 그 앞날에 서광이 보이기 시작했다고는 합니다만 아직도 혼미 상태로부터 빠져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이에 덧붙여 당사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엔高입니다. 1971년의 스미소니언 체제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출국 일본인수 (해외 도항자수)는 1979년의

제2차 석유파동 때와 1991년 1월에 발발한 걸프전쟁시에 약간 줄었을 뿐, 거의 일관되게 늘어났습니다. 엔(환율제도)이 변동환율제로 바뀐 1971년 당시의 12배입니다.

한편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수는 1971년의 70만명에서 1993년에는 340만명으로 늘어났으나 5배 이하의 증가입니다.

호텔 오키라의 경우, 1962년의 개업 당시에는 투숙객이 90%가 외국인이었는데 1994년에는 44.9%가 외국인이었습니다.

특히 환율이 1달러 당 100엔을 밑돌게 된 1994년은 전년에 비하여 5포인트 마이너스를 기록하여 엔高의 어려움을 통감하였습니다. 물론 이는 단순한 외국인 이용자 수의 감소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昨今の 대폭적인 호텔 증가, 혹은 일본인 마켓의 성장이 현저했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이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최근의 일본 경제침체의 와중에서도 분명하게 엔高로 기인된다고 생각되는 외국인 투숙객의 감소는 일본 여객관광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우려할 만한 사태입니다.

물론 현재의 경제환경의 영향도 큼니다. 호텔산업의 기본상품은 숙박입니다. 그런데 일본을 비롯한 홍콩, 한국의 호텔의 경우, 세계의 기타 지역에 비하여 식료업 관련 매출액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본, 특히 동경의 호텔은 현저합니다. 토지가격이 높은 데서 오는 채산성 추구의 귀결입니다. 구미의 경우, 총 매출액 중에서 숙박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50%전후이며, 料食業관련 매출액의 비율은 30% 전후입니다. 이에 대하여 방금 말씀드린 지역의 경우, 숙박부문이 20 - 30%, 料食業 부문이 40 - 60%를 차지합니다.

일본의 경우, 요식업 부문 고객의 많은 부분은 법인이며, 그 비중이 높은 호텔--호텔 오키라는 그 전형적 예입니다만--은 심각한 사태에 직면하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격경쟁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가격파괴라는 말이 모든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된 상품이 서비스, 즉 사람인 호텔산업에서는 서비스의 품질유지와 고객의 기대가격 사이의 손익분기점 추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고도성장시대와는 달리 부가가치의 정도가 가격에 반영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가격이란 고객이 얼마만큼 만족했는가 하는 만족의 대가인 것입니다. 호텔산업은 늘 고객과 직접 접촉하므로 고객의 반응은 즉각 결과로서 나타납니다. 플러스

로나 마이너스로나 나타납니다.

저는 재작년에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고객만족, customer's satisfaction의 실현을 쫓아 직원에게 강조하여 왔습니다. 그 간의 기업 노력으로는 신상품 개발, 조직개발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실행 시의 판단 기준은 이 customer's satisfaction이었습니다. 여하히 고객 만족을 얻을 수 있는가를 추구하는 것이 혼미 시대에 호텔 산업이 존재할 수 있는 열쇠가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customer's satisfaction이라는 관점에서 호텔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텔 운영은 흔히 성곽에 대한 공방으로 비유됩니다. 손님이 공격수이고 호텔은 수비수입니다. 공격수인 손님은 늘 온갖 각도로부터 성곽을 공략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수비수인 호텔은 필사적으로 성을 지킵니다. 공략한다는 것은 즉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며, 지킨다는 것은 즉 만족을 드리는 일입니다. 이를 성곽에 대한 공방전으로 비유할 만큼 호텔 운영에 있어서 고객의 만족을 얻는다는 것은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사례를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독일 뒤셀도르프에 사는 제 친구가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요 25년 동안 매년 서너번은 일본 여행을 했고 북쪽에서 남쪽까지 여러 호텔에 묵었으나 동경에서 묵는 호텔 우쿠라에는 잊지 못할 추억이 있다. 일류 호텔의 서비스는 이 정도로구나 하고 감탄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내 짐을 들어 준 유니폼을 입은 종업원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손님, 올해 독일 와인은 어떻습니까?」「글쎄, 별로 나쁘진 않은데 자네는 어떻게 내가 독일에서 왔다는 것을 아는가?」「네, 손님께서 전에 묵으셨을 때 방으로 안내해 드리는 도중에 독일 와인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그랬군.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했었나?」「네, 모젤 와인이 녹색 병에 들어 있고, 라인 와인은 밤색 병, 프란켄 와인만이 부채 모양을 한 병에 들어 있다는 등의 말씀이셨습니다.」 맞는 말이다. 매일 수백 명의 손님을 상대하고 있는 앓된 모습의 종업원이 이 정도로 자기 일에 열심이였다. 그는 장차 일류 호텔 관계자가 될 것이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이는 이 친구를 상대했던 종업원의 개인적 자질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고객 만족이라는 의식을 지니도록 한 교육의 성과이기도 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호텔에서 실시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 많은 손님들의 호평을 얻고 있는 것이 시차 해소 플랜이라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오셨거나 혹은 돌아가시는 손

님들이 늘 호소하시는 것이 시차로 인한 몸 컨디션 악화의 해소입니다. 저희들도 지금까지 하나 하나에 대해서 개별적으로는 대응해 왔습니다. 헬스클럽도 있습니다. 24시간 룸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서는 손님들이 만족하시기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손님들이 스스로 서로 다른 요소들을 시차 해소라는 관점에서 하나로 만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제공 드리고 있는 서비스는 트레이너로부터 지도를 받으며 적당한 운동을 하고, 영양사가 체크한 고단백의 소화도 잘되는 식사를 하고 (이것이 맛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햇빛에 가까운 특별한 조명을 쏘이면서 세미 클래식의 배경 음악이 흐르는 한가로운 풍경의 비디오를 보며 휴식을 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비로소 손님들도 만족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사고방식)은 호텔 뿐 아니라 널리 여객 관광 산업에 통용된다고 생각되어 소개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한국과 일본의 관광 교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인용하는 숫자는 일본의 국제관광진흥회(Japan National Tourist Organization)의 자료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일본인 방한자 수를 보면 1971년에는 10만 명이었는데 1993년에는 150만 명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993년의 일본인 출국자 수는 천2백만명이었으므로, 일본인 해외 여행자의 13%가 한국을 방문한 셈입니다. 특히 서울 올림픽이 열렸던 1988년에는 전년도의 90만명에서 112만명으로 25% 이상 늘어났고, 그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백만명 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인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나라는 미국이며, 1993년에는 350만명을 기록했습니다. 2위가 한국이며 3위가 홍콩, 4위 싱가포르, 5위 중국의 순서입니다.

각도를 바꾸어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을 보면, 가장 많은 것은 (다음은 1992년의 수치임) 역시 일본인으로서 140만명, 이어서 미국인 33만명, 3위가 대만 30만명이었습니다.

한편 한국인 방일자 수는 1971년에는 4만명이었는데 1993년에는 85만명으로 현저하게 늘어났습니다. 1982년에는 한국의 출국자 수가 50만명에 달하였습니다만 이 해에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20만명으로서, 출국자의 40%였습니다. 또한 해외 여행이 완전히 자유화된 1989년에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61만명으로서 전년의 34만명에 비하여 80% 가까운 신장세를 보였습니다.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으로는 1988년까지는 미국인이 1위였는데 1989년에 한국이 1위가 된 이후 오늘날까지 계속 수위입니다.

2위는 대만, 3위는 미국입니다.

이상의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한국과 일본은 각기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파트너임과 동시에 이 정도로 인적 왕래가 있다는 점, 즉 정보의 왕래도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경제적 움직임이 활발한 곳은 아시아 국가들입니다. 그 중에서 한국과 일본이 수행할 역할의 중대성은 이 숫자를 통해서도 증명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WTTC의 2005년까지의 전망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사항은 재단법인 일본교통공사가 실시한 「1995년 여행 전망」에 관한 앙케트 조사의 집계 결과입니다. 앙케트의 대상은 여객 관광 업계를 대표하는 각계의 최고 경영자이며, 저도 응답자 중의 하나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995년에는 개인 소비가 상승 경향을 보인다고 답한 사람이 40%로서 전년에 비하여 밝은 전망을 제시하였습니다. 해외 여행에 관한 플러스 재료로는 엔고 경향, 개인 소비 증가 등과 아울러 관서 국제 공항의 개항이 크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증가가 예상되는 여행지의 1위는 하와이였습니다만 한국도 17%의 응답자가 지지했습니다.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여행 형태로는 부부 여행, 가족 여행, 여성들만의 여행이 압도적으로 많고, 법인 대상의 초대 여행, 업무 시찰 여행, 출장 등은 감소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개인 소비가 여객 비즈니스의 견인력이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내방 외국인에 관한 플러스 재료로는 일본에 대한 관심, 국제 회의의 증가 등이 있습니다만, 역시 기대도가 높은 것은 관서 공항입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로부터의 내방이 기대되는지는 질문에 대해서는 역시 한국이 1위, 이하 대만, 태국의 순서로 이어집니다.

현재, 도쿄(東京), 오사카(大阪), 히로시마(廣島), 후쿠오카(福岡), 고마쓰(小松), 구마모토(熊本), 나가사키(長崎) 등의 19개 공항에서 한국으로 정기편이 다니고 있으며, 그 밖의 공항으로부터도 전세편이 있습니다. 일본인에게 있어서 한국은 역시 가장 친근한 외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방금 소개 드린 데이터에 의하면 한국과 일본의 인적 교류를 포함한 여객 관광 산업의 장래는 유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에 몇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제는 한국과 일본의 공통된 과제이며,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첫째는 인재의 육성입니다. 호텔 산업을 예로 들 것도 없이 여객 관광 산업의

기본은 사람입니다. 어학 능력은 물론이려니와 세계 수준의 common sense를 가진 사람을 육성해 나가야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만난 적이 있고 일본이 낳은 최고의 국제인의 한 분이신 新戸邊 稻造 박사는 「나는 전문 지식은 가르치지 않는다. common sense를 가르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제연맹 사무국 차장을 역임하시던 중, 뜻하신 바를 다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만 지금도 5천엔 짜리 지폐에 인쇄되어 있는 초상화를 보면 그 온안과 이 말씀을 되새깁니다. 국제적 common sense는 한 나라만의 힘으로는 갖출 수 없는 것입니다. 전문 지식은 개인의 노력으로 습득할 수 있습니다만, common sense는 여러 사람이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갖출 수 없습니다. 국제 간에 이러한 관계를 만드는 것이 여객 관광 산업에 있어서의 인재 양성인 것입니다.

방금 customer's satisfaction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가 employee satisfaction, 즉 사원의 만족입니다. 사원 자신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객의 만족에 대해 배려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물론 물질적인 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이 정신적 만족입니다.

저희들이 평소에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master와 servant의 관계에 입각한 것이 아닙니다. 서비스라고 하는 전문 지식을 가진 자가 호텔이라고 하는 장에서 자기 능력으로 고객의 만족을 실현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직업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는 고객의 만족을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자기 만족이다 라고 하는 높은 의식이 필요합니다.

호텔 오후라에서는 작년에 본사로부터 한 시간 거리인 지바(千葉)현에 366실 규모의 독신자 기숙사와 연수원을 건설하였습니다. 전부 샤워 시설이 있는 독실이며 그 밖에 해외 부임자나 귀임자가 일시적으로 생활할 가족용 시설과 크고 작은 연수실, 체육관, 도서실을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이 곳은 직장인 호텔 공간과 격차가 없도록, 직장에서 정신적 여유가 생기도록 시설 면에 배려를 하였습니다. 호텔 오후라의 체인인 멤버 호텔의 연수생도 이용할 수 있으며, 호텔 신라를 비롯한 네덜란드, 괌, 上海로부터도 매년 많은 호텔 종사자들이 다녀 갑니다. 서로 국적이 다른 이들은 모두 공통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제적 common sence를 갖추는 것입니다. 인재 육성은 세계 공통인 것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환경 문제입니다. 이는 비단 우리 산업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특히 호텔 산업은 small community라고 불리듯이 사회와 밀착된 존재

입니다. 호텔의 일상적 행동은 사회로부터 요구받은 활동이며, 그 결과 또한 사회에 반영됩니다. 자원 보호, 물이나 공기의 오염 방지, 에너지 관리 등은 호텔의 중요한 업무입니다만 이는 다름 아닌 우리들의 일상 생활인 것입니다. 이러한 업무가 대량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심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호텔 오후라의 체인 호텔은 IHEI (International Hotels Environment Initiative) 이라고 하는 조직의 멤버입니다.

이 조직은 영국에 본부가 있고, 세계의 주요 호텔 체인이 멤버이며, 호텔 산업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환경 문제와 그 해결 방안에 관하여 생각하는 모임입니다. 각 호텔 체인의 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책에 관하여 함께 논의하고 검토하면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힘쓰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호텔 체인으로부터 「우리들의 경험에 비추어 샤워용 물은 1분에 2갤런이면 충분합니다. 만약 축정을 해 보아서 그 이상이라면 제어용 밸브를 달던가 샤워 헤드를 바꾸십시오」 등의 업무와 밀착된 제안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호텔 오후라는 아시아 태평양 지구에 속해 있으며 정기적인 모임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 문제라는 큰 테마를 한 기업 또는 한 나라에서만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계적 레벨에서 생각해 나가야 합니다. WTTC에서도 마찬가지로 움직임이 있으며 IHEI와 협력하여 행동하자는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상, 인재 육성과 환경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테마야말로 인접한 한국과 일본 양국이 협력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양국의 여행 관광 산업의 진흥뿐만이 아니라 세계에 대해서도 기여하는 길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만의 노력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은 미미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임석하신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저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提 案 〉

韓日・日韓經濟人交流促進團 誘致

大農 GROUP
會長 朴 泳 逸

오늘 韓國의 최남단에 위치한 아름다운 景觀과 탐라의 유서깊은 傳統民俗을 간직한 이 곳 濟州道에서 兩國 經濟界 中堅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提案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큰 榮光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89年 4月 서울에서 開催되었던 第21回 韓日・日韓民間合同經濟委員會 會議에서 兩側이 合意하여 실시해 온 「韓日・日韓中堅經營人交流促進團」은 벌써 5차례에 걸쳐 延 92個社 106名의 韓國經營人이 日本을 방문하여 日本의 有數企業과 現地産業施設 見學, 세미나 開催, 懇談會, TOP經營人招請 講演會등을 실시하였고, 日本側에서는 한차례 韓國을 방문하여 兩國 經營人간의 相互理解와 交流增進側面에 크게 寄與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러한 기회를 만들어주신 兩國의 中堅경제인및 관계자 여러분께 眞心으로 感謝의 말씀을 올립니다.

새로운 世界貿易機構(WTO)의 出帆등 世界經濟秩序의 재편을 예고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여건은 韓日 두나라에게도 새로운 關係定立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韓日兩國이 공통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自由市場經濟를 꾸준히 추진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그동안 쌓아온 兩國의 協力關係를 더욱 擴大 發展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년으로 벌써 7年제를 맞이하게되는 本 事業을 당초의 趣旨에 부합하는 事業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兩事務局은 그동안의 事業實績과 方向등에 관해 深度있게 論議해 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本 提議의 名稱에 대해서 그동안 韓日 兩側의 團員構成現況에 비추어 볼때 「中堅經營人」이라는 文句는 부적절한 표현이라는데 意見의 一致를 보고, 兩事務局에서는 수차례의 協議를 거쳐 다음과 같이 暫定合意하여 本 事項을 금번 合同會議에서 承認받아 실행할 예정입니다. 同 提議의 名稱을 당초의 「韓日・日韓中堅經營人交流促進團」에서

「韓日・日韓經濟人交流促進團」으로 變更하고, 行事內容에 있어서도 講演 및 討論會 중심으로 變化를 시도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本 밋선事業이 兩國經濟界의 높은 관심과 격려속에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兩國財界 中진여러분의 積極的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재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日本側에서 밋선이 訪韓하는 日程입니다만, 부디 많은 日本經濟人 여러분이 참석하시어 世界化속의 改革바람이 일고 있는 韓國의 모습을 다시 한번 確認해 보시고 활발한 意見交換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期待합니다.

答 辯

第一企劃(株)

社長 田中 宏明

第一企劃의 田中 입니다. 박영일 회장님의 제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첫째로 미션의 명칭을 종래의 한일·일한중견경영인교류촉진단 으로부터 한일·일한경제인촉진단으로 하자는 것인데 이것은 교류촉진단에 참가하시는 양국의 단원구성에 맞는 변경입니다. 그래서 아주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련해서 이미 일본측 사무국으로부터 제안이 되어 있는 것과 같이 한국 측의 단원구성을 대기업도 포함해서 한일경제협회의 회원구성을 반영한 폭넓은 멤버로 개편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행사내용을 강연, 세미나, 디스커션, 견학등을 망라한 다행사주의로부터 강연, 토론회를 중심으로한 교류대화형으로 변경시키는 일인데 이에 관해서도 일본측은 대찬성입니다.

세번째로 다음 개최지를 한국으로 하자는 요청이 있었는데 재작년 저희들이 일본측 단장으로서 서울에 가서 여러가지 행사를 비롯하여 대전엑스포 관람도 했는데 대단히 유익했습니다. 다음번에도 방한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 박영일 회장님의 제안에 답해드렸습니다만 한일간의 경제교류증진의 기본은 서로간의 신뢰와 상호이해가 있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회합도 이러한 추이를 받아 사무국간에서 협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합동회의에 참석해주신 한일 기업의 간부 여러분께 본 사업에 대해 각별한 이해를 해주시고 장래의 한일 관계를 내다보면서 많이 참석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提 案 〉

韓國訪日輸出促進團 및
對日投資誘致團・産業技術交流및선 派遣

三星物産(株)
副社長 李 吉 鉉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서 提案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榮光스럽게 생각합니다.

世界 貿易環境이 新時代를 맞이하고 있는 때에 韓日兩國의 發展的이고, 未來指向的인 經濟協力關係는 國交正常化 30周年의 뜻깊은 해를 맞이한동안 量的・質的인 면에서 크게 擴大・發展되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兩國間의 貿易不均衡은 좀처럼 개선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그 폭은 점점 擴大되어 가고 있는 실정으로 財界人의 한 사람으로써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韓・日間 貿易不均衡 問題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 업계의 반성과 함께 자구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이에 대한 日本財界 여러분들의 積極的인 협조와 배려 그리고,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共同意識속에서 相互信賴하고 協力하여 韓日間의 水平的 經濟協力 關係를 넓혀가기 위한 兩國 經濟界의 相互努力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韓國訪日輸出促進團은 1985年 5月 처음으로 貴國을 방문한 이래 50회에 걸쳐 國內中小企業 1,957個社가 參加, 延 177個 都市를 방문하여 22,370件의 實質的인 輸出商談活動과 日本現地商工人과의 교류활동을 통해 國內 中小企業體의 對日進出 및 輸出擴大에 큰 寄與를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訪日輸出促進團은 금년중에도 2회에 걸쳐 東京을 비롯한 각 지역에 派遣할 계획으로 있으며, 오는 5月에는 그 첫번째로 40餘個社의 규모로 東京, 大阪, 松山를 방문하여, 展示商談會 및 各種 活動을 벌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무쪼록 同 促進團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금년에도 많은 關心과 聲援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작년에는 日本國 福岡市에서 開催되었던 第26回 韓日・日韓民間合同經濟委員會 會議에서의 합의에 따라, 韓國側에서는 民官合同으로 投資誘致團을 派遣하여 東京등 3個都市를 순회하면서 우리의 企業環境改善 措置, 새로와진 外國人 投資環境改善內容에 대한 說明會 및 合作投資・技術導入에 관심있는 兩國企業間의 個別相談會를 開催한바 있습니다. 同 誘致團은 日本財界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협력 덕분에 소기 이상의 成果를 거두고 歸國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月에는 日本의 “對韓投資環境調查團”이 來韓하여 韓國政府 및 地方自治團體의 投資誘致說明會, 韓日兩國 經濟人들간의 懇談會, 창원공단 및 研究所 見學등을 통하여 韓國의 投資環境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가짐으로써, 投資對象國으로서의 韓國에 대한 認識을 새로이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작년의 交流實績을 바탕으로 本格的인 對韓投資誘致를 위한 使命을 派遣하여 日本主要地域에서 說明會 및 各업계와의 相談을 실시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 생각되어 금년에도 派遣하고자 提案드리오니, 同 使命이 이번에도 좋은 成果를 거둘 수 있도록 日本側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편 兩國 中小企業間의 交流促進 및 技術協力強化를 위한 産業技術協力促進事業의 일환인 “産業技術交流mission”은 1993년부터 日韓産業技術協力財團에서 受容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아무쪼록 활발한 交流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日本代表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感謝하겠습니다.

傾聽해 주셔서 感謝합니다.

答 辯

(社) 日韓經濟協會

專務理事 村上 弘芳

방금의 李吉鉉 副社長님의 제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제안은 세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한일 양국의 경제관계에서 계속해서 대항해야 할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방일수출촉진단에 관해서입니다만, 이 사업은 한일 양국의 시장협의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인 일본의 무역진흥회에 의하면 금년의 두번의 방일계획은 아까도 말씀이 있었듯이 5월과 11월에 각각 실시되기로 되어있으며, 양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측의 수용태세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일한시장협의회가 중심이 되어서 일본 무역진흥회, 각지의 상공회의소 관계단체, 그리고 유관기업들의 협력하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준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공리에 끝난 작년이상의 성과가 오르기 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일투자유치밋선에 대해서 입니다만, 작년 세번에 걸친 관민합동의 투자유치단은 한국정부에서 적극적인 시책전환을 일으키셔서 조금 반향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일본측의 파견인 투자환경조사단도 획기적인 시도였습니다. 금년도의 밋선에 대해서도 통산성, 외무성을 비롯한 일한경제협회, 일본무역진흥회, 일본상공회의소 등 관계 각 기관이 협력하여 수용태세를 정비해 나아가고자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기술교류밋선에 대해서입니다. 이 사업은 재작년 설립된 일한 산업기술협력재단 사업으로 인계되어 3년이 지났습니다. 더욱더 충실한 내용이 되어가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유망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이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青少年交流 日韓 大學生 相互 訪問」

社團法人 日韓經濟協會
常務理事 竝木 友

日韓經濟協會의 竝木(나미키)입니다. 青少年 交流 日韓 大學生 相互 訪問에 관한 日韓 양국의 共同 提案으로서, 제가 대표로 제안드립니다.

청소년 교류 사업은 日韓 國交 正常化 20주년 기념 사업으로서 1985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 작년까지 한국으로부터 10회, 합계 467명의 대학생이 訪日하였고, 한편 일본으로부터는 1988년 이후 7회, 합계 219명의 대학생이 訪韓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日韓 양국의 상호이해를 深化하고, 友好를 增進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미래를 짊어져 나갈 학생들에게 서로의 나라를 방문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때 얻은 經驗이 훗날 그들이 사회의 第一線에세 활약하게 되었을 때, 반드시 여러 측면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에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참가하는 학생은 日韓・韓日 兩 經濟協會의 회원 단체・會員社의 임직원의子弟들입니다. 또한 교류 내용은 日韓 대학생 상호간의 交流, 民泊, 史蹟과 文化・産業 施設의 견학 등, 폭 넓게 相互간의 理解를 深化시킨다는 관점을 중요시한 폭 넓은 것이 되도록 유의하며 실시해 왔습니다.

매년 이 사업에 참가한 대학생들로부터 感想文을 제출 받아서, 일본측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協會報에 게재하였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상대국에 관한 新鮮한 發見이 있었고 固定 觀念을 시정하는데 유익했다고 했으며, 특히 같은 세대끼리의 솔직한 대화를 통하여 啓發되는 점이 많았다는 소감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成果에 비추어, 本 事業은 양국 경제교류의 基盤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과 사람간의 理解와 友好의 增進을 위하여 대단히 뜻깊은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 내용에 관해서는 양국 경제환경의 발전과 참가자들의 생활양식이나 사고방식의 변화에 卽應하여 올

해부터 대폭적으로 개선할 것을 양 협회가 協議 중입니다.

따라서 양국 경제계 및 양국 회원사의 지원과 협력하에 금년도에도 청소년 교류 일한 대학생 상호방문 사업을 여름방학 기간중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全 體 會 議

〈全體會議②〉
(分科會議長報告)

第1分科會（貿易關聯分野）

韓國側共同議長
朴 世 英

〈주제발표〉

韓國側：「WTO體制下에서의 韓·日兩國의 協力方案」
(株)雙 龍 代表理事 安 宗原

日本側：「WTO體制下の 日韓 貿易의 未來像」
住友商事(株) 會長 伊藤 正

〈코멘트〉

韓國側：LG電子(株) 副社長 金 永 俊
交通開發研究院 院長 楊 秀 吉

日本側：(株)第一勸銀總合研究所 理事長 池內 康彦
伊藤忠商事(株) 서울支店長 坂井 光男

(主 題 發 表 要 旨)

韓國側：「WTO體制下에서의 韓·日兩國의 協力方案」

1. WTO체제의 출범과 한·일 양국의 교역관계

- (1) 금년초 본격 출범한 WTO체제는 세계무역질서를 재편하고 수출을 촉진시키는 본래의 기능과 함께 시장개방을 통해 경쟁력이 없는 국가의 산업은 기반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음.
- (2) 양국의 무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인 안목으로 세계주요지역에서 한·일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공동진출방안이 필요함.

2. 21세기초 세계경제를 리드할 동아시아경제권

- 한·일 양국은 아시아지역에서 무역흑자를 보이고 있지만, 동지역을 이제는 판매지역만으로서가 아니라 한·일 양국이 함께 진출하여 동지역의 번영에 기여함으로써 공존공영하는 것이 그 어느때보다 긴요함.

3. 한·일 양국의 공존공영과 아시아를 중심으로한 세계의 번영을 위한 제안

- (1) 한·일 양국은 시장개척을 추진함에 있어 전략품목별로 공동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2) 21세기의 다크호스로 부상하는 중국과 제2의 중국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인도시장에 대한 공동진출
- (3) 러시아의 자원개발
- (4) 금후 한·일 양국은 아시아 전지역의 경제발전을 주도해 나감으로써 아시아 전지역의 복지증진과 생활수준의 향상에도 기여하는 중심국가로서의 역할 수행

4. 한·일 양국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공조체제의 구축

- (1) 한·일 국교정상화 30주년을 맞이하여,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양국 공조체제의 장애를 제거하고 공동발전의 여지를 더욱 확대
- (2) WTO 시대, 무한경쟁시대의 21세기를 맞아 아시아 태평양시대의 주역으로 더욱 기대되고 있는 양국경제인은 상호 협력하여 공동번영의 길을 모색해 나가야 함.

(코멘트 : 일본측)

1. 1994년도 한국의 수출호조 내용이 과거와 다르며 종래 수직분업적인 역할분담에서 수평분업적인 역할분담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대일적자는 증가하고 있기때문에 근본적인 해소책으로서 저변산업의 육성과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금융의 정비가 필요하며, 자유무역체제를 견지해 나간다는 입장을 고려해 볼 때 환율의 안정이 중요함.
2. 최근 한국의 민간, 정부레벨에서의 적극적인 자세와 일본의 초엔고, 지가하락 등 양국의 현실은 극히 대조적인 가운데 한일민간기업간의 협력에는 증가하고 있음.
3. 한일기업협력의 신시대를 위해서는 눈앞의 이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무엇보다 서로 양보와 협력을 돈독히 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일본기업인의 적극적인 방한과 한국메이커의 대고객 서비스 향상이 중요함.

(主題發表要旨)

日本側：「WTO體制下の日韓貿易の未來像」

1. 일한무역관계에 대한 회고

- (1) 양국의 무역은 1965년에는 수출입 합하여 21억 달러였던 것이 1975년에는 37억달러, 작년 1994년에는 389억달러로 계속 확대되어 왔음.
- (2) 1965년도 일본의 대한수입은 식료, 원료, 연료가 전체의 88%를 차지했으나, 1993년도에는 식료, 원료, 연료가 20%, 그외 제품이 80%로 그 비율이 완전히 역전되었으며, 최근들어 철강분야등 양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품목을 서로 공급하는 국제분업이 나타나고 있음.
- (3) 양국간의 무역확대가 양국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나, 한국의 고도성장기(1970년대)와 1983년경부터 한국경제가 회복되면서 대일적자가 증대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으며, 일한간의 무역마찰은 계속되고 있음.

2. 한국의 신통상정책

- (1) 한국정부는 1993년 7월에 정치적 논리와 감정에 치우쳐 있던 대일정책을 청산하고 경제 논리에 입각하여 상호 신뢰관계를 굳히고 동반자 관계를 구축한다는 신대일정책을 발표.
- (2) '94년말 김영삼 대통령의 「WTO체제의 발족으로 상징되는 세계경제의 개방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세계의 일류국가로 살아 나갈 수 있는 한국을 건설하여 다음세대에 넘겨줄 것을 목적으로」 한 세계화 정책을 제창

3. 보다 긴밀한 일한관계를 향한 과제

- (1) 무역이 양쪽이 모두 이익을 얻는 이른바 Win win 게임이라는 사고방식에 입각, 양국의 무역불균형문제도 확대균형의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2) 일본의 경우, 지나친 정부규제와 폐쇄적인 상거래관행의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임.
- (3) 직접투자의 확대를 위해 한국이 일본기업의 보다 매력적인 투자시장이 될 수 있도록 가일층의 규제 완화·자유화가 필요함.

- (4) 일한 양국산업에 의한 글로벌한 비즈니스 전개와 추진 양국기업은 널리 세계시장에서 Joint Work를 추진해야 함. (일한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제3국에서의 대형프로젝트에 공동참여)

5. WTO체제하의 일한협력

- (1) 냉전의 종식으로 동서간의 벽이 무너지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남북간이 가까워져 세계는 하나의 커다란 시장이 된 시점에서 WTO가 창설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임.
- (2) 미국이나 EU가 지역주의 지향성을 강화하고 세계가 블록화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는 아시아·태평양을 가장 개방된 시장으로 유지해 나가야 함.
- (3) '96년에 OECD에 가입할 한국과 일본이 WTO체제하의 자유무역추진에 리더쉽을 발휘하고, 양국이 손에 손잡고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협력하면서 세계의 자유무역체제를 수호해 나가야 함.

(코멘트 : 한국측)

1. 한·일간의 지속적인 무역발전을 위해서는 양국간의 교역증대를 저해하는 여러가지 요인을 제거시켜야만 하며, 아울러 제3국시장에서의 협력을 통해 한·일기업간의 신뢰관계를 증진시킨다면 양국시장에서의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임.
2. WTO체제하에서의 한·일양국은 WTO가 아시아의 경제발전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협력해야 하며, 특히 중국의 WTO조기가입에 한·일양국이 협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함.
3. WTO는 위협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한·일 두나라경제에 유리하며, 지역주의 또한 지역시장규모의 확대라는 의미에서 기회의 요인으로 봐야 함.

〈全體會議②〉
(分科會議長報告)

第2分科會 (産業協力分野)

韓國側共同議長
趙 錫 來

오늘 오전에 개최된 第27回 韓日民間合同經濟委員會 會議의 第2分科會의 韓國側 共同議長을 맡은 趙錫來입니다.

한국측 공동의장으로서 오전중의 分科會에서의 토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韓日兩國 代表團으로부터 다수의 단원이 참가하여 유익하고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三星電子(株)의 李潤雨 副社長으로부터 「轉換期에 선 韓日關係와 새로운 兩國間 技術協力方案」이라는 주제발표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세계무역질서인 WTO의 출범에 따른 한일양국의 동반자적 협력관계 강화, 아시아 경제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양국간 새로운 분업체제 필요, 최근의 달러가치 하락 및 새로운 円貨강세로 인한 국제통화 가치의 재편현상 등 國際環境變化속에서 轉換期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기술협력의 방향과 분야를 제시했습니다.

양국간 경제협력의 전제로서 「協力和 競爭을 통한 同伴者的 關係」를 강조하고, 기술협력에 있어서는 과거의 垂直的인 기술협력보다는 고급기술의 水平的 分業形態의 상호간 필요기술을 과감히 제공해 줄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대규모 개발·생산의 투자와 리스크가 큰 첨단반도체, 액정패널 분야와 멀티미디어 분야의 공동개발, 합작투자 및 공동생산에 대한 提言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新日本製鐵(株)의 三木 利夫(미키 토시오) 副社長으로부터 「아시아地域에 있어서의 産業協力の 未來像 -일본철강업의 산업협력의 사례를 중심으로-」이라는 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이나믹하게 경제성장을 이루어가고 있는 아시아에 있어서 韓日兩國이 산업협력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찬스를 발굴함과 동시에, 同 地域의 번영에 가일층 공헌해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시점에서의 좋은 提言이 계셨습니다.

과거 日本鐵鋼業이 행해온 산업협력의 구체적 사례로서 POSCO와의 技術協力, 美國 인랜드사와의 합병,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泰國에서의 POSCO사와 협력, ISI(國際鐵鋼協會)의 활동등을 열거하고, 이를 토대로 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과제로서 상대국의 經濟發展速度와 技術力の 레벨에 맞는 적절한 協力, 秩序있는 市場의 維持 및 상대국의 동업타사나 수요산업과의 共存共榮,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룰에 준한 産業協力, 經濟・經營의 글로벌화에 대응한 3국간 이상의 産業協力 모색, 아시아를 비롯한 해외지역의 산업개발과 地球規模의 國際貢獻등이 필요하다는 아주 유익한 發表였습니다.

兩國의 主題發表 後 韓國側 패널리스트인 産業研究院의 金都亨 日本研究센터所長과 毎日經濟新聞社 李正根 編輯局長, 日本側 패널리스트인 石川島播磨重工業(株)의 野村 滿郎(노두라 미츠로) 常務取締役國際本部 本部長과 山一證券(株) 鈴木 教之(스즈키 노리유키) 取締役으로부터 주제발표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고, 이에 대한 청중으로부터의 질문등 활발한 意見交換이 있었습니다.

한국측으로부터 일본철강 업체의 構造調整과 WTO체제하에서의 질서있는 경쟁과 협력의 가능성에 대한 質疑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오늘날 포항제철이 신일본제철과 함께 巨大市場으로 부상할 東南亞에서 협력사업을 전개할 수 있게 된 점을 상기, 책임있는 POSCO의 역할, 생산수출·기술사업에 관한 공동파트너로서 協力可能性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반도체, 전자, 기계류등의 고급기술분야에서의 3국 공동진출, 자본협력, 경쟁제품의 차별적 분담등의 새로운 협력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고 素材産業에서 글로벌 로지스틱 전략이 전개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3국 시장공동진출의 필요성을 제

기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아시아의 高 成長속에서 금융, 주식시장의 발전과 함께 금후의 산업협력을 위한 자금지원, 인프라정비를 위한 아시아금융시장의 중요성에 대해, 공통인식에 도달했다는 점입니다.

끝으로 몇분의 전문가들로부터도 유익한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의 對日貿易赤字增加額중 32%가 자본재임을 지적했습니다. 양국간 무역불균형은 분명히 양자간 문제이지만, 규모가 커질 경우의 문제를 고려하여, 일본은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산업구조조정노력을 가속화하고, 한국은 産業構造高度化를 양측 가일층 주력해야 하며, 韓日經濟人포럼이 제안한 한국의 써포팅인더스트리 육성에 관한 한일협력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협력과 FOLLOW-UP작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共 同 聲 明

第27回 韓日・日韓民間合同經濟委員會 會議는 1995年 4月 13日, 14日 兩日間 大韓民國 濟州道 西歸浦市中文에서 韓國側으로부터는 朴龍學 團長外 127名이, 日本側으로부터는 羽倉信也 團長外 129名이 參席한 가운데 開催되었다.

1. 全體會議에서는 經過報告後 4個 專門委員會의 活動狀況에 對한 報告가 있었으며, 모두 異議없이 承認되었다.

- (1) 第21回 韓日・日韓貿易委員會 (1994年 6月 日本, 東京)
- (2) 第20回 韓日・日韓機械工業委員會 (1994年 6月 日本, 橫濱)
- (3) 第13回 韓日・日韓中堅・中小企業委員會 (1995年 3月 日本, 東京)
- (4) 韓日・日韓産業一般委員會
(第4回 委員會 會議는 1995年 11月 서울에서 開催豫定)

2. 于先 兩國關係의 基本的인 立場에 對해 다음과 같이 意見의 一致를 보았다.

韓日國交正常化 30周年이 되는 해에, WTO라고 하는 보다 廣範圍한 自由貿易을 推進하는 體制가 發足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東아시아地域은 世界經濟의 成長엔타로서 눈부신 經濟規模의 擴大를 持續하고 있다. 그 先發國인 韓日兩國은 市場開放과 産業協力에 加一層의 努力을 傾注하고, 多樣한 協力을 글로벌하게 展開하면서 「前進을 위한 파트너」로서 아시아 및 世界經濟의 發展에 寄與해 가는 것이 必要하다고 認識하였다.

3. 兩國은 基調講演 및 貿易關聯, 産業協力, 交流增進等 各分科會에서의 意見發表 및 交換을 통해 아래 事項에 對해서 認識을 같이 하였다.

- (1) 韓國의 OECD加入實現에 의해, 아시아의 先進國으로서 韓日兩國은 APEC 發展에 대한 協力을 비롯하여, 보다 많은 課題를 共有하고 새로운 韓日關係 構築을 指向한다. 그리고 擴大傾向에 있는 兩國間의 貿易不均衡은 擴

大均衡의 方向으로 改善을 指向 해야 하며, 이를 위해 韓國側에서는 産業 構造의 改善과 技術開發力의 向上등에 從前 以上の 努力이 要求되며, 日本側에서도 加一層의 輸入擴大가 必要하다.

- (2) 超円高局面에 대한 對應策의 하나로 日本은 規制緩和와 市場開放의 極大化를 기하는 한편, 그 企業活動은 海外로부터의 調達을 包含한 海外展開을 더욱 推進하게 될 것이다. 競爭力の 強化를 향한 韓國의 投資誘致와, 企業間 産業技術協力關係의 推進이라는 目標은 日本側의 이러한 흐름과 方向을 같이하는 것이며, 加一層의 成果가 期待된다.
- 韓國으로부터 日本에 대한 企業進出도 向後 活發化되고 兩國間の 紐帶는 더욱 深化될 것이다.

- (3) 韓日은 서로 善隣協力을 통한 共同繁榮을 指向하는 좋은 競爭相對인 同時에 秩序있는 市場을 創造하고 育成하는 파트너로써, 아시아地域을 비롯한 第3國에 대한 産業協力の 길을 摸索하는것이 重要的 課題가 되고 있다. 經濟論理만이 아니라 相對國의 NEEDS와 文化에 대한 理解를 隋伴한 國際貢獻의 場에서 韓日兩國은 더한층 協力を 推進한다.

- (4) 中小部品産業의 育成은 韓國産業의 競爭力 基盤強化에 不可缺하며, 韓國은 中小企業에 대해 繼續해서 資金, 技術등의 支援을 強化하고, 日本은 産業技術協力財團의 事業등을 통하여 技術人材의 育成과 工場運營에 대한 助言등에 協力한다.

- (5) WTO, OECD라고 하는 새로운 테두리 속에서 韓日間の 協力和 補完體制는 더욱 重要하게 되었다. 相互理解와 信賴關係가 그 基礎이며 이를 위해 여러 分野, 地域, 階層에서의 폭넓은, 특히 젊은 세대간의 相互交流를 더한층 增進하는 努力이 必要하다.

- (6) 1993年 11月 兩國頂上에 提出된 「韓日經濟人포럼」報告書는 兩國의 向後 經濟協力の 方向을 提示한 것으로서 尊重하고 이를 強力하게 推進한다.

4. 各分科會에서의 提案等に 依據, 別添事項에 合意하였다.

5. 次期會議는 來年봄, 日本에서 開催한다.

1995年 4月 14日

韓國側代表團 團長 朴 龍 學

日本側代表團 團長 羽倉信也

〈別 添〉

合 意 事 項

- (1) 今年 2회의 「訪日輸出促進團」 派遣과 그 受容에 協力하는 件
- (2) 韓國側은 對日投資誘致團을 派遣하며, 日本側은 이 誘致團의 日本國內에서
의 活動에 協力하는 件
- (3) 兩國의 産業技術協力財團 事業에 對해 協力하는 件
- (4) 韓國側은 産業技術交流促進團을 日本에 派遣하며, 日本側은 그 受容에 協
力하는 件
- (5) 兩國間의 技術協力增進을 爲해 韓日・日韓兩經濟協會에 의한 技術提携幹
旋事業을 推進하는 件
- (6) 「日韓經濟人交流促進團」의 韓國派遣과 그 受容에 協力하는 件
- (7) 「靑少年交流事業」으로서 韓日兩國의 大學生을 相互 派遣하며, 그 受容에
協力하는 件
- (8) 其他 各種協力·交流事業을 韓日・日韓兩經濟協會 合意下에 共同으로 推進
하는 件

以 上

〈閉會式〉

團 長 人 事

韓國側 代表團

團長 朴 龍 學

어제 午後부터 이틀간에 걸친 第27回 韓日・日韓民間合同經濟委員會 會議을 閉會함에 있어 簡單히 人事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會議에서는 兩國 代表團 여러분께서, 두나라의 더욱 알찬 協力關係의 強化와, 21世紀를 앞두고 우리는 果然 어떻게 하는 것이 相互繁榮을 爲한 길인가 하는 것을, 始終一貫 眞摯하게 論議하심으로써 크나큰 成果를 거둘 수 있었던데 對해 深甚한 感謝를 드립니다.

開會式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韓日兩國은 이제 從前以上으로 堅固하고도 強力한 相互協調를 通해, 더욱 알찬 協力關係를 構築하는데 힘써야 한다는, 매우 重大한 共同의 課題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함께 이룩해야 하는 責務는, 이번 會議에서 合意된 모든 事項을 뒤로 미루는 일이 없이, 곧바로 實踐에 옮기는 일이라 믿고 있습니다.

끝으로, 비록 짧은 日程이었습시다만, 여러모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많이 參席하여 주신 것을 깊이 感謝드리며, 特히 日本側 代表團께서는 豫期치 못했던 여러가지 事態가 發生하였음에도 不拘하시고, 이처럼 멀리 와주신 誠意에 다시 한번 깊은 感謝와 敬意를 表하는 바입니다.

來年에 다시 日本에서 만나볼 때까지 부디 健安하시고, 더욱 發展있으시기를 衷心으로 祈願하면서 人事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틀동안 참으로 勞苦가 많으셨습니다.

感謝합니다.

團 長 人 事

日本側 代表團
團長 羽倉信也

방금 한국측의 박회장님께서 정중한 폐회의 인사말씀을 해주셨으므로, 저는 부의장으로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일한양국대표단 여러분들께서 다망하신중에도 이틀에 걸쳐 매우 열심히 토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보고된 바와 같이 이번 회의가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두고 성공리에 마칠 수 있게 된 것은 주최측의 박용학 회장님을 비롯한 한국측 관계자 여러분들의 다대한 지원과 협력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성명에도 있었듯이, 오늘날 일한 양국을 둘러싼 국제환경은 WTO체제의 발족으로 상징되는 것과 같이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있는 한편, 지역경제의 불력형성도 나타나는등, 새로운 질서구축을 위한 다양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아시아의 주도적인 지위에 있는 일한양국은, 자유무역견지의 입장에서 모든 아시아 국가들과의 공생을 도모하며 아시아 뿐만이 아닌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에 공헌해 가는 것이 중요한 책무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양국관계를 더한층 개선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만, 일한국 교정상화 30주년이 되는 금년 합동회의에서 무역, 투자, 기술협력분야에서의 협력에 이어 제3국과의 공동진출과 중소기업의 육성등에도 협력해 갈 것을 합의하였으며, 또한 성숙한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상호이해와 신뢰관계가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 한것은 대단히 의의가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 일한경제협회로서도 금번의 성과를 되짚어보며 이후에도 한층 교류를 거듭하여 신뢰관계를 견고히 해나감과 아울러 양국경제관계의 발전에 주력해 나가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많은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양국대표단 여러분들의 더한층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드리며, 내년 4월에 일본 新潟에서 다시 만나뵐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폐회의 인사말씀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